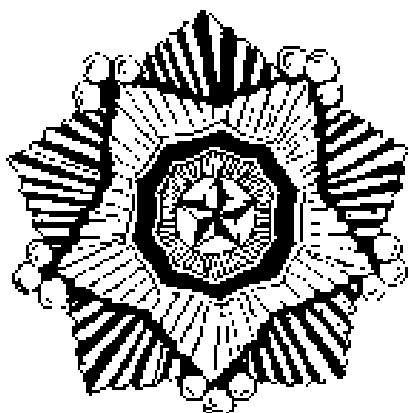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9

주체 90 (200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9호

(루계 제 647 호)

◆◆◆◆◆◆◆◆◆◆

차 례

◆◆◆◆◆◆◆◆◆◆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평론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4
그 품이 그리워	7
추억	8
위대한 어머니를 노래합니다	16
백두산녀장군의 력사우에 새겨 진 불멸의 노래	17
강자의 초상	18
한 녀교원에 대한 추억	19
안해에게	25
탐구와 사색의 뚜렷한 자취	26
장군님 빛내시는 수령님년대	32
군민의 정 이 가을에 무르익었네.....	32
두 세월의 상봉	33
명언해설	34
흥미와 진실을 론하고 싶어	35
콤팩트디스크의 발전성과.....	37

삶의 노래	38
별목공의 목소리	46
옥계천물소리	47
우리의 땀	52
생활적인 시에 대한 소감	53
금강산시초	57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분출	59
가을의 추억	61
용해공의 안해들	62
갑진년의 사진	63
물길 백리 꿈길 백리	71
악몽과 질병	80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평론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날과 달을 이어 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 최근에 또다시 평론활동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문학운동에서 바야흐로 새로운 변혁이 태동하고 있는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론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것은 주체적문학예술발전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마련하여 주신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이번 말씀에서 평론이 차지하는 지위와 사명을 다시금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으로써 문학예술에서 평론의 권위를 결정적으로 높이고 그 선도적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였으며 지난 시기 평론에서 나타난 결함과 그 원인, 새 세기의 평론활동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으로써 문학평론을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힘있는 보검을 안겨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구절구절에는 평론가들에 대한 최대의 신임과 기대, 한 없는 사랑과 은정이 어려 있다.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 안은 우리 평론가들의 심장은 결사관철의 일념으로 그 어느때보다 더 세차게 뛰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평론은 문학창작에서 나타난 새로운 싹을 남 먼저 발견하는 예리한 눈과 그 성과를 종합일반화하는 폭 넓은 개괄력을 가지고 문학발전을 힘 있게 떠밀어 준다.》

평론은 문학의 새로운 형상분야를 탐색하고 작품창작과정을 바로 잡아 주는 문학발전의 힘 있는 추동력이다.

력사적으로 볼 때도 문학예술은 평론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어 왔다. 인류문학사에서 명작으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은 다 평론에 의하여 그 시대적가치가 평가되어 세상에 알려 지게 되었고 세계적인 문호들도 평론에 의해 빛이 났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론이 이처럼 문학발전과 문학운동에서 커다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우리 평론활동에서는 일련의 결함들이 발로되었다.

우선 평론에서 철학적깊이가 보장되지 못하였다.

평론에서의 철학성은 평론가가 발견한 문제점이 새롭고 그 본질을 론증분석하고 일반화하는 깊이가 철학적으로 심오할 때 보장된다고 할수 있다.

평론에서 이런 철학성은 평론가의 철학적식견

에 의하여 담보된다.

그런데 평론가들의 사색과 고찰이 철학적으로 깊지 못하기때문에 작품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보고 주관주의적인 논리만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작품을 기존공식과 도식적인 틀에 맞추어 논하거나 순수 사회학적인 견지에서 평가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았다.

평론부문에서의 결함은 또한 평론의 선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것이다.

평론의 근본사명은 문학예술에 대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평론의 이 선도자적역할은 문학창작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싹을 남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이끌어주며 시대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고 창작의 주제방향과 형상방향을 구체적으로 그어 주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시기 평론에서는 작품창작의 뒤를 따라 가면서 작품평인 경우에도 찬양일변도로 나가거나 미화분식하였고 문제평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피상적인 논리를 펴나갔다. 또한 문학운동의 실태를 예리하게 투시하면서 폭넓은 개괄력을 가지고 창작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 미약하였다. 그리하여 작가들의 창작실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평론가들이 당정책적선에 철저히 서서 시대와 작가, 현실과 문학과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 및 미학적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고 해명하여 창작을 선도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아직 오르지 못했것과 관련된다.

결정적으로 평론가들의 수준이 아직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재래식평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데 평론사업이 담보와 침체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 기본원인이 있다.

지금은 거창한 전변과 창조의 세기-21세기이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요구하고 있는 새 세기는 우리 평론가들에게도 넓은 관념에서 벗어나 참신하게 사고하고 높이 비약해 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최근에 주신 강령적말씀의 진수도 바로 여기에 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문학평론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평론가들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평론은 문학계에서 작품창작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권위가 있어야 한다. 평론의 권위는 그 질

에 달려 있다. 평론가의 실력이 팔리고 평론의 수준이 낮으면 평론의 권위가 서지 않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 글에서는 평론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 깊은 말씀을 주심으로써 평론의 지위와 그 권위를 최상의 경지로 끌어 올려 주시었다.

평론의 권위는 곧 그 사상미학적질에 달려 있으며 그 질은 평론가의 실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새 세기는 두뇌전, 실력전을 벌릴것을 요구한다.

평론창작의 담당자, 주인은 평론가인것만큼 평론가들의 실력이 곧 평론의 권위를 세우는 근본 열쇠로 된다.

평론가들이 실력을 높이자면 우선 우리 당의 문예로선과 정책을 깊이 있게 체득함으로써 높은 정치적식견을 가져야 한다.

평론가의 정치적식견은 모든 문학현상을 혁명적관점에서 올바르게 보고 당의 의도와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예리하게 판단하는 당적안목을 말한다.

평론가의 정치적식견, 이는 곧 당적안목을 의미한다.

평론가의 정치적식견은 평론의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논다.

그것은 문학에서 평론의 선도적역할이 바로 당의 문예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을 위한 실천적방도를 찾아 주는 방향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문예정책은 주체적문학예술이 나아갈 길을 명확히 밝혀 주는 라침판이다.

그러므로 평론가가 높은 정치적식견, 당적안목을 가지고 우리 당의 문예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론증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형상방도를 탐구하여 작가들을 선도하고 계발시켜 주는것이 우리 식 평론의 기본으로 되는것이다.

또한 창작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싸움을 당정책적 견지에서 남먼저 발견하고 그 성과를 추동하면서 적극 계발시켜 주어야 한다.

평론가의 정치적식견을 높이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반동들과의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이 첨예하게 제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문학이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썩어 빠진 부르조아문예조류, 형형색색의 반혁명적인 문예리론들의 엄중한 도전속에서 혁명성과 순결성을 고수하자면 평론의 전투적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평론계가 잠들면 낡은 창작경향이 되살아 나고 온갖 불건전한 문학조류들이 머리를 쳐들게 된다.

평론가는 문화전선의 전초선에 서서 제국주의

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로부터 당의 문예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투사로서의 자각과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투쟁의 필봉을 날카롭게 버려야 한다.

평론가의 실력을 높이자면 또한 철학적안목을 키워야 한다.

평론의 수준과 질은 철학적깊이에 많이 달려 있다.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논리성이 강한 평론이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을수 있다.

철학적사색이 없이 문학현상자체를 놓고 피상적으로 론하거나 작품에 대하여 논리적타당성없이 미화분식 또는 비평하는 식의 평론은 문학운동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뿐아니라 작가들의 창작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문학은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그 어떤 인간의 운명문제도 인간에 대한 철학적전해가 립장을 떠나서 풀수 없다. 결국 인간의 운명문제는 문학이 다루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철학적인 문제로 되는것이다.

이렇듯 생활의 철학을 다루는 문학을 직접 선도하는 위치에 서 있는 평론이 철학적깊이를 가져야 한다는것은 자명한 리치가 아니겠는가.

평론의 철학성을 높이는것은 사람들의 지성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진 오늘의 현실적으로 구와도 관련된다.

과학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정보산업시대에 들어 선 현 세기 사람들의 지성세계는 비할바없이 높아 졌다. 특히 문학예술활동이 대중화되어 누구나 문학예술작품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이런 조건에서 평론가들이 인민대중의 지성세계에 만족을 주자면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평론을 써야 하는것이다.

평론가의 철학적안목은 철학적사색과 고찰의 산물이다.

철학은 세계관과 인생관을 준다는 의미에서 문학과 깊은 련관을 가지고 있다.

문학에서의 철학적인것은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이 세계관적이고도 인생관적인 높이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형상되었는가 하는 문제 즉 생활진리의 심오성문제로 표현된다. 작품에서 제기한 인간의 운명문제가 심각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사상이 심원하며 형상이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게 하는 깊이를 가졌을 때 철학성이 있다고 말한다.

평론의 철학성도 평론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심화되어 론증된 문제가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가 하는데 귀착된다고 할수 있다.

이것은 바로 철학성이 하나의 문학현상을 놓고도 그 본질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꿰뚫어 보고 분석할수 있는 평론가의 높은 철학적사색과 고

찰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정적으로 평론가의 모든 사색과 고찰이 철학적깊이를 가질 때만이 무게 있는 평론을 써낼수 있고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다.

평론가가 철학적안목을 높이자면 심리학에도 정통하여야 한다.

철학과 심리학은 밀접히 련관되어 있으며 심리학을 모르고서는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평론을 써낼수 없다.

평론가는 작가이상으로 인간심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작품에 형성된 성격들의 진실성을 판별하고 분석할수 있다. 또한 작가의 창작심리도 충분히 꿰뚫어 볼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작가의 의도와 형상결과를 놓고 설득력 있는 평론으로 창작을 고무추동할수 있다.

이처럼 평론가가 철학적안목이 높고 심리학에 정통하여야 방아간에는 들어 가지 못하고 바깥을 빙빙 맴도는식의 무매한 평론이 아니라 문학형상의 본질을 예리한 논리로 투시하고 일반화하는 쇄소리 나면서도 무게 있는 평론을 쓸수 있다.

평론가의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높은 미학적안목을 소유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은 인간과 생활의 전형적모습을 통하여 어떤것이 아름답고 추악한가, 어떤것이 생활의 진리인가 하는것을 밝혀 준다.

그러므로 평론가는 아름다움에 대한 주체적견해와 관점을 더욱 투철하게 세워야 한다.

평론가가 미학적안목을 옹게 가져야 작가가 창조한 생활과 인간에 대하여 옹은 미학적평가를 줄수 있으며 건전한 미적견해와 관점을 세워 줄수 있다.

평론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인간을 그리든지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의 생활속에서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찾고 진실하게 그리도록 작가들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속에서 우리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과정에 겪게 되었던 고난과 시련, 희생속에 깃들여 있는 참된 미의 의미를 깊이있게 깨우쳐 줌으로써 시대의 영웅과 혁명적량만, 보람찬 인생행로에 대한 값 높은 형상을 창조하도록 작가들을 선도하여야 한다.

예술적감각과 형상적환상력은 평론의 특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평론은 창작이다. 작품을 형상적으로 파악하는 예술적감각이 있어야 문학평론을 쓸수 있다. 예술적감각이 무딘 평론가는 추상적인 논리나 따지

는 딱딱하고 메마른 글을 써낼수밖에 없다.

일반사회학과는 달리 형상과 논리에 다 밝아야 하며 작가의 창작심리와 작품생리에 정통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요구가 평론가에게 제기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평론가는 높은 예술적감각을 가지고 작품세계에 깊이 침투하여 작가의 창작의도를 잘 따져 보면서 훌륭한 창작적발견과 형상은 적극 고무격려하여 주고 작가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나 이러저러한 부족점들은 설득력 있게 논리적타당성을 가지고 해명하여 주어야 한다.

평론가는 형상적환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여야 한다. 작품의 결합을 일반적으로 분석하여 주는 식의 평론은 작품창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평론가가 작가이상으로 작품의 주인된 립장에서 창조적환상력을 발휘하여 대안까지 찾아 주며 작가가 납득하고 공감할수 있게 부족점을 찾아 주는 평론이야말로 진짜문학평론이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높은 예술적감각과 풍부한 창조적 환상력을 가지고 형상적지도를 할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른 평론가의 실력만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문학평론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종자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평론에서 종자는 특별히 중요하다.

지난 시기에는 명백한 종자를 잡아 쥐지 못하고 작품을 해설하거나 도해하는 식의 도식적인 평론들이 많았다. 이런 평론들은 작품내용을 리해시키는데서 일반독자들에게 일정한 도움을 줄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문학운동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문제평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문학실태 전반을 장악한 기초우에서 당면한 문학작품창작에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참신한 종자를 탐구하여 그것을 설득력 있게 전개한 평론들이 적었기때문에 수많은 평론들이 발표되었지만 인상에 남는 글이 많지 못했다.

평론의 종자는 독창적이면서도 참신하고 기발하여야 한다. 평론가의 개성적인 얼굴과 주장이 뚜렷이 엿보이는 참신한 종자를 탐구하고 기발하게 창작하여야 문학발전에 뚜렷한 몫을 가지고 특색있게 기여할수 있다.

평론의 형식을 대담하게 혁신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요구하는 새 세기에 맞게 문학평론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우선 평론의 문제부터 새롭게 혁신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평론의 문제는 대체로 론설체가 많았다. 이것은 사리정연한 논리로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는 평론의 논리성으로부터 출발한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문학평론은 사회학적평론이나 정치론평이 아닌만큼 논리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맛이 나야 하고 설득력 있으면서도 흥미가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평론의 문제부터 대담하게 여러가지 형식으로 써야 한다.

서로 이야기하거나 론쟁하는 대담식으로 쓸수도 있고 운문형식으로 쓸수 있으며 수필식이나 서한체, 일기체 등 다양한 형식으로 쓸수 있다.

평론의 형식을 혁신하는데서 제목을 기발하게 다는것도 중요하다.

지난 시기 평론의 제목들은 대체로 《...예술적 화폭》, 《...감동 깊은 형상》 등 범박하고 천편 일률식이였다.

그러나 최근 평론가들속에서는 제목부터 새롭게 혁신해 보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 지고 있다.

평론의 제목은 종자를 단번에 찌르는 명쾌한것으로, 독자들의 흥미와 기대가 쏠리도록 기발하게 그리면서도 명료하고 사색적인 맛이 느껴 지

도록 달아야 한다.

다음으로 평론의 후비들을 전망성 있게, 그러면서도 빠른 기간내에 질적으로 키우는것은 새 세기 문학평론을 혁신하고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평론계에서도 세대교체가 일어 나 당의 요구에 맞게 평론활동을 발전시켜 나갈 준비된 평론가들이 많지 못하다. 이런 조건에서 장군님의 의도대로 새 세기 평론활동을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자면 평론의 후비들을 빨리 그러면서도 질적으로 키워 내어 평론가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특히 재능 있는 문학통신원들속에서 평론후비들을 찾아 키우는것은 빠른 기간에 평론가로서의 은을 낼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의 하나로 된다.

새 세기 평론활동에 대한 우리 당의 요구와 기대는 대단히 크며 작가들과 사회적관심도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우리 편집부는 평론가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 주신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기고 평론창작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편집부

그 품이 그리워

(총련)리금련

새들이 날아 가는 저 멀리 한끝에
내 조국 그리운 그 품이 있어
가슴속에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
어이하여 이리도 뜨거운것인가

힘들세라 아플세라 이 내 몸 살피 주는
조국의 사랑이 그리웁네
그 품은 바다너머
저 건너 먼 곳에 있어도
그 품을 못 잊어 잠못 이루네

향산천물소리 귀전에 들려 오네
모내기로 들끓던 가 없는 들판이
나를 부르는듯 이끄는듯
금시라도 달려 가 땀 흘리고 싶네

헤어져도 마음은 하나
우리 말 배워 주던 조국은 하나
어머니도 하나
그 품이 그리워 나는 부르네

어머니!
나에게 배워 준 우리 말로
그 발음으로 웨치네
잠시라도 떨어져선 나는 못 살아

아, 어머니
이 말밖에 나는 모르네
조국에 대한 그리움
이 말로밖에 달리 찾을수 없네

추억

조상호

시원한 밤바람에 연하늘색 창가림보가 가볍게 나뭇기였다. 집무실안으로는 파일들이 무르익는 냄새가 싱그럽게 풍겨 들었다.

9월의 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인 리덕현이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편지를 읽고 계시었다. 오래동안 국방과학부문에서 일해오고 있는 로천일박사가 쓴 편지였다. 이 편지를 중앙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그에게 면회를 갔던 리덕현이가 가지고 왔다.

《수령님, 아마도 우리 나라의 과학자들치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저만큼 많이 받은 사람은 드물것입니다.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보약을 가지고 리덕현동지가 찾아 왔습니다....

수령님, 저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저의 초소로 가고 싶습니다....

수령님께서 허락하시기전에는 절대로 퇴원할수 없다가에 것처럼 바쁘신 수령님께 외람된 일인 줄 알면서도 이 편지를...》

《그래 동무 보기엔 어떻든가.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고?》

수령님께서는 편지를 보다 말고 리덕현에게 고개를 돌리시었다.

《제 보기에도 몸은 좀 좋아 진것 같지만 병원에서는 한두달 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천일박사는 병원에 있는것이 이제 막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저에게 안타까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김정숙동지께 지은 죄를 씻기 위해 한생토록 애를 쓰고 있다는걸 다 알지 않는가고 하면서...》

리덕현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수그렸다.

수령님께서는 리덕현의 그 어조와 표정에서 《사실 죄는 그 동무가 아니라 제가 지은것이였습니다.》라는 뒤말을 읽으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소파에서 일어 나시었다. 리덕현이도 따라 일어 섰다.

《음...정숙동무에게 지은 죄라...》

수령님께서는 편지를 쥐신채 뒤집을 지고 몇걸음 거니시다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멀리 불빛이 흐르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이 바라보였다.

수령님의 눈앞에는 가장 친근한 전우이며 동지인 녀전사의 밝게 웃으시는 모습이 선히 안겨 왔다. 것처럼 불같이 사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저 리덕

현이 데려 온 로천일이가 무릎을 꿇고

《장군님, 저는 너사께 죽을 죄를 지은 놈입니다.》 하며 눈물을 콧물 흘리던 모습이 언뜻 눈앞을 스치였다.

수령님께서는 가슴이 찢릿해 지시었다.

《사람두 참, 이제 4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때 일을 잊지 않고 있구만.》

그때 리덕현이도 자책에 몸부림치며 이렇게 목메어 말했었다.

《사실 모든게 저때문이였습니다. 제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었다.

×

참으로 고집불통이였다.

이름은 로천일, 나이는 29살, 병기기술자.

남조선에서 살다가 1년전에 공화국복반부로 들어 온 그는 몇달전부터 자진하여 병기공장에 와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도 사람은 상하지 않았지만 일부 설비와 건물 한 귀퉁이가 파괴되였다. 일부 편협한 사람들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로천일을 의심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로천일은 온다간다 말없이 훌쩍 공장을 떠나버렸다.

《나도 감정이 있고 피가 뛰고 있는 인간이요.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뭐랬는지 아오? 남조선에서 리승만이 보낸 반동이 아닌지 모르겠다는거요. 비밀도 넘겨 주었을지 모르니 이제부터라도 중요한 일엔 손을 못대게 해야겠다는거요. 그런데도 다시 가자구? 여보, 내가 그렇게 무골충인줄 아오? 말못하는 미물도 한번 빠졌던 구덩이엔 다시 안 빠진다고 했소. 어서 돌아 가시오. 정말 난 못 가겠소.》

그것은 리덕현이 부르튼 발을 절뚝거리며 사흘 동안이나 찾아 다니다 만났을 때 뺨 돌아 앉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며 로천일이 내뱉은 말이였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았다.

리덕현의 짙 움켜 쥔 후들후들 떨리는 주먹에서 뼈마디 꺾이는 뿌드득 소리가 났다.

(세상에 이런 모욕도 있는가.)

당장 문을 열고 달려 들어 가 목덜미를 틀어쥐고 《이 도덕도 의리도 모르는 놈아!》라고 격분을 터뜨리며 따귀를 후려 갈기고 싶었지만 피나게 입술을 깨물며 가가스로 참았다.

바로 며칠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진포조선소를 찾으시여 그곳 로동자,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만든 해군함선 《경비함 51》호를 기쁨에 넘쳐 돌아 보시며 하시던 말씀이 가슴을 두드렸던 것이다.

《정말 수고했어요. 얼마나 장해요. 우리 이런 함선들을 더 많이 만들어 조국의 바다에 한놈의 원쑤도 얼씬 못하게 하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몸이 몹시 불편해 하시면서도 돌아 오시는 길에 룡원에 들리자고 하시였었다.

얼마전에 병기공장에서 온다간다없이 사라진 로천일이 룡원에 있는 외삼촌네 집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으시였다는 것이었다. 로천일은 리덕현이도 찾고 있던 사람이었다. 수령님으로부터 병기생산을 맡아 볼데 대한 과업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김정숙동지께서는 로천일문제를 언제 벌써 알아 보시고... 리덕현은 미안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했다. 자기가 일을 잘못하여 김정숙동지께서 걱정을 하시게 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찡뚫었다.

그러나 로천일은 외삼촌네 집에 없었다. 양덕어딘가 있는 4촌형네 집으로 가서 농사나 짓겠다며 아주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무척 아쉬워 하시는 김정숙동지께 리덕현은 걱정하시지 말라고 자기가 그를 꼭 찾아 오겠다고 말씀 드렸다.

그래 리덕현이 별의별 고생을 하며 양덕의 깊은 산골까지 다 훑어 겨우 찾아 냈는데 이렇게 문전거절을 당한 것이다.

애써 자기를 자제하며 성을 가라앉히느라 리인민위원회에서 하루 밤 묵고 아침에 다시 찾아가니 그는 어제 밤 집을 훌쩍 나가서는 들어 오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다. 며칠을 더 묵다가 할수 없이 그냥 돌아 서고 말았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 건달수가 없었다.

(이거야 너무하지 않는가. 그래 왜놈세상때도 우리 사람들을 해치던 그놈들의 무기를 만들어 주던 자가 무슨 말을 좀 들었다고 해서... 우리 인민의 세상을 지키는 좋은 못 만들겠단 말이지.

이게 정말 반동이 아니야. 에익 패씹한 놈...)

분을 삭이지 못한채 덕현은 평양으로 돌아 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사무실에 나가니 사람들이 김정숙동지께서 두번씩이나 전화를 걸어 오셨다고 알려 주었다. 몹시 걱정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이었다.

터벅터벅 그이께로 향하는 리덕현의 두발엔 연정이라도 매달린 듯 했다.

9월에 들어 섰지만 한낮의 해볕은 삼복철보다 더 뜨거운 듯 했다. 가로수들도 데쳐 진듯 가지들을 축 늘어 뜨리고 길바닥에 어룡어룡 그늘무늬를 지어 놓고 있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손수건으로 얼굴과 목덜미의 땀을 훔치며 마당가에 들어 서는데 마침 김정숙동지께서 문앞에 김영준 부관과 마주 서계시었다.

《됐어요. 다른 말 말고 어서 좀 갔다와요.》

순간 리덕현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그마한 꾸레미를 영준에게 들려 주며 무엇인가 부탁하시는 듯 싶은데 왜서인지 김영준은 뿌루뚱해서 받을 념을 앓고 먼 산만 쳐다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상했다.

가뜩이나 김정숙동지께 좋지 못한 소식을 안고 오는 덕현인지라 속에서 주먹 같은 것이 불끈했다.

김정숙동지의 거듭되는 재촉에 할수 없는지 《야 참...》 하고 안타까운 소리를 하며 꾸레미를 쥐고 돌아 서던 영준이가 마치 구원자나 만난 듯 《아, 덕현동지!》 하고 소리쳤다. 《이거 좀 도와 주십시오. 난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나 영준이 말끝을 채 맺기도 전에 김정숙동지께서 마중 나오시며 반색을 하시었다.

《덕현동무가 왔군요. 수고했어요. 원... 온통 땀에 뻘근요.》

그러시고는 영준의 등을 가볍게 떠밀며 어서 갔다오라고 재촉하시었다.

영준이 몇 걸음 떠밀리우며 안타까운 듯 덕현을 돌아 보다가 할수 없는지 터벌터벌 정문쪽으로 걸어 나갔다.

《아니, 저 동무가 왜 저럽니까?》

덕현이 의아해서 고개를 기웃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으시며 룡어린 말씀을 하시었다.

《글쎄말이에요. 내가 몸이 좀 불편해서 심부름을 시켰더니 저러지 않아요.》

《예?》

덕현의 눈이 더욱 커졌다.

《아이참, 그런건 몰라도 돼요. 이번에 정말 수고했겠어요. 어서 저 그늘밑에 좀 가앉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버드나무아래에로 덕현을 이끌었다. 머리우에서는 매미가 귀 따갑게 맴맴매매하고 울고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덕현의 옆에 나란히 앉으시며 손끝으로 귀밑머리를 쓸어 올리시었다.

《꼭 9일만에 돌아 왔군요. 그간 집에서는 별일 없었어요?》

《예, 집사람은 건강합니다. 요즈음 군기금때문에 정신없이 뛰어 다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위낙 일이 서툴다나니 잘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열성이 중요하지요 뭐. 얼마전에 조국보위후원회에 가보니 각 곳에서 들어 온 군기금량이 대단해요. 흥남비료공장에선 증산경쟁을 벌려 2개년인민경제계획수자보다 더 생산하여 번 수백만 원의 돈을 조국보위기금으로 냈고 철산광산 광부들은 생산총화때 받은 상금과 각종 애국로동으로

번 돈을 다 회사했어요. 쌀을 100여가마나 내 농민도 있고… 그걸 보면서 나는 다시는 식민지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우리 인민의 기세를 다시금 느꼈어요. 그래, 딸애는 앓지 않고 잘 자라요?》

《예…》

《보고 싶군요. 이젠 말을 제법 번지겠는데…》

덕현은 시무룩이 웃었다.

《뭐 그저 쉬운 말이나 겨우 합니다. 아빠, 엄마 하구. 누굴 닮아 그렇게 굼뜬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리를 내어 즐겁게 웃으시었다.

《넌진 누굴 닮았겠어요. 아버지를 닮았지.》

덕현은 어줍게 웃으며 뒤더수기를 굼었다. 《난 그랬던것 같지 않은데…》

《동무두 참… 그런데 갔던 일은 잘 안된 모양이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덕현의 표정과 맥 빠진것 같은 어조에서 모든것을 다 짐작하신듯 했다.

리덕현은 얼굴이 뜨거워 오름을 느끼며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잘 안되었습시다. 로천일을 만나기는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알아 들을만큼 말해 주었는데도 탕탕 뒹깁니다. 자기를 죽이면 죽었지 다시는 그런 일을 못 시킨다고… 별의별 악담을 다 퍼부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고를 친것두 그래, 달아 난것두 그래…》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무그늘이 어룡거리는 발밑을 물끄러미 내려다 보시다가 알릴듯말듯 고개를 가로 저으시었다.

《덕현동무, 그런 말은 말아요. 사실 그 동무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보려고 나섰었는데 사고를 줬다고 반동 같다느니 간첩 같다느니 했으니…

지식인들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명예, 자기 존엄을 귀중히 여기지요. 그 동무가 그럴 결심을 하기까지야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어쨌든 제 보기엔 생각이 좀 비뚤어 진 사람 같습니다. 나도 지금껏 살아 오면서 술한 사람을 대상해 보았지만…》

리덕현은 고개를 저었다. 면전에서 문을 쾅 닫던 그 광경이 다시금 아프게 망막을 찢었던것이다. 영영 상대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사람이 참는것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그 사람 하나 없다고 병기생산이 당장 찌그러지는것도 아니다. 설사 그 사람을 데려 온다 한들 큰 도움을 줄것 같지도 않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 서시었다. 몇걸음 거니시며 생각에 잠겼다가 지나가는듯 한 어조로 물으시었다.

《그 동무가 양덕 어느 마을에 살고 있다고요?》

《예, 그 동문 양덕에서도 한 80리 더 들어 가서…》

생각없이 대답하던 리덕현은 무엇인가 피륙 뇌리를 스치는것을 느끼며 얼른 말끝을 가무리었다. 어쩐지 그 물으심이 심상치 않은 예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리덕현은 자기도 모르게 바싹 긴장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벌써 자신께서 로천일을 찾아가시려고 결심하신것이 분명했다. 김정숙동지의 성미를 잘 알고 있는 덕현이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요즈음 병색이 점점 더 짙어 가는 그이이다. 오죽하면 여태껏 한번도 그래본적 없으신 그이께서 영준에게 심부름까지 보내시였겠는가.

그렇다. 로천일이 있는 곳만 아시면 꼭 가실것이다. 지금껏 군건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몸이 불편하시여도 그 어디건 다 찾아 가시였었다. 평천리 병기공장, 진포조선소, 피복공장…

덕현은 가슴을 긁어 내리는듯 한 자책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었다. 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 동무를 두고 그냥 돌아 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 꼭 데려 오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덕현을 돌아 보시었다. 그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흘렀다.

《고마와요. 덕현동무가 방금 돌아 와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어찌했어요. 그럼 우리 함께 가보지요.》

《예? 함께요?》

예감이 틀림 없었다. 한결음만 양보했다간 그이를 양덕의 그 막바지까지 모시고 가게 될것이다.

덕현은 펄쩍 뛰여 일어 서며 두손을 내저었다.

《그건 안됩니다. 사실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더 정확히는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함께 가시겠다는건 결국 저를 믿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그러시면 전 정말 억울하구… 섭섭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뿌루통해 진 덕현을 어이 없으신듯 지켜 보다가 웃고 마시었다.

《덕현동무의 그 고집엔 어찌지 못하겠군요. 됐어요. 힘들겠는데 어서 앉아요.》

덕현은 속으로 《됐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걸 으로는 우정 섭섭해 하는 기색을 드러내보이며 의자에 불안스럽게 앉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덕현을 보시다가 앞에 드리운 버드나무잎사귀 한잎을 톡 따시었다. 잎냄새를 한번 맡아 보시고는 잎꼭지를 쥐고 뱅그르르 돌리시며 사색에 잠겨 몇걸음 거니시다가 신중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었다.

《덕현동무도 알겠지만 지금 정세가 얼마나 긴장해 지고 있어요. 미제는 저들의 극동침략정책

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어떤 나라를 무장시키는 것보다> 남조선피뢰들을 무장시키는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술한 군사원조를 주었고 여기에 힘을 얻은 리승만피뢰들은 38선에서 하루에도 10여차씩이나 무장도발을 해오고 있어요... 전쟁은 지금 현실적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무잎을 들여다 보다가 다시금 근엄한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는 현대전에 림할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해요. 보충만으로는 안돼요. 병기공장들이 생산은 시작하기는 했지만 보다 현대적인 중무기들과 기술장비들이 있어야 해요.

장군님께서서는 모자라는 우리 군대의 무장장비를 인민들의 애국적열성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하시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민들모두가 떨쳐 나선것이예요. 우리가 산에서 일제와 싸울 때 인민들이 우리 유격대를 물심량면으로 얼마나 잘 도와 주었어요. 자기 운명, 자기 주권, 자기 조국을 지키려는 인민들의 그 힘과 열정을 동원하면 못해 낼 일이 없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결에 나무잎을 줌안에 꼭 움켜 쥐시었다. 그이의 반듯한 이마에 그 어떤 아픔을 참으시는듯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하지만... 당장은 모자라는 무장장비를 그렇게 해결한다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킬수 있게 군수공업을 빠른 시일안에 발전시켜야 해요.

총대만이 조국을 해방하고 총대만이 조국과 인민을 보위할수 있다는것이 우리가 피로써 찾은 진리가 아닌가요. 물론 로천일동무 한사람이 없다고 당장 병기생산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야 한사람이라도 더 나서게 해야지요. 더구나 그 동무는 무엇인가 새로운걸 만들어 보겠다고 하던 동무인데...》

안타까이 하시는 그이의 말씀에 덕현은 그만 목이 꺾 메이는것을 느끼며 주먹을 부르쥐고 자리에서 일어 섰다.

《정숙동지, 내 당장 가서 그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정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을 돌려 업고라도 오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덕현의 그 말에 소리내어 웃으시었다.

《뭐 그렇게 업고 오기까지야 하겠어요. 마음이 우려나서 제발로 찾아 오게 해야지. 그 동무도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 꼭 따라 나설거예요.

이 길은 병기생산뿐이 아니라 그 동무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주기 위한 보람 있는 길이예요. 난 그 동무를 믿어요.

우리 그 동무도 자기 기술로 나라를 위해 한몫

한다는 공지를 안고 살게 잘 도와 주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문앞까지 나와 손들어 배려주시었다. 덕현이 몇걸음 걸다가 그 어떤 이상한 예감에 끌려 돌아 보니 그이께서는 나무에 어깨를 기대고 밝게 웃으며 배려주고 계시었다.

순간 덕현은 가슴이 뭉클하고 코허리가 매워났다. 그이께서는 웃고 계시었지만 덕현에게는 별로 병색이 짙어 보였기때문이었다.

아, 이것이 덕현이 그이를 마지막으로 뵈은 모습이 될줄이야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그런 일이 있을줄은 꿈에서조차 생각할수 없었던 덕현은 이때는 그저 자기때문에 김정숙동지께서 또 걱정하며 기다리시겠구나 하는 그런 자책뿐이었다. 나는 언제면 김정숙동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는 그런 일군이 될수 있을가. 덕현은 눈물이 콧 솟아 올라 서둘러 고개를 돌리었다.

(정숙동지, 걱정하지 말고 병치료를 잘하십시오. 내 꼭 좋은 소식을 안고 오겠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끝목길을 돌아 서던 리덕현은 다시 뒤를 돌아 보았다. 이제는 나무들에 가리워 그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 졌다. 왜서인지 알수가 없었다.

보통문쪽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데 저앞에서 김영준이 마주 오는것이 눈에 띄었다. 어깨를 축 늘어 뜨리고 발끝만 내려다 보며 사람들속에 끼여 스적스적 마주 걸어 왔다.

아침이었다.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고 싶었다. 세상 천하 없는 심부름이라 해도 그렇지 어찌면 그럴수 있는가. 오죽하면 김정숙동지께서 《그런 일》을 부탁하시겠는가. 병색 짙은 그이의 얼굴, 그 모습을 뵈은 애달픔과 까닭없이 차오르던 허전함이 영준을 보자 분노로 바뀌었다.

《영준동무, 나 좀 보지요.》

덕현은 다짜고짜로 그의 손을 잡아 끌고 길옆으로 나섰다. 뽀뽀나무그늘밑에 들어 섰다.

《동문 도대체 그제 뭐요. 정숙동지가 몸이 불편해서 심부름을 시켰다는데 동무 지금 제 정신이요?》

《예?》

영준은 너무도 급작스러운 추궁이어서인지 멍하니 마주 쳐다보았다. 그러던 그의 큰 눈썹이 갑자기 파들파들 떨리더니 눈물이 핑 고여 올랐다. 원망에 찬 그 눈빛... 갑자기 영준이 꼭 하는 소리를 내며 급기야 고개를 외로 꺾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그러나 덕현은 속이 울컥한김에 인정사정 볼새없이 노성을 터뜨렸다.

《그래 말해 보오, 영. 내 산에서 같이 싸울 때랑은 동물 그렇게 보지 않았었는데... 응, 늘 가까이 모시고 산다고 해서, 너무도 허물없이 대해

주신다고 해서 응석을 부리는가. 엉? 그래 이 사실을 알면 전우들이 동무를 가만 둘것 같으니까!》

그러자 김영준이 고개를 꺾 돌렸다. 왜서인지 그의 뺨볼에 눈물이 질린해 졌다.

《덕현동지는 내가 지금 어디에 갔다 오는지 알거나 합니까?》

《그걸 내 왜 몰라. 정숙동지 심부름을 갔다 오지.》

《알기는 뭘 안단 말입니까. 예?》

김영준이 속이 타는지 목깃을 와락와락 헤쳤다.

《난 지금 장군님댁에서 내는 군기금을 회사하러구 조국보위후원회에 갔다 오는 길이란 말입니다. 조국보위후원회 에...》

덕현은 대번에 뺨뺨해 저 눈을 크게 떴다.

《뭘? 군기금? 조국보위후원회?》

쇠메 같은것이 뒤통수를 팽하고 후려 친것만 같았다.

《그래요. 벌써 두번째예요. 덕현동지는 그 군기금이 어떻게 마련된것인지 알거나 합니까?》

덕현은 멍하니 영준을 쳐다 보았다.

《아니 장군님댁에 무슨 군기금을 낼게 있구...》

영준은 원망이 가득찬 눈길로 덕현을 마주 보다가 아래입술을 짹 깨물며 고개를 외로 돌렸다. 한쪽볼을 꾸들꾸들하며 무엇인가 애써 참는듯 하다가 폭 가라앉은 소리로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아무리 김정숙동지께서 절대 어디에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도 덕현동지에게만은 해야겠어요. 더는 못 참겠단 말입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글썄... 식찬 가지수를 줄이구... 잡곡을 더 섞는 방법으로 한푼한푼 모았습니다. 어리신 아드님께서 자신은 잡곡을 많이 둔 조밥이 더 맛 있다면서 풋절이김치 하나를 놓고 글썄... 오죽했으면 엇그제 오셨던 만경대할머님께서 그 광경을 차마 보실수 없어서 글썄...》

김영준은 더 말을 잊지 못하고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 쥐었다. 한참만에야 껍껍 울음을 삼키며 하는 말이 그때 진지상에 마주 앉으시였던 리보익할머님께서도 너무 억이 막혀 자신에게 드린 흰쌀밥을 어린 중손녀에게 덜어 주시며 《산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하던 장군네 집이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조밥이구나.》 하고는 목 메여 더 말씀을 못하시었다는것이다.

《난 정말 피롭습니다. 덕현동지가 그래 김정숙동지를 모르십니까. 지금껏 그렇게도 검소한 생활만을 해오시는분들인데 이제 식찬을 더 줄이구

잡곡을 더 많이 섞는다고 군기금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큰 일 난것처럼 막으니까 정숙동지께서 웃으시면서 장군님의 호소를 받들구 온

나라가 일떠섰는데 제일 앞장서야 할 자기가 어떻게 가만 있겠는가구... 많지는 않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인민군대를 위한 일에 자신의 성의를 조금이라도 바치고 싶어 그런다고 하시면서... 어디 가 절대 말은 못하게 하시지...이런 댜난 정말 어찌면 좋습니까? 예, 덕현동지!》

덕현의 손은 뽀뿌라나무의 거친 줄기껍질을 긁어 뜯고 있었다.

《그런줄은... 그런줄은 미쳐... 몰랐구만.》

입안에 불덩이 같은것이 왈작 차올라 더 말을 할수가 없었다.

아, 김정숙동지께서 우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두고 얼마나 마음 써오시었으면 그러시라...

덕현은 뜯어 켜 뽀뿌라나무껍질을 꺾 내던졌다.

(가자. 이제라도 당장... 가서 내 그 녀석의 목덜미를 쥐고 끌어다 놓을테다.)

덕현은 말없이 김영준의 손을 짹 쥐었다 놓고는 씨익씨익 평양역으로 향했다.

수령님께서 로천일을 데리고 온 리덕현을 만나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신것은 사랑하는 녀전사를 잃으신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자체분들과 함께 묘소에 갔다 오시던 길에서였다.

리덕현은 로천일과 함께 김정숙동지의 묘소를 찾아 모란봉으로 올라 가는 길이였다.

리덕현이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듯 하는 말 마디마디는 수령님의 상실의 아픔을 더 크게 쌓아주는듯 했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런 일이...》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저려 드는듯 한 감을 어찌지 못하시며 눈길을 돌리시였다. 녀전사의 묘소는 보이지 않고 저녁노을에 단풍들만 유난히도 빨갭게 타번지고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 지시였다.

문득 온 나라 인민들에게 군기금헌납을 호소하신 날 밤에 있던 일이 떠오르시였다.

그때 식사를 끝내신 수령님께서 책상에 마주 앉아 2개년 인민경제계획 수행정형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김정숙동지께서 언제나처럼 조용히 들어 서시였다.

《장군님. 제가 낮에 작성해 본 조국보위기금회 사명세입니다.》

《그렇소?》

수령님께서서는 반색을 하시면서도 저으기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며 명세표를 받아 드시였다.

한장의 종이에 포박포박 정성 들여 박아 쓴 명세표에는 지방에 파견되었던 한 전우가 김정숙동지의 건강을 위해 얼마전에 보내온 보약도 들어 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병색이 도는 김정숙동지의 얼굴에 시선을 주시며 나직이 물으시였다.

《다른건 다 좋은데... 이 보약만은 정숙동무가

쓰는것이 좋지 않겠소? 건강도 좋지 않은데…》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씀 드렸다.

《아직은 그 보약이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찢어지셨다. 김정숙동지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였기때문이었다. 그처럼 건강이 좋지 못한데도… 언제나 수령님 자신의 뜻을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 선참으로 받들곤 하는 녀전사이시었다. 그 마음이 눈물겹게 안겨 오시었다.

《동무는 참…》

수령님께서서는 더 말씀을 못하시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수령님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될줄이야…

그 보약이라도 썼더라면…

수령님께서서는 모란봉의 그 피빛으로 타는 단풍잎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불시에 눈이 쓰러와 얼른 고개를 돌리시었다. 저쪽에 얼굴이 컴컴하게 질린 채 고개를 못들고 서 있는 로천일을 측은한 눈길로 보시다가 덕현에게 물으시었다.

《그래, 그래서 동무가 로천일동무에게 그 이야기까지 다했소?》

나무람하시는데 한 몫시도 갈린 음성이었다.

리덕현은 터져 오르는 오열을 참느라 아래도리에 휘감겨 드는 짜리나무줄기를 자꾸만 잡아 훔다가 떠듬떠듬 말씀 드렸다.

《제가 다시 갔을 때 저 동무는 아직 돌아 오지 않았었습니다. 4촌형은 자기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것이였습니다. 알면서도 자기 간 곳을 대주지 말라고 해서 그러는게 뻔했습니다.》

…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오히려 제가 더 격분해하면서 그 사람이 남조선으로 도망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리덕현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럴수도 있었다. 그처럼 악의에 차 입도끼질을 탕탕 해대던 로천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쯤 서울의 어느 호텔에서 삼광술병을 기울이고 있을지도 모를 그를 양덕산골에서 기다린다는것이 어처구니 없었다. 이런 그를 김정숙동지께서 애 타게 기다리고 계시리라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리덕현은 그달음으로 양덕읍에 내려 와 전화를 걸었다.

《김정숙동지, 여기 사람들 말이 그 사람이 남조선으로 도망친것 같다는겁니다. 리인민위원장도 그렇게 말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척 놀라신듯 했다.

《남으로 도망치다니요. 그 4촌형과 형수도 그렇게 말하긴가요?》

《그 사람들은 그저 모른다고만 하는데… 알면서도 말 못하는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남으로 가지 않았다면야 왜 말을 못하겠는가고 합

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안하시었다.

침묵… 침묵… 수화기에서 흘러 나오는 그이의 고르롭지 못한 숨소리가 덕현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고 들었다.

(혹시 병이 더 심해 진건 아닐가?)

한참후에야 그이의 나직한 음성이 들려 왔다.

《덕현동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덕현은 거친 숨을 쉰 내쉬었다.

《어찌겠습니까. 일이 그렇게 된걸… 사실 그까짓 그 한사람 없다고 병기생산이 안되는것도 아닌데… 갈테면 가라지요. 그런 자들은 열백이 있다 애도 큰 도움을…》

《덕현동무!》

김정숙동지께서 서둘러 덕현의 말허리를 자르시었다. 뒤이어 몹시 서운해 하시면서도 안타까와하시는 음성이 덕현의 가슴을 두드렸다.

《우리 아직은 속단하지 말자요. 그 동무는 남조선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우리를 찾아 온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가슴에 얼마나 아픈 못을 박았으면… 아니 절대로 그럴수 없어요. 그 동무야 지식인인데 일부 사람들로부터 배척은 받았다고 해도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된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인식은 바로 가졌을 거예요. 지식인들이야 사회의 본질을 투시하고 분석, 평가하는 예리한 눈이 있을게 아니예요. 덕현동무, 수고스러운대로 다시 찾아 가 형님과 형수를 잘 설복해서 로천일동무를 꼭 만나보세요. 난 그 동무가 남조선으로 갔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정 그 동무가 못 오겠다면… 어찌겠어요. 그곳 일군들에게 잘 말해서 사고를 치고 쫓겨 온 사람이라고 배척하거나 따돌리지 말고 마음 편히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 주고 오세요. 그리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었다. 덕현은 안타까움이 실린 그 어조에서 한 인간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지켜 주시려는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눈물겹게 절감하였다.

인민군 무장장비를 두고 그토록 아글타글 하시면서도 총을 못 만들겠다고 달아 난 인간마저도 탓하지 않고 뜨겁게 안아 주시는 그 품… 인간사랑의 화신!

덕현은 그 뜻을 미처 따르지 못해서 그이께서 이처럼 걱정하시게 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럽기 그지 없었다. 덕현이 죄송스러움을 말씀 드리려 하는데 김정숙동지께서 다시 찾으시었다.

《덕현동무, 외진 곳에 가서 숙식조건도 불리하겠는데… 이렇게 앉아서 전화만 하하니 정말 안됐군요. 이젠 산골 밤날씨가 차지기 시작했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콧 솟았다. 덕현은 그이께서 앞

에 제시거나 한듯 수화기를 들지 않은 손을 황황히 앞으로 내저었다.

《아 아닙니다. 전 일 없습니다. 수령님을 모시고 정숙동지결에서 지금껏 일해 왔다는 제가 제구실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번엔 정말 좋은 소식을 안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리덕현이 김정숙동지와 마지막으로 나는 대화였다…

《전 그 길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냥은 못간다며 틀고 앉았습니다. 그러다 글세… 이런 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게 될줄이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그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입니까. 전 신문에 난 부고를 보고 또 보다가 너무도 원통하구 너무도 분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속에 품었던 말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 군기금이야기랑… 전화내용이랑…

나라를 찾아 주시느라 그렇게도 고생을 많이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나라를 지켜 주시겠다고 그리두 아글타글 애 쓰시며 편전마저 쪼개쓰시는데… 그러시면서도 이 집 동생을 그렇게 생각해주시었는데… 도대체 제 정신들이 있는가구… 지각이 있는 사람들인가구… 사람들은 모두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로천일의 4촌형과 형수는 자기네가 죽을

죄를 졌노라면서… 당장 동생을 찾아 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 글썄 저 사람이 김정숙동지께서 살아 계실 때 왔더라면… 얼마나… 어떡.》

리덕현은 훌쩍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잔디를 마구 잡아 뜯으며 몸부림을 쳤다.

《아니…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울퉁거리지 않고 저 동무를 잘 설득했다라면… 제가 전화까지 걸었기때문에 더더욱 기다리셨겠는데…》

오열을 터뜨리며 사정없이 들먹이는 그의 어깨를 아픈 눈길로 내려다 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자신도 모르시게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 가시었다.

(그래… 기다렸지… 기다렸어…)

수령님께서서는 혼자 말썽으로 뇌이시며 몇걸음 거니시다가 다시 고개를 돌리시었다. 단풍은 여전히 피빛으로 타고 있었다.

수령님의 눈앞에는 문득 김정숙동지께서 저 리덕현이와 로천일때문에 걱정하시던 일이 떠오르시었다.

그것은 김정숙동지께서 서거하시기 며칠전날 밤에 있는 일이었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 드린 세번째로 내는 조국보위기금명세를 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저으기 놀란 표정을 지으시었다. 명세표에 식사량을 조절하여 마련한것치고는 상상밖의 액수가 적혀 있었던것이다.

《이건 무슨 돈이요?》

《저… 그건… 장군님의 전달 생활비인데…》

《생활비?》

김정숙동지께서는 죄스러운듯 고개를 수그리며 얼굴을 붉히시었다.

순간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뭉클하시었다.

그 생활비는 얼마전에 자신께서 《산에서 고생만 시킨 정숙동무에게 내 아직 변변한 옷 한벌 해주지 못해 정말 안됐소. 이번에 주는 이 돈만은 절대 다른데 쓰지 말고 모아 두었다가 꼭 좋은 옷을 해입도록 하오.》라고 하시며 주신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이윽도록 녀전사의 모습을 여겨 보시다가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지금껏 생활비를 받으시면 언제 한번 자신을 위해서는 한푼도 써본적 없는 녀전사이시였다. 한푼한푼 모아 두시였다가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놀러 오면 사랑, 파자를 사주기도 하시고 공장파 농촌마을들에 나가시였다가 간혹 살림이 넉넉치 못한 사람들을 보시면 통채로 안겨 주기도 하시던 녀전사이시였다. 그래 이번만은 꼭 간수해 두었다가 옷을 해입으라고 당부하시였었는데 또 이렇게 군기금으로 바치시려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한참 머물러 가는 별들을 점도록 바라보시다가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동무는 언제 가야 좋은 옷 한벌 입어 보겠소.》

《장군님, 저를 두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나라가 그 어떤 원썬도 넘겨다 볼수 없는 강대한 나라로 되고 우리 인민모두가 근심걱정없이 행복하게 살게 될 때 저도 좋은 옷을 해입겠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시며 밝게 웃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뜨거워 지시었다.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두고 그토록 마음 쓰시는 김정숙동지께서 불편한 몸인데도 병기공장에 나가 일군들에게 로천일의 문제를 바로 처리하도록 일깨워 주고 그가 오면 들 방의 장관과 도배까지 새로 해주시였다고 하던 부관 김영준의 말이 생각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김정숙동지께 눈길을 돌리시었다.

《덕현동무에게선 아직 소식이 없소?》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치 자신의 잘못이기라도 한듯 죄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시었다.

《오늘 전화가 왔었습니다. 덕현동무는 로천일동무가 남으로 도망친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것 같지는 않으니 꼭 기다려 만나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정 무기 만드는 일을 못하했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 편히 할수 있도록 마음도

풀어 주고 일군들에게도 말해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늘을 안고 살지 않도록 해주라고...》

《하για 우리가 총을 만드는것도 바로 그 인간적인 모든것을 지키기 위한것이 아니겠소.》

《그런데 덕현동무가 근심됩니다. 그 동문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기어이 끝장을 보고야 오겠다고 했는데... 그 성미에 식사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싸울 때 얻은 위탈이 도지지 말아야겠는데... 덕현동무의 안해가 해산할 날도 멀지 않았습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러시며 멀리 양덕쪽 밤하늘을 바라보시였다. 그 눈길에 비낀 애 타는 기다림, 씨원히 찾아 가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이 불과 며칠전 일이었다. 그런데 것처럼 기다리던 리덕현이 로천일을 데리고 왔는데 기다리던 사람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렇게도 불갈던 사람이...

바람이 터졌다. 점점 더 세차진다.

수령님께서 올음을 참느라 모지름을 쓰는 리덕현을 달래일 생각을 못하시고 또다시 몇걸음 거니시였다. 바람에 잡판목들이 그이의 옷자락에 휘감겨 들었다. 마치도 그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는듯 싶다.

자꾸만 목이 메어 오르시였다.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만 살아 왔지. 기다리고 찾아 가고... 위해 주고... 자기의 모든걸 쟁그리다 바치면서...

머리우에서 뻘-뻘 하고 산새의 울음소리가 들려 왔다.

수령님께서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다. 눈길을 드시니 새 한마리가 슬피 울며 불 타는 그 단풍 숲쪽으로 날아 가고 있었다. 저 새는 왜 저리도 슬피 우는가. 문득 김정숙동지께서 그렇게도 조용히 세상을 떠나신 날 마지막길을 가시는 그이께서 입으실 옷을 찾느라 장농을 열고 안타까이 뒤적이던 방안에서 녀투사들이 터뜨리던 곡성이 수령님의 가슴을 다시금 아프게 쳤다.

《아- 아- 이를 어찌하면 좋아요. 예? 글썄 정숙동지께 갈아 입혀 드릴 옷이 한벌도 변변한게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평생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였구나. 단 한번만이라도 잘 입고, 단 한번만이라도 잘 먹고, 단 하루라도 편안히 살았다면 이다지도 가슴이 아프겠는가. 세상을 떠나기전에는 군기금을 위해, 인민군대무장장비를 위해 자기의 모든걸 쟁그리다 바치면서도 무기를 못 만들겠다고 달아 난 사람의 운명을 걱정해 주고... 그로록 속을 태우면서도 그가 못 오겠다고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마음 놓고 마음껏 하도록 하라고 대책을 세워 주고... 그렇게 한생을 살아 왔었지. 오직 동지들을 위해, 인민을 위해, 혁명을 위

해...)

눈앞에 안개가 낀것처럼 다시 뿌연게 흐려 지시였다.

수령님께서 입안에 가득 차오르는 알싸한것을 애 써 삼키고 나서 리덕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만 진정하라고 달래이시였다. 그러시고는 두벅두벅 다가가 로천일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였다.

《난 동무를 믿소. 동무도 우릴 믿고 찾아 왔으면 그 누가 뭐란대도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하오. 우리 일을 더잘 합시다.》

×

그것이 벌써 44년전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것이 어제 있는 일처럼 눈에 삼삼하시다.

수령님께서 회억에서 깨어 나 천천히 창가에 서 돌아 서시였다.

리덕현은 여전히 정중히 서서 수령님을 우러르고 있다. 그의 가슴속에는 바로 44년전 양덕에서 전화를 할 때 깨우쳐 주시던 김정숙동지의 마지막말씀이 조각처럼 새겨져 있다.

《덕현동무, 로천일동무는 우리를 믿고 사선을 넘어 온 사람이 아니예요. 장군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속에는 단 한명도 마음속에 그늘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선 안돼요. 그렇게 해주는것이 바로 장군님전사들의 본분이고 의리가 아니겠어요. 그 동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그 동무가 별의별 말을 다 한다고 해도 절대로 탓하지 말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도와 주고 오세요. 그러나 난 그 동무를 믿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바란대로 꼭 훌륭한 병기기술자가 될거예요.》

간결하신 그 음성... 우리 일군들이 어떤 심정을 지니고 일해야 하는가를 한생토록 깨우쳐 온 그 말씀...

수령님께서 집무실안을 거닐다가 약간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로천일박사가 자꾸 정숙동무앞에 죄를 지었다고 한다는데 사실 그 동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놓았소. 그때는 그렇게 모은 조국보위자금으로 비행기며 탱크, 함선들을 마련했었지만 지금은 그 무엇이든 마음 먹은대로 척척 만들어 내고 있지 않소. 거기엔 로천일박사의 공로도 크게 들어 있지. 전번 인민군창건 60돐 행사때 난 우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보며 마음이 든든하였소.

정숙동무가 생전에 바란게 바로 그것이지. 그 거면 로천일동무가 진 <빛>을 다 갚고도 남음이 있는거요. 동무가 래일 로천일박사에게 가서 다른 생각 말고 병치료를 잘 받으라고 이르시오. 내가 불원간에 한번 찾아 가겠다고 전하시요.》

《알겠습니다.》

리덕현은 젊은 사람처럼 힘 있게 경례를 하고는 활기에 넘쳐 집무실에서 나갔다.

그가 돌아 가자 수령님께서 다시 한번 로천일

박사의 편지를 훑어 보고 나서 창가로 다가가시었다.

멀리 불빛이 흐르는 혁명렬사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정숙동무, 기뻐 하시오. 동무가 것처럼 념원하던대로 이제는 우리 나라가 그 어떤 대적도 단숨에 물리칠수 있는 무적의 강국으로 되었소.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우리를 어찌 보려고 하자 우리 **김정일**장군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리익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려는 자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섬멸적타격을 가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소. 얼마나 통쾌하오. 놈들의 목이 쑥 들어 갔지... 장군의 그 배짱과 담력속엔 로천일박사의 뭇도 들어 있소. 로천일박사가 정숙동무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정숙동무의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의 세계,

조국과 인민에 대한 그 헌신에 감복되어 지금껏 자기를 강그리 바치며 국방과학에 기여를 하고 있소. 그가 키워 낸 수많은 제자들이 박사, 학사가 되어 모두 국방과학부문에서 한몫씩 단단히 하고 있소. 이 얼마나 장한 일이요. 하긴 정숙동무는 그때 벌써 오늘을 내다보았겠지. 그래서 로천일동무를 믿었고, 리덕현동무를 믿었고...

로천일이가 없어 졌을 때도 그가 오리라 믿고 그가 들 방을 꾸려 주고...

그렇소. 우리 혁명은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해 왔소. 우리의 승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 이처럼 위대하고 영원한것이요.)

밤은 소리없이 깊어 가고 있었다. 대성산혁명렬사통의 불빛이 꺼질줄 모르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

위대한 어머니를 노래합니다

차명숙

행복한 강산에
따사로이 넘치는 해발
이 가슴 깊은 곳에 소중히 안고 사는
위대한 그 해발을
내 언제나 노래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우리 인민이면
한가슴 가득 행운으로 안고 사는 복
수령복 장군복을 승엄히 새겨 볼 때면
나의 심장의 문 조용히 여시고 들어 서시는...

김정숙어머님의 밝으신 모습
만물에 생을 준... 이 나라에 생을 준
태양!
그 태양의 따사로운 해발이 되신
어머님의 자애로우신 그 모습

우리의 수령복은
백두에 휘날린 붉은기높이
겨레를 살리려 나라를 찾으려
수령을 결사옹위하신 그 피어린 해방전에서
어머님 지켜 주셨고

우리의 장군복은
광명성 빛나오른 백두고향집
천고밀림이 설레이는
정일봉 솟은 그 정 깊은 땅에서

어머님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조국의 찬란한 앞날... 우리의 오늘에 두시고
어머님은 수령결사옹위의 한길에
고귀한 한생을 바치시었나니

아 우리 그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더더욱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어머님 우러러
한없는 고마움에 젖고
이리도 감사에 목 메는것 아니옵니까

나는 노래합니다
어머님 우리에게 안겨 주신
수령복 장군복이
그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것인가를
이 가슴 벅차도록 새겨 안으며
우리 삶의 가장 크나큰 행운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합니다

아 조선이
혁명의 어머니로 모시고 받든
우리 어머니 김정숙어머님
수령복 장군복과 함께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영원할
어머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그 업적을 노래합니다!

백두산녀장군의 력사우에 새겨 진 불멸의 노래

안룡준

9월이 왔다. 새 세기에 처음으로 맞는 9월, 나의 눈앞에는 수령결사옹위의 최고화신으로, 빨찌산녀장군으로 그 이름 떨치시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영상, 오각별 빛나는 군모아래 환하신 미소가 떠오른다. 조선의 찬란한 미래,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올리신 백두산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마음속에 안아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동무를 미래의 령도자로 키워 당과 조국앞에 내세워 준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 오르신 항일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김정숙동지께서 아드님께 기울으신 성의와 노력은 그 무엇으로도 셀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였다.

위대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큰 근심은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대를 이을 훌륭한 혁명가를 키우겠는가 하는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잠이 다 오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대를 이을 혁명가를 키워 내는것보다 더 큰 임무는 없다고 말씀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드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대를 이어 나가실 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해 모든 정력을 다하시였으며 그 과정에 몸소 가요 《자장가》를 창작하시였다.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발한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붉은기 들고
공산주의 새 세상 펼치는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항일의 간고한 나날 설한풍 휘몰아 치는 백두밀영의 우등불가에서 어리신 아드님을 포연어린 군복자락에 안으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들여다보시며 조선의 찬란한 미래의 태양으로 되시기를 축원하시던 어머니의 기대와 념원이 가요의 구절구절에 넘쳐 흐르고 있다.

가요에서 노래되는 자애로운 육친애의 감정은

어서 속히 자라기를 바라시는 자제분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념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국을 해방하고 조국땅우에 공산주의 새 세상을 펼치시기를 바라시는 기대와 확신의 사상정서로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가요에서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피어린 항일의 혈전속에서 총대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고수하고 계승완성하시기를 바라시는 김정숙동지의 총대사상, 붉은기사상이 강렬하게 노래되고 있다. 하여 《자장가》는 오늘이 땅에 차넘치는 총대중시사상과 붉은기정신의 력사를 잘 보여 주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의 뿌리가 어떻게 마련된것인가를 훌륭히 밝히고 있다.

자장가의 부드러운 선율을 타고 다정하면서도 친근하게 안겨 오는 가사의 사상정서는 세련된 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전달되고 있다.

김정숙동지께서 지으신 《자장가》는 혁명적인 내용을 부드럽우며 민족적인 정서와 밀접히 결합시킨 명가사이다.

가요는 우선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다듬어 진 고유조선말을 선택하면서 열, 백을 헤아리게 하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간결한 시적표현들에는 해방의 날을 눈앞에 그리시며 아드님께서 어서 자라 아버님의 뒤를 이어주시기를 바라는 념원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주시기를 바라는 시대와 인민의 절절한 소망,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손에서 총을 놓지 말아야 하며 대를 이어 싸워야 한다는 총대중시사상과 계속혁명의 사상, 언제나 아드님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친위전사의 소원과 신념이 담겨 져 있다.

그리고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와 《너》, 《나》의 표현 등은 민족적인 정서를 한껏 살리면서 친근하고 다정한 감정정서를 돋구어 주었다.

가요는 다음으로 자장가로서의 특성이 살아 나도록 간결한 서정구조와 동요적인 구성방식을 훌륭히 리용하였다.

가요는 두개의 련으로 이루어 져 있으면서 작품의 사상적내용을 점차적으로 제시,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매련의 전반부분에서는 룰동적인 시어들로 반복을 이루면서 어리신 아드님께서 어서빨리 자라기를 바라시는 어머니의 념원이 강조되어 있다.

후반부분에서는 《총칼을 메고》, 《붉은기 들고》서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며 이 땅에 공산주의 새 세상을 하루빨리 일떠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숭고한 념원이 시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결부되어 생동하게 노래되고 있다.

가요는 또한 반복구의 효과적인 리용과 밝고 량만적인 음악적물조를 잘 살리었다.

매련의 첫행인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를 련차적으로 반복해 줌으로써 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키워 가시는 어머니의 다정다감한 생활정서를 더욱 풍부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의 반복을 통하여 어리신 아드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나갈 계승자로, 향도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로 힘차게 달려 갈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지향을 훌륭히 보여 주었다.

가요는 특히 7. 5조의 전형적인 민족적음수를 조직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가사만 읊어도 노래가 저절로 흘러 나올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운률은 《어서》, 《속히》와 같은 시간성을 나타내는 부사와 반복강조의 표현수법 리용, 행과 음절단위의 대응과 대구의 조직으로 하여 더잘 보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인 운률조성은 마치도 요람을 흔들어 주는것과 같은 물동감을 자아내도록 하였다.

가요 《장군별을 따라서 조국땅으로》를 비롯하여 항일의 혈전만리 이르는 곳마다에서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수많은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신 풍부한 경험, 사랑하는 아드님을 빨찌산의 아들, 조선의 찬란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을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로 여기시며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위대한 사랑과 헌신이 낳는 《자장가》!

정녕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창작하신 가요 《자장가》는 사상적내용의 혁명성과 예술적형상의 높이에 있어서 혁명가요창작의 귀중한 본보기로 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 놓으신 조선의 어머니 김정숙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어머님께서 생전에 바라신 대로 혁명의 붉은기 높이 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 이 땅에 사회주의부흥강국을 기어이 건설하고야 말 불 타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 길에서 《자장가》는 영원히 불리워 질것이다.

강자의 초상

최치영

끝 없는 환영의 꽃바다
백발로 담가에 누운채
안타까워도 흔들지 못하는 손
안타까워도 말 못하는 입
끝날 같은 눈섭밑에 응시하는 눈빛

말해 다오 통일애국투사여
그 팔과 다리
그 말 못하는 입과 백발
원수들에게 빼앗기기전
어머니조국에 남기고 싶었던 말
조국의 래일에 부탁하고 싶었던 말

민족의 장한 아들이여 말해 다오
뼈를 깎고 피로 닦으며
철창속에서 악마와 싸워 40여년...
부서 진 팔과 다리, 백발로
온 심장과 뱃으로 지킨 신념과 의지

그대 담가에 누웠어도
말없이 응시하는 그 눈빛이
쉽게 열지 못하는 그 입이

한없이 고결한 그 백발이
우리 심장 두드리며 말하누나

신념은 말보다
심장과 뱃으로 지켜야 하기에
때로는 혀도 굳어 질수 있고
때로는 꽃다발도 못 받는 손이 될수도 있고
때로는 검은 머리 백발이 될수도 있다는
그 삶의 자국자국...

오, 신념은
혀를 놀려서가 아니라
손발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검은 머리 백발이 되어서가 아니라
온 심장과 뱃으로 지켜야 함을
말없이 응시하는 그 눈빛

그대는 담가에 누워 있어도
온 민족, 온 세계가 우러르는
강인담대한 억센 기상 넘치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민족의 장한 아들
불굴의 인간 강자의 초상

한 녀교원에 대한 추억

리경명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에 참가하고 학교로 돌아 온 나는 옛 스승의 묘소부터 찾았다.

나는 이번 회의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짜고 들어 그들모두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아들딸들로 키워낸 경험을 가지고 토론하였다.

토론은 회의참가자들을 공감시켰으며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나는 새로 받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숙연한 마음으로 옛 스승앞에 섰다.

앞면에는 《엄막득》이라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지고 뒤면에는 18명 제자들의 이름이 자름자름하게 새겨진 유별난 묘비를 어루쓸며 나는 눈물을 떨구었다.

그 18명 이름들속에는 내 이름도 들어 있는 것이다.

×

내가 엄막득선생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것은 조국해방전쟁이 엄혹한 시련의 시기를 갖 넘긴 때였다.

모든것이 폐허였고 모든것이 어수선했으며 모든것이 어려웠다.

사실상 그때 우리 나라 교육은 침략자들의 야만적인 도륙을 당했었다.

침략의 무리들은 신성한 학교에 더러운 구두발로 뛰어 들어 닥치는대로 책걸상들을 끄집어 내다가 치쌍아 놓고 얻어 맞으며 예까지 쫓겨온 분풀이를 거기에 대고 해대는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그어 대고는 바짝 얼어 든 초췌한 몸통이들을 그 불에 그슬려 댔다. 놈들은 뺨소니를 칠 때 포탄, 폭탄들을 무더기로 퍼부어 학교란 학교들은 모조리 형체도 없이 날려 버렸었다.

아이들은 학교를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어른들을 도와 굶어 진 다리도 복구하고 인민군대아저씨들도 적극 원호했다.

몰어 뜯고서라도 전쟁을 이겨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또다시 노예의 운명이 들쭉쭉 찢어진다는 이 한가지 생각이 어른, 아이 할것없이 모두의 마음을 바늘끝처럼 예리하게 한 때였다.

그런 틈에도 아이들은 틈만 있으면 제기도 차고 연도 날리고 저녁이면 숨박꼭질도 놀았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던것이다.

제일 멋진 놀음은 지치기놀이였다.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건너골 골안에 며칠

전 미친듯 날아 들어 까불대다가 인민군대아저씨들의 고사총탄에 얻어 맞아 곤두박질을 쳐서 불기둥을 물썬 뿔으며 터져 나간 미국놈비행기의 잔해가 있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우그러 든 알루미늄판을 도끼로 때려 뜯어 내다가 그것을 톱 깔고 앉아 경사 급한 뒤산 굽인돌이길을 신나게 미끄러져 내려온 했었다.

그럴 때면 정말로 거만한 미국놈들을 녹초가 되도록 족쳐서 꿈무늬밑에다 척 깔고 앉은듯 해서 기분이 좋았다.

잔소리깨나 하는 버들골할머니가 《원... 저런... 저러다가 낭떠러지에 굴러 내리문 어쩔려구 쯔쯔...》 하고 허를 연방 갈길 때도 우리는 그저 그때만 슬슬 꼬리를 사리는척 하다가 또다시 무리를 지어 기차처럼 여럿이 허리를 편결해 잡고 언덕길을 와당탕 통탕 지쳐 내렸다.

아버지 같은 남자어른들은 모두들 군대가 되어 전선으로 떠나가고 마을엔 로인들과 녀인들, 아이들만 남아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그때 세포위원장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릅드리 이깔나무를 포신처럼 엇비슷이 세워 놓은 우에 버티고 올라 서서 땅에 앉은 배나무집할아버지와 함께 술거덩술거덩 맛툰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건 뭘 할거냐요?》

나는 나무에 한손을 얹으며 물었다.

비행기날개처럼 길쭉하고 배가 둥실한 맛툰은 이깔나무의 정복판을 죽 갈라 내리고 있었다. 바싹 도사린 톱날들은 이악하게 달려 들어 톱밥들을 몰아 뜯어 내다가 우수수수수수 땅우에다 연방 쏟아 놓는다.

《장군님께서 우리 마을에 선생님을 보내주신다 누나!》

어머니가 통나무에 쟁기를 박으며 나를 내려다 보았다.

《이게 바루 너희들이 공부하게 될 책걸상감이란단...》

배나무집할아버지가 덧붙였다.

《네?...》

나는 눈을 치떴다.

겹질도 안 벗긴 통나무가 어떻게 책걸상이 된다는것인지 통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후 얼마 안되어 밤나무풀어귀에 이깔나무로

벽이며 천정이며를 빼곡이 맞물려 들인 림시교사와 거기에 두줄로 늘어 세운 책걸상들을 보게 된 것이다.

책을 놓고 영치를 붙일 옷면만 대패질을 하고 밑부분은 반원의 둥실한 통나무 그대로인 고정책결상이었다. 그것들은 땅에 묻은 두다리에 의해 튼튼히 유지되었었다.

싱그러운 송진내와 야릇한 흙냄새가 어울려 물씬 풍기는 림시교사는 제법 아늑한감을 주었다.

새까만 먹물을 들이고 거기에 닭알을 깨 먹여 놓으니 칠관은 제법 반들반들 윤기가 돌았다. 칠관은 웬일로인지 코허리를 시큰하게 만들며 눈물이 핑- 돌게 하였다.

그 칠관우에 아버지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 졌다.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이 웃것을 여미고 장군님의 초상화를 점도록 우러렸다.

바로 그날 동구길에 새 선생님이 나타났다. 색바랜 군복에 배낭을 메고 저 멀리서 달려 오는 선생은 아직 갓 스물을 넘기지 못했을 처녀선생이었다.

누군가 마을앞을 뛰어 달리며 소리쳤다.

《선생님이 오신다!-》

이 집 저 집에서 문짝들이 떨어 저 나갈 지경으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사람들이 뛰쳐 나왔다.

《선생님-임-》

아이들이 구름떼처럼 달려 가 동구길을 걸어 오는 선생님을 에워쌌다.

짧게 자른 머리칼이 둥실한 어깨우에서 나풀거리는 처녀선생님은 참말로 친누나 같아 보였다.

누군가 선생님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 냈다.

그와 동시에 선생님은 또 그대로 두무릎을 꿇고 앉으며 우리들을 열싸 안았다.

뒤따라 달려 온 어른들이 코를 훌쩍이며 선생님을 맞았다.

《세포위원장! 보라구... 내 오늘썸은 온다지 않던가!...》

《정말 그렇군요...》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하여 선생님의 두손을 움켜 쥐었다.

《우린 벌써 이겼네... 이겼어!...》

배나무집할아버지가 어머니의 손과 선생님의 손을 함께 감싸쥐며 연방 턱수염을 떨었다.

《그래요. 이겼습니다!...》

눈물이 그러한 어머니의 눈가에서는 눈물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즐거운 웃음이 물결쳤다.

그때 나는 선생님이 오시는것과 이겼다는것이 무슨 인연이 있길래 저리도 모두들 감격해 하는지 미처 알수 없었다.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던것이다.

드디어 밤나무가지에 걸린 커다란 폭탄깍지가

종소리를 울렸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승리한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시며 아직은 전쟁이 가릴처절한 오늘 싸우는 고지에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이렇게 학생동무들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모두 아버지장군님의 대해 같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 힘껏 배워 나갑시다!》

《네!-》

아이들의 쟁쟁한 대답소리가 밤나무끝에 메아리쳤다.

미제호전광들이 매 m마다에 폭탄들을 퍼부어 짓이겨 놓고 이제는 녹초가 되었으리라 타산했던 그 땅에서 배움의 랑랑한 글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선생님은 칠관우에 《엄막득》이라는 좀 유별난 자기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놓은후 출석을 불렀다.

애들의 이름과 함께 얼굴들을 익혀 나갔다.

그날부터 선생님은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하였다.

합숙이 따로 없었던 사정과도 관련되겠지만 어머니가 선생님의 손을 부여잡고 고집스럽게 잡아 끌었기때문이었다.

식량사정이 곤란하였던 때라 끼마다 밥상머리에서는 늘 싱갱이질이 벌어 지곤 하였다.

《어머니... 어서 들어 와 함께 드시자요!...》

선생님은 어머니를 나처럼 어머니라고 불렀다.

《선생님두 참, 내 걱정은 말라니까... 난 이미 부엌에서 먹었어...》

어머니는 언제나 판에 박은듯 한 말을 하였다.

선생님은 어머니말이 못 미더운듯 술을 든채로 있다가 불쑥 일어 나곤 하였다. 빈 그릇 하나를 들고 들어 와 거기에 자기 그릇의것을 절반나마 덜어 담곤 하였다.

선생님은 늘 동무나 이웃들을 자기처럼 믿고 사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자신은 어머니말을 통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뒤늦게야 앞치마자락에 손을 문지르며 들어 서던 어머니는 펄쩍 놀라며 제 뒤통으로 덜어 놓은것을 또다시 선생에게 쏟아 넣으려 들었다.

그러나 일단 무슨 일이든 한번 결심한 일은 끝을 보고야 마는 선생님은 그 그릇을 어머니 가슴 쪽으로 자꾸만 밀어 놓았다.

싱갱이질끝엔 언제나 그것이 내 그릇에 와 합쳐지곤 했다.

《승천아, 네나 더 먹어라... 오죽 배가 고프겠니 ... 그 나이에야 돌도 새길 뻔걸...》

어느 날 나는 부엌문가에 서서 몰래 밥주걱 든 어머니를 훑쳐 보았다.

어머니는 우선 선생님 그릇에 밥을 담았다. 골

숨하게 그릇이 차자 이번엔 내 그릇을 채웠다. 또 한개의 빈 그릇을 들고 술안을 들여다 보던 어머니는 결심한듯 그 그릇을 다시 부뚜막에 놓고 술에 남은것을 떠내어 선생님의 그릇과 내 그릇에 채웠다.

그날도 어머니는 꼭 같은 말을 하시었다.

《선생님두 참, 내 걱정은 말라니까... 난 부엌에서 먹었어...》

나는 어른들도 거짓말을 할줄 안다는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타이르시던 어머니였다.

그때부터 나는 저녁마다 등잔불심지를 돌구며 나와 선생님 모르게 치마끈을 조여 매는 어머니의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 차렸으며 그것때문에 이불을 쓰고 울기도 했다.

정엔 무르나 한없이 강의한 어머니였다. 늘 치마끈을 조여 매면서도 언제 한번 마을사람들앞에서 얼굴 찡그리는 일이 없는 어머니였다.

선생님 또한 인정 깊고 강의한분이였다.

저녁마다 내가 잠자리에 든후로도 어머니와 선생님은 다같이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

어머니는 해진 내 바치며 버선을 기웠고 선생님은 밥상을 석유등앞에 바짝 내붙이고 무엇인가를 줄곧 쓰시였다.

굵직한 20mm 기관포탄피에 15mm 기관총탄피를 줄칼로 잘라 맞기우고 퇴관자리에 보총탄알을 끼워 만든 그때 류행의 석유등에서는 불꼬리가 너울치며 타올랐고 어머니와 선생님의 그림자가 벽우에서는 길게 혹은 짧게 춤 추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 느물대는 그림자를 이불깃너머로 바라보며 살퐁이 잠들곤 하였는데 깨어 나 보면 어느새 어머니와 선생님은 또다시 일들을 하고 계셨다.

언제 자고 언제 쉬는지 알수 없는 어머니와 선생님이였다.

어느 날 나는 밥상우에서 선생님이 쓰다가 놓아둔, 내가 공책에 한장도 못되게 쓴 한시간분량의 글을 가르치자고 준비해 놓은 다섯장도 넘는 교수안이라는것을 들여다 보고 깜짝 놀랐다. 거기엔 나에게 물어 보던 문제와 함께 내 이름도 적혀 저 있었고 샘물집 풍선이에게 물어 보던 문제와 그애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무엇이나 막히는것이 없이 줄줄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저녁마다 이런 남 모르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나는 알아 차렸다.

눈여겨 보니 선생님도 남 몰래 허리띠를 조여매곤 하시였다. 어머니와 선생님은 어찌다 서로 눈길이 마주치면 다같이 별신 웃었다. 그 웃음에 내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 졌다.

이럴 때면 나는 나만 못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것을 보이기 싫어 이불을 들쓰고 코를 고는척

했다.

《하루종일 뛰여 다니더니 곤한 모양이지...》

어머니가 이불깃을 여며 주었다.

그러면 선생님도 한마디 했다.

《그저 애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지요.》

그런데 웬일로인지 그 정 깊고 수고 많은 선생님이 점점 매정스럽고 매몰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풍선이가 선생님에게 《막대기선생》이란 별명을 붙여 놓은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처음엔 그 별명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무엇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막대기란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 별명은 《막득》이라는 그 별스러운 이름과 《막대기》라는 말이 비슷한데서 생긴듯 하였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그런 딱지를 붙이게 된 리유는 다른데 있었다.

선생님은 어느 때부터인지 딱히 찍어 말할수 없지만 늘 기다란 자막대기를 손에 들고 다니였다. 그것으로 모든것을 재여 보고 따지려 들었다.

림시교사로 들어 가는 문어귀에 두줄로 세웠던 고운 돌들도 그 차로 재여 본후 간격이 약간 안 맞는다고 뽑아 내고 다시 세워 놓았다.

그러나 나와 애들에게 선생님이 정말로 막대기 선생이구나 하는 인식을 인박아 놓게 하는 일은 그다음에 생겼다.

나무를 심던 날이였다.

선생님은 나무심기에 앞서 우리들에게 주의할 점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제 동작을 해가며 설명해 주었다.

우선 땅의 결면을 파서 한옆에 놓는다. 그다음 흙은 파내여 구분해 놓고... 나무모를 구덩이에 들여 놓은후 처음의 흙을 묻은후 다진 다음 약간 당겨 놓아 뿌리들이 편히 퍼이게 한다. 그 다음 또 다진다. 힘 주어 당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 다진후 흙을 덮는다. 맨 마지막에 덮는 흙은 다지지 말아야 수분의 증발을 막을수 있다. 나무잎이나 부식으로 같은것을 곁어다 덮으면 더더욱 좋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가로세로 나무들간의 간격을 보장하는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너무 배게 심으면 나무의 성장에 지장이 생기고 너무 성글게 심으면 귀중한 조국땅을 그만큼 잃게 되는것이다...

그날 나무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조항에 걸려 들었었다.

선생님의 성미를 미리부터 잘 알고 있는 나는 나무들간의 간격을 보장하느라 처음부터 무진 애를 썼다.

내가 쓰고 있던 팽이로 두번을 재고 쇠로 된 부분만을 뺀 나무자루부분만큼 한번 더 재면 틀림없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간격이였다. 그런데 간격을 짚 때 팽이를 돌려 가며 등실등실 재나간것이 문제로 된듯 싶었다.

선생님은 언제나 들고 다니는 그 자막대기로 나무들사이간격을 칸칸히 재나가다가 얼굴을 찌프렸다. 단 한그루도 빠짐없이 모조리 잤다.

나는 선생님을 못마땅한 눈길로 바라보며 너무 하다는 생각을 했다. 폭탄 한발만 떨어 저 터지는 날이면 눈 깜박할 사이에 열스무대의 나무가 결단나는 때가 아닌가.

누군가가 로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쳇… 막대기선생…》

풍선이였다.

선생님도 분명 풍선의 불 부은 소리를 들었겠으나 못 들은척 계속 재나갔다.

선생님도 그쯤했으면 자기의 별명이 무엇인지 알고도 남았으련만 여전히 한본새로 막대기놀음만 해댔다. 나무를 다시 심도록 요구했다.

해 저무는 석양과 선생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던 나는 울컥하여 뺨이를 내동댕이쳤다.

순간 선생님의 눈에서는 참으로 매정스럽고 매몰스러운 새파란 빛이 흘러 나왔다.

그 눈빛은 고집쟁이 억남이도 꿈쩍 못하게 만드느 힘이 있었다.

나무를 잘못 심은 잘못에 뺨이를 내던진 잘못까지 합쳐 잘못을 빌어야 했다.

그날 저녁 돌부리를 걸어 차며 이리저리 돌아치다가 늦게야 집으로 들어 서던 나는 방에서 흘러나오는 심상찮은 분위기에 주춤 멈춰 섰다.

꺼질듯 한 흐느낌소리…

가만히 들여다 보니 어머니와 선생님이 마주잡고 울고 있었다.

어머니는 치마자락으로 눈물을 닦으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누르노라 꺾꺾 숨을 킁고 선생님은 동실한 어깨를 갑자르며 손수건으로 눈굽을 찍고 있었다.

내가 뺨이를 집어 던졌다고 고해 바친 모양일까? 나는 우리 선생님이 고해 바치는데 번 난다는것을 이미부터 알고 있었다.

《이 녀석아, 선생님속을 좀 작작 태우려무나. 선생님속이 얼마나 탔으면…》

그다음 말은 듣나마나 뻔하다. 내가 낮에 잘못한것을 벌써 어머니는 다 알고 꾸짖는것이니까…

그런 날 저녁이면 어머니는 늘 선생님보다 더 긴시간을 들여 꾸짖고 달래고 하였다.

그런데 오늘 저녁만은 여느때와 좀 다른듯 했다. 뺨이 하나 내던진 잘못을 가지고 저렇게 맞잡고 꺾꺾 흐느낄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와 선생님도 눈물을 흘릴줄 아는 사람들이라는것을 나는 처음으로 안듯 싶었다.

내앞에서는 좀해 눈물을 보이지 않던 어머니와

선생님이였다.

방바닥에 무슨 편지 같은것이 놓여 있었다.

(저것이 도대체 무슨 편지일까?)

나는 호기심에 가슴이 터질 지경이였다.

당장 달려 들어 가 들여다 보고 싶었다.

《승천이가 들어 오면…》 어머니의 말에 나는 바짝 귀를 도사렸다. 《그 애한테도 이결…》

어머니가 편지를 집어 들었다.

《아니예요, 어머니… 그 애한테…》 선생님이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넘겨 받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따로 알릴테니…》

그 말에 어머니도 동의하였다.

《그럼 생각대루 하라구…》

역시 어머니는 나에게 모든걸 숨김이 없는 정깊은 어머니지만 선생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정 마른 막대기였다.

그날 저녁 나는 이불깃머리로 여느 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일들을 하고 있는 어머니와 선생님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 편지가 무얼가?… 그 편지가… 도대체 무엇길래… 어머니와 선생님이… 그리도 슬피 울었을까?…)

나는 솔곳이 잠들었다.

밤은 얼마나 깊었던지…

신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다.

얼마나 놀랐던지…

짓이겨 진 살… 거밋거밋 엉킨 피고름… 그것들이 무시무시하게 한데 뒤엉킨 그 무엇이 내 눈앞을 짹 막아 섰다. 숨이 꺾 막히는듯 싶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었다.

그러나 꿈은 아닌듯 싶었다. 곁에 누운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으려 손더듬을 했다.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살펴 보니 그것은 바지가 뺨이를 걸어 올린 선생님의 발이였다. 어머니도 그곁에 앉아 있었다.

파편에 파헤쳐 진 상처… 그것이 내 눈앞을 짹 막아 섰던것이다.

철이 든후에 생각해 보니 선생님은 그때 어린 나에게 그 끔찍한 상처를 보이고 싶지 않아 깊은 밤 내가 잠든후에 감았던 봉대를 풀어 헤쳤던 모양이였다.

《어머니, 어서…》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어머니에게 요구하고 있었다.

《꽤 참아 낼수 있겠나?…》

어머니는 피롭게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참겠어요!…》

선생님의 눈이 번쩍하였다.
 무엇을 참는다는걸가?
 잠시후 쇠붙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울렸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화로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 냈다. 새빨갭게 단 인두였다. 어머니의 손이 약간 떨리는듯 했다. 저것으로 어찌자는것인가? 정신이 아찔하여 눈을 딱 감았다.
 《부지직!...》
 무엇인가 타드는 소리... 매캐한 냄새...
 눈을 쪼프려 떴다.
 그 순간 나는 하마트면 《앗!-》 소리를 지를뻔했다. 다행히도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웠다.
 《조금만 참으라구...》
 어머니가 쥐여 짜듯 말했다.
 어머니는 단 인두로 선생님의 상처를 화염처리하고 있었다.
 《참겠어요! 미국놈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돌아가신 승천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참구... 아이들을 위해 참... 겠... 어요.》
 《?!...》
 내 살이 타드는듯 피로운중에도 나는 선생님의 말을 푹푹히 가려 들을수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 가시다니... 숨이 막힐것만 같았다.
 《빼내지 못한 이 파편조각이 늘 말썽이라니... 좀 더 하긴 해야겠는데...》
 어머니가 망설이였다.
 《어머니... 어서!...》
 선생님은 또다시 발을 내뺐다.
 《견디여 내겠나?》
 어머니는 인두를 다시 끄집어 냈다.
 《래일 이 통지서를 놓구 승천이 아버지의 복수결의모임을 가지겠어요...》
 그때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지팽이없이 아이들 앞에 나서겠어요...
 그것으로 꼭 미국놈들을 이기겠어요!...》
 선생님의 손에 낮에 본 그 편지봉투가 으스러지게 틀어 쥐여 있었다.
 아, 그러니 저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 가셨다는 통지서였구나...
 《쯔쯔... 이런 발을 가지구 갈매기박제품 하나 때문에 지팽이에 의지해 밤길 30리를 다녀 오다니...》
 어머니는 처지를 끝내고 이마우에 내뿜은 땀을 훔치며 말했다.
 낮에 갈매기를 보며 기뻐 하던 생각이 났다. 이런 사연이 깃든 갈매긴줄은 정말 몰랐다. 갈매

기가 나래를 짝 펴고 우리앞에 저절로 훨훨 날아온듯이 생각했다.
 늘 함께 먹고 자는 나도 선생님에 대해 이리도 몰랐는데 다른 애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니 선생님이 지금껏 들고 다니던 자막대기는 자막대긴것이 아니라 아픔을 이겨 내려는 지팽이였다는것을 나는 너무나 뒤늦게야 알았다.
 아버지를 잃은 아픔에 아직껏 선생님을 욕되게 생각해 온 아픔이 함께 겹쳐 가슴은 찢기는것만 같았다. 나는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 나 선생님의 품에 뛰여 들며 용서를 빌고 싶었다. 아버지를 잃은 설음도 선생님의 품에 안겨 삭이고 싶었다.
 그러나 참아 냈다.
 왜?
 래일아침 학급동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모두들 이 사연을 안후 선생님앞에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잘못을 빌자.
 지금껏 그리도 지지리 아픈 못만 박아 온 선생님의 가슴을 그런다고 말끔히 씻어 드릴수 있을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궁싯거리며 새날이 밝기만 기다렸다.
 ...다음날 교사에 나타난 나는 우선 풍선이를 불들고 어제밤 알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아픔과 눈물은 언제나 남 모르게 묻어 두고 항상 태연한 자세로 우리들앞에 나서는 선생님처럼 나 역시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 아버지께 대한 이야기만은 빼고 선생님의 이야기만을 했다.
 어느 날없이 막대기(지팽이)없이 나타난 선생님의 얼굴에서 고통을 씹어 삼키는 알릴듯말듯 한 일그러짐을 알아 챈 풍선의 머리가 푹 떨어 졌다. 고집쟁이 억남이의 머리도 떨어 졌다.
 나는 이 사실을 모든 애들에게 알린후 두번째 휴식시간에 해바라기를 하러 깨밤나무밑으로 나오시는 선생님앞에 학급전체가 무릎을 꿇고 앉기로 약속했다.
 18명이 모두 함께 울음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면 어이듯 아팠을 선생님의 가슴도 좁은 풀릴것이다.
 두번째 휴식시간이 되기만을 가슴 조여 가며 기다렸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승천학생! 대답해 보세요...》
 《?...》
 뭘 대답하라는것인지 내가 무슨 수로 알겠는가? 두번째... 두번째 휴식시간만을 가슴 조여 기다

린 내가 아닌가....

《누나!...》

느닷없이 이런 말이 튀어 나오며 눈물이 핑-돌았다.

모든 애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학생이 선생님보고 《누나》라 부르는 법이 어디 있는가!

모름지기 선생님이라는 그 부름보다 친근감이 더 흐르는 누나란 말이 더 좋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는지도 모른다.

《승천학생! 선생님을 보고 누나가 뭐예요... 집에서라면 몰라도...》

여기까지 말한 선생님은 돌연 얼굴색을 달리 하고 땀을 흘렸다.

《아니, 그것도 안돼요! 사람이란 집에서 하는 말과 밖에 나와 하는 말이 절대로 다를수 없어요.

승천학생은 오늘 대답에서도 락제, 품행에서도 락제. 알겠어요?》

《네...》

나는 어느새 눈물을 툭툭 떨구고 있었다.

와락 튀어 나가 《선생님,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지난 날 잘못까지 합쳐 빌고 싶었다.

그러나 용케도 참아 냈다.

동무들과의 약속때문이었다.

다른 날 같으면 앞뒤에서 《막대기》, 《막대기》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와 함께 키득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렸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모두들 까딱 앉고 앉아 있었다. 물을 뿌린 듯 조용했다. 거친 숨소리들만 들릴뿐이다. 그것은 두번째 휴식시간이 어서빨리 되어 주기를 애 타게 기다리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누르고 있는 숨소리들이었다. 선생님도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애 써 누르고 있다는것을 나는 느꼈다.

오늘 공부가 끝나면 아버지의 사망통지서를 가지고 복수모임이 진행될것이다. 나도 선생님도 모든 애들도 저마다 제 나름의 남 모르는 눈물을 누르고 시간을 조이고 있었다.

《땡땡땡-》

종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그것은 두번째 휴식을 알리는 종소리인 것이 아니라 다급한 종소리였다. 이어 종소리가 울렸다. 항공신호였다. 선생님은 지체없이 우리를 립시교사로부터 더 깊은 장구산 문바위벼랑 밑으로 이끌었다.

하늘을 썰며 급강하하는 적기의 아찔러운 소리... 뚜룩... 뚜룩...

기총란알들이 길 양옆을 벌컥벌컥 쏘서 놓았다.

얼마나 달렸던지...

우리는 팡- 하는 폭발소리와 함께 그 자리에 엎드렸다. 엎드렸던 나는 피딱 립시교사쪽을 바라보았다. 언뜻언뜻 립시교사로 튀어 드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예까지 함께 온줄만 알았던 선생이 어느새 다시 달려 갔는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가슴에 무엇인가를 붙이고 다시 뛰어나왔다. 그와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립시교사에서 불길과 함께 먼지구름이 무섭게 치솟았다.

이어 귀청을 찢는 폭발음...

《선-생-님...》

《선-생-님...》

모두들 위험을 잊고 달음질을 놓았다.

립시교사앞에 이르렀을 땐 선생님은 이미 마지막 숨을 토포고 있는 때였다.

달려 온 마을사람들이 선생님을 에워쌌다.

선생님은 조용히 어머니무릎을 베고 말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장군님께서 맡겨 주신 금싸래기같은 저 애들을... 끝까지... 키워 내지 못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선생을 흔들며 말했다.

《선생님, 무슨 말을 하시우. ... 안되우다. 그건... 안되우...》

누군가가 참고 참던 울음을 터뜨렸다.

풍선이었다.

이어 억남이가 신음소리 비슷한 흐느낌을 터쳤다.

18명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용서를 빌자니 이미 때가 늦은것이다.

《학생동무들... 울지들 말아요...》

선생님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풍선이 잡았다. 억남이도 잡았다. 나도 잡았다. 18명 모두가 차례로 잡았다.

선생님은 말했다.

《공 부 가 끝나면 복수모임을 하자고... 했는데...》

《으으...》

나는 선생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몸부림쳤다.

선생님은 애 써 웃어 보였다.

《장군님만 계시면... 잃었던 학교도... 책걸상들도... 아버지도... 선생님도... 다 다시 찾을수 있어요. 장군님만 계시면...》

선생님은 가슴에 정히 불안고 있던 김일성장군님의 초상화를 어머니에게 안겨 드렸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울음이 터졌다. 아이들도 울고 어른들도 울었다.

우리모두는 선생님의 가슴에 아픈 못을 박고 그것을 뽑아 드리지 못한채 이렇게 떠나보냈다.

그것이 또한 지울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모두의 가슴에 못 박혔었다.

언제인가 나무를 심던 그 양지바른 언덕에 선생님을 모셨다. 풀지 못한 어이는 아픔을 헤아려 어머니와 마을사람들은 우리들 18명의 이름을 고인의 묘비에 새겨 넣었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 옛 스승을 못 잊어 교단에 선 이 제자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 서리가 불리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에 가법치 않은 무게로 안겨 드는 혼장을 조용히 어루쓸며 고인앞에서 맘껏 울었다.

내 만약 교육자로서 무엇인가 한 일이 있다면 그리도 일찍 우리결을 떠나간 옛 스승이 나에게 안겨 주고 간 그 자막대기(지팡이)가 있었기때문 이 아니겠는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진 그 자막대기로 나 역시 모든것을 채여 보며 사는데 습관했으며 그 지팡이를 신념의 지지대로 의지해 사는데 버릇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을 받들며 모시는 자세에서 단 한치의 양보도 모르게 한 그 자막대기...

내 삶의 걸음걸음 가슴에 자라오른 충성의 자세에 흔들림을 모르게 한 그 굳건한 지지대...

나는 옛 스승의 묘소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뗄수 없었다.

안해에게

리정웅

오늘 따라 당신의 그 얼굴
정말 환하구려
지나온 처녀시절이 부러워 다시 온듯
첫날 새색시도 무색할만큼

어찌 그렇지 않겠소
우리 장군님 먼저 사쓰시겠다고
그리고 만족해 하시던 화장품이
벌써 당신에게 와닿지 않았소

추억에 밝혀 진 날들을 생각해 보오
나무불에 밥하느라 그을음 묻은 얼굴
그대로는 차마 교단에 설수 없어
거울앞에 앉는 시간 길어 지던 그때를

유치원에 가는 우리 딸 해변의 손에는
사탕과자대신에 썩떡을 쥐여 주고
갓 젖을 뎌 어린 아들에게
때 이르게 강낭죽맛 익혀 주던 그때를

세월이 용서없이 선사한다는
늙음의 표적이 아니어서
고난의 날들이 때 이르게 그어 준
시련의 흔적이어서

나이에 앞서 잔주름 성한 그 얼굴
불 때마다 미안스럽던 이 마음보다
우리 장군님 먼저 알아 주신게 아니요

《고난의 행군》 길에 누구보다 수고 많았던
너인들을

장군님 얼마나 마음 쓰시였으면
외국방문의 나날에도 생각 많으셨겠소
그래서 돌아 오시는 길에 곧바로 찾으신 곳이
화장품공장인줄 당신도 잘 알지 않소

너성을 꽃중의 제일 꽃으로 내세워 주신
장군님의 사랑에 아름다와 진 얼굴들
집집의 문을 다 열고 그들을 보고 싶소
세대주들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을거요

웃음을 굴려굴려 눈덩이처럼 커만 가는
우리의 이 행복이 너인들의 얼굴에 다 모인가
보오

그런 얼굴들이 이 땅 그 어디나 가득 차
내 나라엔 《봄향기》가 넘치는게 아니겠소

아, 친어버이란 그 말을 내 이제야 알겠소
울밖에 으르렁대는 승냥이들을
총대로 몰리치시고
이 나라 너인들의 고운 마음처럼
얼굴까지 미인으로 만들어 주신분

장군님 그 사랑에
온 나라가 밝아 졌소
이런 너인들을 곁에 두고 부흥강국 건설하는
우리네 남자들도 진정 복을 타고 났소

탐구와 사색의 뚜렷한 자취

-잡지 《조선문학》 주체90년 1~6호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리창유

올해 《조선문학》 1~6호에는 이채로운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실려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들과 혁명적군인 정신이 잘 구현된 단편소설들,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 쓰는 과학자, 농업근로자들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들이 사상예술적풍격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수 있다.

이 단편소설들은 시대의 초미의 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하였을뿐아니라 예술적기교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작가들의 탐구와 사색의 흔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단편이라고 하여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명작으로 될수 있다.》

새 세기는 우리 당이 펼쳐 준 선군시대의 요구와 날로 높아 가는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에 맞게 문학의 모든 형태들과 함께 단편소설창작에서도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 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간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부족점들을 논의하는 것은 앞으로의 창작실천에 자못 중요한 시사를 준다고 본다.

×

우리 당의 선군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우리 인민들을 수령승배사상,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는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 《아침》(리명, 2호)과 《산촌의 물소리》(리정수, 6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다.

《아침》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나라 중부지대에 자리 잡은 룡천강수력발전소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만년대계로 진행하도록 설계일군들을 일깨워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것을 비록 난관과 시련이 많다 해도 그에 위축되지 말고 용감히 뚫고 나가야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혁명가적신념

을 실천적으로 실행해 나갈수 있다는 생활의 철리를 예술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작품에서 우점으로 평가할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덕성 일면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의 자그마한 사건을 통하여서도 온 나라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앞당기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바쁘신 나날에 사색하시고 또 사색하시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풍모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우리 나라 도처에 건설되고 있는 중소형발전소 건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건설되는 대자연개조사업의 일환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과 경제봉쇄속에서 나라의 긴장한 전력수요를 해결하는 중대한 경제전략적사업이다.

만약 작가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발전소건설장에 나오시어 발전소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치하하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배려를 돌려 주신 그러한 측면에만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 하나의 중소형발전소현지지도를 통하여 당의 경제로선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밝혀 주시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풍모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더라면 이 작품은 평범한 단편소설로 머물고 말았을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수령형상창조에 관한 주체적문제사상과 이론의 요구에 맞게 하나의 자그마한 생활범위에 국한되는 소재를 통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사회적문제를 일반화함으로써 이 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일정하게 격이 있는 단편소설로 완성해 낼수 있게 되었다.

《산촌의 물소리》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강도를 현지도하실 때 우리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려고 아글타글 애 쓰는 한 녀성관리위원장의 사업과 생활을 직접 목격하시고 몸소 따듯이 손 잡아 이끄시여 온 나라가 다 아는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 주신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소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 진 로력영웅 박옥희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재선택에서 사람들속에 알려 진 원형의 생활에 기초할 때 풍부한 예술적허구의 힘으로 사건과 성격을 전형화하고 예술적흥미를 불러 일으킬 감정조직과 세부형상에 깊은 탐구를

가하지 않으면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을 담보할수 없다. 작가는 이러한 소재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이야기의 장면장면들을 생동한 세부형상으로 그려냄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사상에술적풍격을 보장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높이 평가할만 한것이며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수 있게 한다.

단편소설 《아침》과 《산촌의 물소리》 등에서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대변한 중요상대인물들도 비교적 잘 형상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발전소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고령의 나이에도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완성된 설계를 만들기 위하여 애 쓰는 조성문박사며 련속식발파로 발전소물길굴을 뚫기 위한 공사시험을 희생적으로 진행한 제대군인출신의 돌격대원과 그를 도와 나선 경비원치너(《아침》), 북부고산지대에서 온실을 짓고 씨를 뿌려 모자라는 생육기간을 보충하여 세벌농사를 하고도 장군님께 결의 다진대로 감사수확고를 높이지 못해 가슴을 치며 안타까와 하는 녀성관리위원장 윤정금 등은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뜨겁게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대인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굳게 뭉친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대변하고 있으며 장군님께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의탁하고 충성의 한마음으로 억세계 살며 투쟁해 나가는 선군시대 주체형의 인간의 전형적인 성격적특질을 대변하고 있다.

이 두 작품들은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작가들의 탐구가 갖는 우수한 형상수법들을 능란하게 적용하고 있다.

《아침》을 두고 보자.

산중의 깊은 밤 불무지경에서 발전소의 새 물길간을 협의하신후 동 트는 이른 새벽 현지도의 길을 떠나시는 위대한 장군님.

그 아침에 수력발전소건설장을 찾으니 건설정형과 새로운 기술혁신안들을 몸소 료해하시고 련속발파시험에 참가한 혁신자처너를 만나 담화를 하신후 발전소능력을 배로 높일 새로운 물길공사안을 설계하도록 차근차근 일깨워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소설은 진붉은 노을이 타오르고 있는 아침에 대한 철학적의미가 깊은 묘사를 매 장면에 도간도간 이어 주면서 작품의 사상적의미를 뜨겁게 승화시켜 나가고 있다.

《산촌의 물소리》 역시 바위에 부딪치고 계곡에 부대끼며 쉬임없이 흐르는 소연한 물소리를 두고 철학적사색이 짙은 묘사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내면세계를 잘 그려 주고 있다.

형상화의 측면에서 우수한 점들은 이밖에도 허다하다.

이 두 작품들에 창작실천의 견지에서 높은 요구를 제기하면 아쉬운 점들도 있다. 그것은 보다 생활적이고 생동한 세부들을 탐구하여 이야기를 흥미 있게 펼쳐 보일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과(《산촌의 물소리》)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원한 내면세계를 생활적으로 좀더 뜨겁게 깊이 파고 들어 형상하였으면 하는 점이다.

이러한 부족점의 원인은 이성적인것에 주의를 돌리던 나머지 감성적인것을 작가의 뚜렷한 몫이 있게끔 보다 생동하고도 개성적인 세부형상을 통하여 깊이 파헤쳐 보이지 못한데 있다.

수령형상창조에서 개성적인 생동한 세부를 《인입》하여 형상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 그럴 때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 이야기가 펼쳐질수 있으며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 체험세계를 통하여 수령의 위대성이 생활적으로 깊이 있게 형상될수 있다.

올해 상반기년도에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예술적해명을 주는 단편소설들, 그중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명령지시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무조건 해제끼는 인민군장병들의 투쟁과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모습을 뜨겁게 반영한 작품들을 높은 사상에술적경지에서 창작하였다.

대표적으로 련속단편소설 《스물한발의 <포성>》(한웅빈, 4~6호), 단편소설 《한 분조장의 수기》(변창률, 1호)는 시대의 요구가 잘 반영되고 예술적기교가 새롭게 탐구된 우수한 작품들이라고 생각한다.

《스물한발의 <포성>》에서는 병사는 곧 총대이며 조국이며 따라서 병사에게 전투명령을 무조건 수행하는 결사관철의 정신이 생명으로 된다는것을 작품의 사상적핵으로 하고 있다.

작품의 이러한 중자를 선정하고 작가는 련속단편소설이라는 형식을 리용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든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과 생활을 소재로 한 세편의 단편소설들인 《군대와 사민은 어떻게 다른가》, 《군대의 철학》, 《스물한발의 <포성>》을 하나로 묶어 주인공을 비롯한 중요인물들의 성격을 다면적으로 해명하고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투쟁모습을 여러 단면들에서 모가 나게 그리고 있다.

작품의 특성은 전투명령을 무조건 제때에 수행하는것이 혁명적군인정신이며 이 정신의 핵으로 되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조국을 위하여, 혁명동지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줄 아는 자기희생성의 가장 높은 단계로 된다는 《군대의 철학》을 신입대원인 《나》를 무적필승의 용사로 억세계 키우는 주인공 소대장과 여러 구대원들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 파헤쳐 그려 보인데 있다.

자갈이 없으면 암반을 깨어 보장하고 레루가 없으면 《침목레루》, 《물레루》를 창안하여 팔

차로, 폐목으로 물길굴버럭을 실어 제 시간내에 처리하는 군인건설자들,

석수가 터진 막장에서든 천공작업을 다그쳐 성과적인 발파로 공사속도를 보장하는 군인건설자들,

이들의 이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통하여 작품에서는 우리 인민군대야말로 전투명령수행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지닌 무비의 용사들임을 형상적으로 잘 그려 내고 있다.

작품에서는 특히 《100리 물길굴을 판통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명령받은 전사에게 시간은 생명이다!》 등과 같은 혁명적구호를 내걸고 투쟁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에 찬 모습을 생동한 세부형상으로 장면화하여 형상함으로써 형상이 기쁨지고 예술적흥미가 진진하여 재미 있게 읽히우게 하고 있다.

레루가 제때에 보장되지 못하여 《침묵레루》를 놓고 버럭을 처리할 때 물주머니가 터져 물이 가슴을 치게 고이게 되는 정황에서 《압록강 2천리》 노래를 건드러지게 뽑으며 침묵으로 폐를 못하고 버럭을 실어 내가는 군인건설자들의 랑만에 찬 투쟁모습을 그린 장면을 상기해 보라. 확실히 이 작품에서 작가는 단편소설창작에 흔히 적용하고 있는 뒤집기구성법(한번도 아닌 두세번 뒤집기구성수법까지 포함하여)을 쓰지 않고도 단편의 묘기를 잘 살려 이야기를 고도로 집약화하고 장면화하여 짜인 구성속에서 작품의 주제사상을 깊이 파헤쳐 해명하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창작과정에서 볼 때 새로운 면모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작가의 창작적개성의 한 측면이라고 말할수 있는 장면장면을 모아 나게 그리면서도 밝은 양상으로 채색하는 해학의 수법, 성격발전과정에서 의도와 결과와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의 교훈을 통하여 심오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형상적묘기가 이 작품에서 잘 살아 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때문이다.

일부 평자들은 자칫하면 이러한 형상적특기를 두고 작가의 《순결재간》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평가에 동의할수 없다. 그것은 작가의 이 형상적묘기가 이야기를 재미 있게 엮어나가게 하고 평범한 생활에서 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던지는 사회적문제, 인간문제를 심오하게 해명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기때문이다.

단편소설은 시대의 요구에 가장 민감한 문제성을 재빨리 들고 나오는 기동적인 소설형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형상적 《틀》을 요구하지 않는다.

어떤 작가는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문제성을 기동적으로 들고 나오는것으로 비록 중량감은 없으나 《경쾌한》것으로 한몫 할수 있고 또 다른

작가는 구성에서 짙막한 이야기를 시작과 마지막에 통채로 뒤집는 수법으로 작품을 쓰기도 한다.

그렇다. 단편소설의 작가는 다양한 형상수법으로 자지의 특기에 맞게 작품을 구성한다.

단편소설 《한 분조장의 수기》는 새로 선거된 한 농장의 청년분조장이 한해동안에 분조원들을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켜 좋은 작황을 이룩하고 집체적인 힘에 의거하여 버림 받던 척박한 논 수천평을 옥담으로 개량한 이야기를 수기체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작품은 주인공 《나》가 분조장으로 선거될 때 몇몇 분조원들이 반대투표한 《사건》을 두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야기는 주인공 《나》가 이듬 대신 《드들기》라고 별명이 붙은 채흥기아바이, 《자투리》로 통하는 김숙희아주머니 그리고 이전 분조장의 《고삐》나 같은 존재였던 주봉실아주머니 그리고 진출자인 김송이 등이 자기를 반대투표했을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따로따로 펼쳐 보이는 식으로 전개된다.

주인공 《나》와 이들사이에 있는 개개의 토막 이야기는 제 나름의 기승전결이 있으며 총체적으로는 매 분조가 해마다 돌려 가며 부치는 척박한 《주길손필지》를 개량하는 과정에 《나》가 분조원들을 당의 농사제일주의방침관철에 펼쳐 나서게 하는 이야기에 합류되게 된다. 그리고 작품의 총체적인 해결부분에 해당하는 《우리 분조원》들에 이르러서는 몇몇 산모들이 분조장선거때 반대투표한것을 저절로 고백하는것으로 총체적인 이야기를 뒤집는다.

작품의 특성은 우선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안고 있는 종자를 탐구하고 이야기를 펼친것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농민은 굶어 죽어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옛날 어떤 농민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고개마루에서 종자를 닦아 먹으려다 날벼락을 맞아 죽었다고 하여 그 고개를 닦은 고개라 부른다는 작품의 이야기...

오늘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우리 농장원들이 일시적인 난관이 있다고 하여 실적을 속이고 제 살 궁냥만 펴나가려 한다면 전설에 나오는 그 농민처럼 천벌을 맞을 일로 된다. 그것은 농민이 디디고 선 터전이 《땅》이라면 나라가 디디고 선 터전은 《농민》이기때문이다.

작품의 핵은 바로 나라가 디디고 선 터전은 《농민》이므로 농민이 량심을 속인다면 만회할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는것이다.

그런데 전 분조장은 량심을 속이고 수확고를 《조절》하여 먹자관을 벌리며 더 많은 비료를 받으려고 안면관계로 비료전표를 뒤공작하기도 하고 기자들이 취재 온다고 길옆 포전들만 미끈하게 가꾸게 한다.

작품에서는 이런 부정행위들을 날날이 까발혀

보이는 과정에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민이 나라앞에 량심을 속인다면 종자를 닦아 먹고 죽은 옛날 농민과 다를바 없다는 심각하고도 예리한 사회적문제를 풀어 보이고 있다.

작품의 특성은 또한 향토미가 나게 구수하게 이야기를 엮어 나가면서도 농장원들의 생활을 진실하고도 풍만하게 펼쳐 보인것이다. 또한 개개 농장원들의 성격을 생동한 개성이 엿보이도록 특징적인 세부형상으로 그려 나간것이다.

작가는 농촌생활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것을 진실하고도 아름답게 그리고 단편소설의 형상수준을 비상히 높여 나가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사색으로 작품을 착상하고 이야기를 독특한 구성형식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명실공히 최근년간 사회주의농촌주제의 단편소설에서 확고한 자기 위치를 차지할 작품으로 완성할수 있었다.

우에서 본 련속단편소설 《스물한발의 <포성>》과 단편소설 《한 분조장의 수기》는 예술적기교의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작가가 련속단편소설이라고 했건, 그저 단편소설이라고 했건 그 형식을 규정하기에는 그와는 관계없이 독특한 구성을 가진 특이한 소설들이다. 비유하여 말한다면 시정시의 한 형식으로서 련시가 있듯이 이 소설들은 하나의 주제, 한명의 일관한 주인공을 둘러싼 여러편의 작은 토막(그것도 기승전결을 가진) 이야기들로 엮어진 작품들이다.

이러한 특성은 우에서 본 《스물한발의 <포성>》은 말할것도 없고 《한 분조장의 수기》를 자세히 살펴 보면 쉽게 이해될수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나》와 이러저러한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벌어 지는 개별적이야기는 따로따로 펼쳐 지다가 마침내 하나의 기본이야기에 합류된다. 때문에 이 소설 역시 련속단편소설의 구성형식에 가까운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련속단편소설의 특성은 총체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로 줄거리가 세워지고 있으나 매개 부분으로 나눈 토막으로써도 기승전결을 가지는 생활의 단면들로 그 이야기가 련속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구성형식을 취하면 주인공의 성격을 여러모로 형상할수 있는 우점이 있고 주인공의 주도적인 성격적특성만을 해명하는 단편소설형태의 작품에서도 중요인물들의 성격을 여러모로 발전과정속에서 쉽게 그려 나갈수 있는 유리성이 있다.

이러한 형식의 단편소설들은 지난 세기 80년대 말~90년대 초에 발표된 한웅빈의 성과작들에서 찾아 보게 된다. 련속단편소설이라는 형식규정도 이 작품들에 처음으로 붙인것이다.

물론 이 단편소설구성형식도 일련의 제약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토막이야기가 몇편 더 삽입될수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일부 빼버려도 총체적인 작품구성에 큰 손상을 주지 않는 구성형식

이기때문이다.

련속단편소설의 구성형식도 주인공의 위치나 이러저러한 인간관계조직의 다양성에 따라 구성조직을 서로 다르게 할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형식도 작품에 따라 서로 다르게 조직할수 있으며 다양하게 주어 지게 된다.

레컨대 《스물한발의 <포성>》에서 주인공은 설화자인 《나》가 아니라 위기일발의 순간에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장렬히 희생되는 소대장 전호진이다. 때문에 주로 《나》와 주인공인 소대장 전호진과의 관계에서 벌어 지는 이야기가 여러 단면들에서 토막토막으로 련속되어 기본이야기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와는 달리 련속단편소설구성형식을 취한 《한 분조장의 수기》에서는 설화자인 《나》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고 《나》와 중요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벌어 지는 이야기가 따로따로 펼쳐 지다가 마지막부분에 가서야 하나로 합류된다. 작품의 첫부분에서 이야기의 단서를 열어 놓는 계기설정은 《분조장선거투표에서 누가 반대하였을가》라는것이다. 이것은 분조장인 《나》가 의심을 가지는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벌어 지는 이야기를 따로 벌릴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 작품의 계기설정은 이야기의 마지막부분에 가서야 뒤집기식으로 전혀 예상치 않은 인물들의 고백으로 해명된다.

이 두 작품들은 이와 같이 특이한 단편소설의 구성형식을 취하여 선군시대의 인민군병사들과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생활을 집약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소설양식에서 이러한 구성형식은 흔히 찾아 볼수 없는 독특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도 이 작품들의 형상적특성과 구성의 기교는 높이 평가되고 그 성과가 앞으로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상반년도에는 또한 선군시대의 중요한 당정책적요구의 하나인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우리 시대 주체형의 과학자, 기술자형상에 바쳐진 우수한 계렬의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21세기는 정보산업시대이다. 그런것만큼 과학과 기술을 중시하고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형상을 보다 많이, 훌륭하게 창조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

단편소설 《해 저무는 백사장에서》(김유권, 1호), 《행복의 무게》(리라순, 3호)는 청년과학자들의 형상을 비교적 특색 있게 형상한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특성은 정보산업의 시대인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하여 애 쓰는 청년과학자들의 형상을 나라의 경제발전과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절절하게 그린것이다.

《해 저무는 백사장에서》는 타보압축기와 같은 대형설비들의 파손을 미리 막을수 있는 기계진동 진단체계프로그램을 창안해 내기 위하여 고심어린 탐구와 자기희생적인 노력을 다 바치는 청년과학자 리주렬연구사의 형상을 통하여 《...현실은 과학자들이 주저 앉으면 백년이 가도 뒤떨어 진 처지를 면할수 없다》는 나라의 전도와 관련한 심각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풀어 보인 작품이다.

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에 대한 작가의 열렬한 긍정과 과학발전에 무관심한 일군들에 대한 강한 비판의 정신이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가슴 뜨겁게 울려 나오고 있다.

압축기사고는 피할수 없는것이며 지금은 《전기도 원료, 자재도 설비도 부족한 조건》에서 급선무는 재래식으로 사고가 나면 보수하면 되는것이 지 과학적방법을 연구한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되는가고 연구사업을 공공연히 반대하는 지배인을 두고 《말귀도 알아 듣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 ... 나라의 전도까지 어두워 보였》다고 날카롭게 정면에서 비판하는 청년과학자 리주렬연구사.

중학교를 졸업하고 로동현장에 진출한 로동자 서인철이 남들은 다 힘든 일판을 찾아 가는데 대학입학시험준비에 시간을 바치는것을 땃땃치 못한 일로 간주한다며 포기하려 하자 《인철이는 이제 어느 대학교정이나 연구실로 간다고 생각하나. 나라의 장래운명이 결정되는 전선으로 가고 있어. 우리가 다시 일어 서는가 아니면 후진국으로 밀려나는가를 판가리하는 대결장이 준비된 청년들을 부르고 있어. 래일에 자기를 바친다는건 말 그대로 부러워 할만 한 삶》이라고 일깨워 주는 청년과학자 리주렬연구사.

작품에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뜨겁게 울리는 이 격정에 찬 목소리는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심장깊이 체현한 작가의 주장이며 현실에 대한 뜨거운 호소이며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새 세대 청년과학자의 정의에 찬 웨침이기도 하다.

여기에 바로 새 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예술적 해명을 주기 위해 모대기는 작가의 뉘이 뜨겁게 반영되어 있으며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새롭게 체현한 청년과학자인간전형을 창조하기 위한 작가의 깊은 탐구와 사색의 자취가 새겨 져 있다.

우리는 이렇듯 깊은 작가의 탐구정신과 형상창조에서 자기의 《뭉》을 발견할줄 아는 심오한 창작적사색에 응당한 평가를 주어야 한다.

《행복의 무게》가 제기한 문제성도 새롭다고 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한생을 과학탐구에 바치리라 결의

다진 녀성과과학자 유경이가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키우면서 생활이 어려워 지자 연구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가 남편의 도움으로 다시금 과학사업에 나서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앞에 자기의 큰 집을 진 녀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행복한 녀성》이라는 문제를 풀어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오늘 대학을 졸업하고도 과학연구사업이 고달프다고 하여 쉽게 살아 가려고 가정에 불박혀 있거나 린점부문에서 적당히 일하려는 적지 않은 녀성들에게 교양적가치가 큰 절박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수 있다.

작품에서 유경에게 큰 정신적고무를 주는 긍정 인물로 남주인공 근식이를 내세우고 있다. 그는 유경이와 같은 최첨단과학연구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로서 유경이와 한가정을 이룬 남편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물론 다른 작품들에도 볼수 있는것이므로 새롭다고 말할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남편되는 인물이 자기 안해를 생활전선에 내보내는 부정인물로 설정되어 이야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남편이 안해를 적극 도와주고 리해해 주며 다시금 과학연구사업에 펼쳐 나서게 한다. 이것은 작가가 새롭게 탐구한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작품의 양상을 밝게 하며 우리 시대 과학자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 보이게 한다.

작품은 마지막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비약시켜 부부과학자들이 마침내 나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공동연구로 국제과학기술축전에서 금은상까지 수여 받아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며 30대에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것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것 역시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시대 인간들, 녀성들의 행복의 무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후련한 예술적해명을 주는 좋은 결속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의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생활세부들이 차분하고도 섬세한 필치로 흥미가 있게 펼쳐 져 있다.

다만 작품은 진실성의 측면에서 볼 때 녀주인공 유경이가 급병으로 경각에 다달은 아이를 병원에 남겨 두고 실험실에 달려 가 밤새껏 연구사업을 하다 보니 의료집단성원들로부터 《한심한 녀자》로 단정 받게 되는 생활세부가 지나치게 전제없이 《인입》됨으로써 사상에술적풍격에서 적지 않은 손상을 입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생활세부라도 생활전제를 앞에 깔아 주고 여유가 있게 《인입》하였더라면 진실하게 그려 졌을것이며 이야기에 밀착되어 작품의 사상에술적풍격에 큰 손상을 주지 않았을것이다.

올해 상반기년도에 발표된 단편소설들가운데는

《생활의 격류》(김해성, 3호), 《후사경》(정영중, 1호)과 같이 사회주의현실주의의 작품을 통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을 지닌다면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사상을 강조한 비교적 우수한 소설들도 있고 《버드나무》(리영환, 2호)와 같이 오랜 리당비서이며 실농군인 진득현아바이의 도움으로 갓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장에 진출한 새 세대청년이 자기의 재능을 활짝 꽃 피워 작곡가로 소환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린 소설도 있다. 이밖에도 단편소설 《별-하나》(석유균, 3호)는 조국통일주제에 바쳐진 작가의 깊은 사색이 담겨진 좋은 작품이다.

소설은 북남어린이들의 《통일을 위해 피여 난 지향이 하도 소중하여 통일을 위해 피도 마다하지 않으려나》 그 한결 같은 지향에 실려 외세의 책동을 짓부시고 《하나로 이어 저 맥박치는》 민족의 힘을 합쳐 조국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북남인민들의 한결 같은 념원을 이어 주는 혈맥이 될것을 결의하는 주인공-비전향장기수의 심정을 섬세한 필치로 그리고 있다.

조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북남어린이들의 지향을 이어 주는 혈맥이 될것을 다짐하는 《별-하나》라고 단 제목에 깊은 사상적의미를 담은 표시(-)며 아이들의 생활을 이채롭게 그린 생활세부, 여운있게 울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깊은 뜻이 담긴 문장들...

이밖에도 우리 시대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아름답게 그린 《여섯번째 버드나무》(한정아, 3호), 《푸르른 대지》(변월녀, 3호), 《룡산의 메아리》(김성희, 5호) 등은 너성작가들의 실력, 탐구와 사색의 자취가 어려 있는 작품으로서 형상적 높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으며 제 나름의 특징이 있는 좋은 단편소설들이다.

또한 상반년도에는 《산딸기》(채동규, 2호), 《지리산의 메아리》(강일주, 4호)와 같은 운문소설들이 실려 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새 세기에 들어 서 소설문학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을 개척하기 위한 작가들의 깊은 탐구와 사색의 세계를 엿보게 된다.

우에서 언급한 작품들은 사상예술적풍격에서 성과도 크지만 창작실천활동에 높은 요구를 제기하면 일련의 부족점도 안고 있다. 여기서 단편소설 《생활의 격류》만을 간단히 언급하려고 한다.

작품의 우점으로서 작가의 성격형상에 모를 박고 정황설정으로부터 생활세부설정과 언어형상에서도 깊은 관심을 돌린 점을 들수 있다.

팔랭이중대장인 한복금이 제대되어 가정을 이루는 세부들만이라도 상기해 보자.

상대자가 체격도 작고 조물쭈물하여 눈에도 차지 않았지만 (키가 작아 군대에 못 나간것은 둘째로 치고라도) 높은 향학열과 성실성에 감동되어 총각의 사랑을 받아 들이는 한복금.

잔치날에 쌍창을 시킬 차례에 뺄소니쳐서 옷방 베란다에 누워 쿨쿨 잠들어 버린 남편과 《결별》을 선언하였지만 그가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을 만드느라 며칠밤을 새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자 자기자신을 타매하고 용서를 비는 한복금.

그러한 남편이 광명성제염소건설장에 지원 나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자 남편의 몫을 대신하겠노라 다짐하고 술한 지원물자를 가지고 가는 한복금.

참으로 그의 성격은 개성적이면서도 의지가 강하고 굳센 군인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

작품에서 작가는 개개의 성격들을 아름답게 형상하려는 의도밑에 생활을 광면적으로 채색하여 그리고 있다. 물론 이것은 찬양할 일이며 작가의 몫이다. 그런데 작품의 이야기가 결속부분을 비롯한 일부 장면들에서 차분히 그려 지지 못하고 지나치게 띄워 묘사되다 보니 형상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소설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단편소설일반(《조선문학》에 실린 나머지소설을 포함)의 중요한 부족점들을 간단히 지적한다면 그것은 우선 일부 작품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대의 요구에 절실하고도 시급한 해명을 주는 사회적문제성이 뚜렷하지 못한 점들을 들수 있다. 지어 어떤 소설은 예술적풍격에서 크게 나무랄것이 없으나 우리 시대의 절박하고도 의의 있는 문제가 뚜렷하게 제기되지 못한 부족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소설의 시대적배경을 10년전에 내놓아도 되고 20년전에 내놓아도 좋을 그릇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레컨대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첫 직무에 안착되지 못해 들뜬 생활을 하다가 차츰 안착되어 혁신자로 되는 내용의 작품들만 해도 그러하다.

단편소설들에 강성대국건설으로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정신적 및 룰리도덕적문제가 제때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선군시대의 혁명적기상으로 내려치는 시대정신과 새로운 시대의 맥박으로 고동치는 생동한 성격이 그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체의 사명을 망각한것으로 된다.

이것은 비단 현실주의의 단편소설에만 해당되는 사상미학적요구가 아니며 지난 시기의 생활소재로 씌여진 단편소설에도 그대로 해당된다.

중요한 부족점은 또한 형상기교가 높지 못하고 생활소재가 새롭게 못났것을 취하여 작품을 쓰는 경향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레컨대 어떤 작품은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가 조국에 와서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류형적으로 쓰는데서 찾아

볼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지난 시기 적지 않은 작품의 소재로 되었으며 그가운데는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 우수한 소설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소재가 어긋비슷하더라도 새로운 종자와 새로운 인간문제가 구현된 작품을 쓰지 못하는데 있다.

내용에서나 구성형식 지어는 작중인물의 행동과 말투까지 새롭지 못하고 자기의 몫이 크지 못하면 첫 시작만 보아도 그 끝이 뻔드름하게 보이는 법이다.

이러한 부족점들은 단편소설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제때에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확실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에도 잡지 《조선문학》에는 선군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우수한 단편소설들이 적지 않게 실렸다.

이것은 참으로 주목할만 한 일이다.

올해에 들어 와 단편소설창작에서 중견작가들뿐 아니라 신인들과 녀류작가들, 심의일군들의 창작성과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소설창작에서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아주며 그들의 지혜를 적극 발양시키기 위한 문학운동이 한계단 높은 수준에서 조직화되었음을 실증해주고 있다.

특히 우리의 단편소설문학은 우리 당창건 55돐을 풍만한 창작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문학축전을 통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 세기는 단편소설문학의 수준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올릴것을 요구한다.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비약하고 또 비약하자. 내용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형식도 혁신적인 안목으로 더욱 다양하게, 형상수준도 일층 높여 선군시대의 명작풍년을 마련해 나가자.

가사

장군님 빛내시는 수령님년대

김선지

봄을 안고 탄생하신 우리 수령님
언제나 봄날만을 펼쳐 주시네
어제도 오늘도 흐르는 시간
주체의 년대로 세월 이루어
이 땅우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장군님 빛내시는 수령님년대

우리 삶을 꽃 피준 어버이사랑
향도의 해빛 있어 더욱 뜨겁네
태양절로 태어난 주체의 년호

이 세상 날들을 빛내여 주네
이 땅우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장군님 빛내시는 수령님년대

만경대 해돋이로 시작된 날이
백두의 해돋이로 영원하다네
주체의 년대로 이어 진 세월
이 땅의 력사되어 흘러 흐르네
이 땅우에 흐르는 날과 달들은
장군님 빛내시는 수령님년대

가사

군민의 정 이 가을에 무르익었네

리득하

가을이라 산중엔 보물도 많아
버섯 따는 처녀들 신바람 났네
바구니에 넘쳐 나는 향기론 버섯
수고 많은 병사들께 보내주잔다
아 우리 농장 도와 준 병사들에게
선참으로 이 버섯 보내주잔다

가을이라 산중엔 보물도 많아
다래 따는 병사들 어깨춤일세
배낭마다 넘쳐 나는 달디단 다래
원호명수 처녀들께 보내주잔다

아 우리 초소 도와 준 정든 마을에
선참으로 이 다래 보내주잔다

가을이라 군민의 정 넘쳐 나는가
장군님 은정속에 무르익었네
우리 초소 우리 마을 꽃이 피더니
군민의 정 이 가을에 무르익었네

아 어버이장군님께 기쁨 드리며
군민의 정 이 가을에 무르익었네

두 세월의 상봉

박정애

관문점 분리선앞에서

꿈이 아니요
진정 꿈을 꾸는것은 아니요
금시 심장의 고동마저 멈출듯
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서는

제 나라면서도 넘어 설수 없어
넋이라도 가고 싶던 비극의 이 계선
죽음이 칼날 같은 관문점 분리선
정녕 내 오늘 넘어 선단 말인가

믿을수 없더라
이제 한발만 들어 옮기면
광명이 비쳐 오는 그리움의 정든 땅
살아 두눈을 번쩍 뜨고 넘어 선다는것이

이 분리선앞에 오기까지
지옥의 세월을 끌고 온 길 그 얼마였던가
악형을 이기며 죽음의 대문앞에
그 몇천번 서보았던가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백발의 마른 가슴 활활 태우며
천길 암흑에 묻혀 몸부림에 헤매던 이 몸
우리 장군님 잊지 않으시고 불러 주실줄이야

오, 인생이 갈라 지는 관문점 분리선
지옥에서 락원으로
내 운명에 밝은 빛을 향하여 다가서는 이 순간
백발인생은 멀리 가고 청춘으로 다가서는
순간이여

헤어져 수십여년 세월은 멀리 갔어도
백양나무 설레는 동구길에서 손 저어 주던
다심한 어머니가 아는 그 모습
샘물집 둘째로 고향이 아는 모습
꽃나이스절에 가슴 울렁이던 진정 못할 그
마음으로
내 분리선을 넘어 서며 두 무릎을 꿇었소
차마 밟로는 옮겨 디딜수 없는 땅이어서
내 심장을 대었소

물맛

-옥류약수터에서-

선녀 같은 처녀가
조롱박에 찰랑찰랑
어서 마시라고 떠준
옥류정의 약수

들여다 보니
그림 같은 모란봉 비껴 들고
대동강이 가득히 고인듯
내 조국산천의 정기가 넘치는
옥류정의 약수

차마 받아 들수 없으려
그 물에 글썽
옥살이 36년
긴긴 세월이 깊이도 잠겨 있지 않소

조롱박에 찰랑
처녀는 상국이 물을 권해도
나는 두손으로 정히 떠마시오
어머니의 젓맛 같은 변함 없는 이 물맛
이 가슴에 고여서는
차디찬 이 물이 왜 그리도 뜨거우뇨

한 글자와 한생

전향과
비전향
그속에서 《비》 그 한자를 떼어 보소
그러면 꼭 같은 말 아니요

하지만 그 한 글자의 간격은 하늘땅 차이요
전향
이 말은 개라는 말
비전향

이 말은 인간이란 말

《비》

그 한자가 그토록 중하지 않다면야
갈가리 살점을 찢어 발기고
뿌두둑 뼈까지 부서 치는 고문장에
어찌 나의 한생을 서슴없이 맡길수 있겠소

《비》 그 한 글자는

나의 량심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의 먼 래일까지도 약속된 말
살아서는 짐승으로 못 살기에
그래서 그 한 글자와 한생을 바꾸었소

두 세월의 상봉

궁전 같은 학습당 다 돌아 보고
평양이 한눈에 안겨 오는 로대에 서서
내 딸 같은 안내원에게 조용히 물으니
아니 이게 그 무슨 기이한 상봉이요

행복 넘친 너인의 나이와
옥중생활 내 년한이 꼭 같은
락원의 서른여섯해!
지옥의 서른여섯해!

그대가 해빛 밝은 강산에서
복 받은 생을 안고 웃음속에 커갈 때
철쇄에 묶이운 이 몸에선 쇠고랑소리
야무진 채찍소리 아츠럽게 울었소

그대가 무지개가방 달랑이며
배움의 층계를 사뿐히 오를 때
나는 지친 다리 끌며 끌며

감캄한 형장의 층계를 피 흘리며 올랐구려

조국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을 꽃 피워
그대가 혁신자의 표창속에 벼들의 축하 받을 때
한장 백지장을 앞애다 놓고
한생을 나자신과 싸웠소

안내원동무
백만장서 그 어느 폐지에서도 찾지 못할
락원과 지옥, 두 세월의 전설 같은 상봉은 말해
주지 않소
복속에 살아 온 생도 고통속에 신념을 버려 온
생도
우리의 머리위에 태양이 빛나기때문 아니겠소

같은 세월을 산 두 시대의 이야기
학습당의 조용한 창 넘어 울려 퍼지는가
순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땡... 땡...
두 세월의 상봉을 력사가 기억하는구만

명언해설

《작가는 철학가가 되어야 하고 생활의 정력적인 탐구자가 되어야 하며 예술언어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에는 철학가가 되고 생활의 정력적인 탐구자가 되며 예술언어의 능수가 되는것이 작가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기량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밝혀 주는 철학적깊이가 있고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려면 작품창작의 주인인 작가 자신이 사상예술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한다. 작가는 무엇보다도 세계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진 철학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작품이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고 사람의 운명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위력한 무기를 안겨 줄수 있다.

작가는 또한 생활의 정력적인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 문학형상에 필요한 모든것은 생활속에 있다. 작가가 훌륭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진지하고 꾸준히 탐구하며 깊이 파고 들어야 한다. 작가는 또한 예술언어의 능수가 되어야 한다. 문학은 언어를 가지고 사람과 그 생활을 현실에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그려 내는 예술이다. 작가는 예술언어의 능수가 되어 자기 인민의 슬기와 재능에 의하여 창조된 민족어에 정통하고 새롭고 특색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찾아 내어 능숙하게 구사해야 참다운 민족문학을 창조해 낼수 있다.

흥미와 진실을 논하고 싶어

-중편소설 《교정의 룰리》를 놓고-

김려숙

흥미와 진실, 서로 다른 개념이면서도 작품감상에서는 언제나 하나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독자는 소설을 눈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며 책을 보는것이 아니라 현실생활을 읽는다. 현실의 인간과 생활을 그대로 보는것과 같은 진실감에 자석처럼 끌려 들어 가는 새로운 흥미가 엉켜 들어 소설은 읽히며 여운을 남긴다.

아직은 독자들속에 널리 알려 져 있지 않은데다 우리 문단에서도 별로 논의가 없는 중편소설 《교정의 룰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하고 싶어 펜을 들었다.

1. 인간문제는 어디에나 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예술적화목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중편소설 《교정의 룰리》는 어느 한 대학교원들의 생활을 기본으로 그리고 있는데 독자들속에서 일정한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시기 작가들속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면 작품화하기 힘든 대상이라고 생각해왔다. 지금 한창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작가들의 경우나 지금 한창 작가수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예외로 되지 않으며 소설가나 극작가, 영화문학작가 그리고 증견이나 신인이나 그 모두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인박힌 관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대학생활을 전면적으로 취급한 작품이 별로 없으며 한두편 있는 경우에도 자기의 뚜렷한 얼굴이 없어 사람들의 기억속에 없거나 희미한 정도이다. 혹시 성공했다고 하는 작품들을 보면 조국해방전쟁전이나 조국해방전쟁시기생활을 그린 작품들이고 현실주체 대학생활을 반영한 작품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물론 자신이 대학교단에 서 있는것만큼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원심을 쓰게 된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나온 중편소설 《교정의 룰리》를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공감이 컸으며 그럴수록 즉시에 이 문제부터 다시말하여 대학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문제가 있는가, 대학생활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기 힘들고 생활을 그리기가 어렵다는것은 창작가의 옳바른 자세와 립장이라고 볼수 없다는것을 말하고 싶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작품의 일정한 감화력을 동시에 인정한것이기도 하리라.

소설에는 대학교원들이 진행하는 강의와 학생지도, 자질향상, 학생실력평가 등과 같은 평범한 생활이 반영되어 있다.

소설은 이러한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사상과 지식, 도덕을 심어 주는 대학교정의 신성한 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하고도 의의 있는 문제, 현 시기 대학교육에서 나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 있다.

교단에 섰다고 하여 스승이 되는것은 아니며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여 제 구실을 하는것은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교육사상과 방침을 심장으로 받들줄 아는 교원만이 학생들의 참된 스승이 될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스승만이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실력가형의 일군들을 키워 낼수 있다.

소설은 이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조국의 미래를 락관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받은 교정에 차넘치게 하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 대학교정의 룰리라는 심오한 철학을 밝히고 있다.

교정의 룰리에 대한 의의 있는 인간문제의 탐구는 이 작품의 흥미와 진실성을 담보해 준다.

유춘이와 같이 높은 실력과 실적, 깨끗한 교육자적량심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참다운 교육자를 스승의 본보기로 내세우고 존경해야 하며 서한평과 같이 처세술이 능하고 눈가림식으로 교육을 대하며 제 낮대기나 하고 그릇된 인맥관계로 신성한 교정을 흐리게 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의 목소리와 생활의 진리가 새로운 의미로 심장깊이 파고 든다.

보라, 인간이 있으면 생활이 있고 생활이 있으면 그 어디에나 인간문제가 있다.

작가는 창작실천을 통하여 이것을 확증해 주었으며 기성의 낡은 관념에 경종을 울렸다.

새 세기에 새롭게 혁신되고 창조되는 우리의 벽찬 생활은 그 어디에서나 작가들을 기다린다. 인간문제가 있다고.

2. 형상의 본도와 묘사력

소설은 극적감흥속에 긴장하게 보아야 하고 거기서 될수록 많은것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형상 밀도와 그에 맞는 묘사력을 요구한다.

형상밀도는 하나의 장면에 담겨진 의미적색채가 뚜렷하면서도 그것이 다각적으로 중심깊이 묘사될수 있게 인물과 사건 등 형상적요소들이 집약화, 집중화될 때 비로소 보장된다.

형상밀도가 높아야 작품이 탄력 있고 무게 있으며 흥미 있게 읽힐수 있고 세부화된 생활화쪽들에서 형상적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실현할수 있다.

반대로 형상밀도가 약하면 작품은 늘어 지고 제기한 문제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해명을 줄수 없다.

중편소설 《교정의 료리》는 형상밀도를 최대한 높이고 묘사수준을 보장하였다.

작가가 교육사업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생활을 무리없이 중편의 그릇에 담아 낼수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도 이와 관련된다고 말할수 있다.

소설의 《4. 사죄》부분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여기서는 신성한 대학교정의 료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서 교원이 가져야 할 자세와 립장에 대한 문제를 다면적으로, 다각적으로 그려 낼수 있게 화폭의 밀도를 보장하였다.

박성혁(작품에서 《나》)이가 4점이었던 대학교무부학장의 딸 수희의 점수를 5점으로 고친것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서한평이 박성혁을 불러 수희가 교무부학장의 딸인데 얼마 안 있어 있게 될 최우등생대회에 참가시키기로 내정되어 있다는것, 그 별치 않은 점수 하나때문에 학생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대학간부들의 눈밖에 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견 강좌의 체면, 강좌교원들의 실력과 인간됨과도 관련된다고 하면서 수희의 성적을 5점으로 고치는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준다.

박성혁은 수희가 교무부학장의 딸인줄도 몰랐다. 실사 알았다고 하면 어떤가. 그러나 그는 역시 서한평의 그 권고에 《굴복》했다. 그렇게 해서 고쳐진 점수이다. 그런데 학부에 제시된 학생들의 시험성적란에 그 고쳐진 점수밑에 그 누군가가 검은 원주필로 연하게 물음표(?)를 그어놓았다. 무엇인가 많은 여지를 주는 형상이다.

유춘이는 이 사실을 알고 성혁이를 개별적으로 충고한다.

성혁이는 새 세대 교원으로서 그 일이 마음에 늘 맺혀 있었던지라 교원협의회가 열렸을 때 회의성격에도 맞지 않게 학생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한 자기 잘못을 사죄한다. 정말 쉽지 않은, 힘든 토론을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학학장과 교무부학장도 참가했었다.

교원들이 응성거린다. 각이한 반응일것이다.

그런 일도 모르고 있던 교무부학장은 이날 딸을 잘못 키운 자신을 비판하며 자기의 립장을 홀

륭하게 지켜준 성혁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한다. 교무부학장 역시 아름다운 일군이다.

썩 후날 성혁이가 성무원으로 일하는 수희를 만났을 때 그는 그때의 일을 감회깊이 추억하며 일을 하다가 이따금 편견에 섰다가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 인차 자신을 바로 잡는다고 뜻 있는 말을 한다.

참으로 교원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대로 제자들의 녀에 심어 진다는 형상적의미가 생동하게 안겨온다.

이렇듯 소설은 학생의 점수 하나와 관련한 문제를 교원들의 호상관계, 교원과 일군들의 관계, 교원과 제자들의 관계속에서 심화시켜 보여 주며 한 교원의 심리세계에서 일어 난 충격의 파문이 수많은 교원들의 심리에 굴절되고 그 여운이 어제와 오늘, 래일로 이어 저 나가게 형상적밀도를 보장하였다.

소설에서는 모든 장들과 장면들의 묘사가 이처럼 불 맛이 나는 깊이와 흥미를 주고 있다.

3. 기발한 착상

중편소설 《교정의 료리》는 기발한 착상으로 구성과 성격창조수법에서 종래 기성관념을 타파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이 소설인가 하는 혹평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기성관념에 의한 소설적인 구성이 아니라 세부와 일화들의 편결로 되어 있기때문이다.

이 소설은 일관한 사건선이 없으며 따라서 그 사건을 둘러 싸고 설정, 심화되는 인간관계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중요한것은 1인칭소설로서 신임교원인 《나》(박성혁)를 시점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눈으로 고요해 보이면서도 심각하고 복잡한 교원들의 생활을 펼치었다.

소설의 기본문제해명에 필요한 생활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보여 주는 방법으로 구성을 짜나감으로써 일관한 사건선이 없으면서도 주제를 뚜렷이 해명하고 있다. 인간관계도 작가가 제기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인물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게 하고 있다. 때문에 유순이와 서한평이 교육에 대한 립장과 자세가 상반되는것으로 하여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작품에서는 두 인물사이의 관계를 대립과 충돌의 관계, 갈등의 관계로 설정했을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두 인물을 맞세우지조차 않고 있다. 물론 강좌회의에서 유춘이가 서한평을 비판하는 한 대목이 있지만 작가는 객관적으로 유춘이가 어떻게 비판했다는것만 그렸지 그에 대응되는 서한평의 반응은 전혀 보여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두 인물의 서로 상반되는 사상관점과 사고방식, 일본새나 생활방식이 뚜렷이 안겨온다. 그들사이의 관계가 성격적충돌로 되지 않았지만 독자들은 현실에서의 긍정과 부정을 너무도 똑똑히 알게 되는것이다.

소설은 구성과 함께 성격창조수법에서도 특색 있다. 그것은 묘사로서 교정의 룰리라는 문제에 어울리게 유춘이와 서한평의 성격적풍모를 다양한 각도에서 대비대조시키면서 교원들의 본보기로 될수 있는 유춘이와 같은 성실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한껏 부각시키고 상반되는 서한평의 부정적면모를 긍정의 조명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

소설에서는 6개장에서 세번째 장인 《곰돌장》만 내놓고는 모두 유춘이와 서한평의 성격적대조에 모를 박고 다양한 생활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 주고 있다.

소설의 전반내용이 결국은 두 인물의 성격을 대비적으로 보여 줄수 있게 극적인 대조로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표기환의 운명대조, 아름다운 꽃과 거의 장속에 들어 박혀 있는 망치의 대조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생활대조들도 많다.

또한 소설에서는 꽃과 망치, 대학당비서가 자기의 옛 스승에게 가져 가는 곰돌장, 어린 시절의 유춘이가 설날에 담임선생에게 가져 가는 통강냉이, 수희의 시험점수말에 그어 진 물음표(?), 서한평이 누렇게 퇴색된 강의안을 새 종이에 옮겨베끼고 있는 세부 등 다양한 생활세부들이 의의있게 선택되어 구성의미를 돈구고 성격대조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4. 여운

《교정의 룰리》의 작가는 대학교원이다. 그는 교원으로서의 자기 생활을 작가의 눈으로 보았고 교원들과 학생들의 사상적지향과 내면심리세계,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작가의 심장으로 대하고 체험했다.

작가 자신이 대학생살의 직접적인 창조자이고 향유자이고 체험자이고 목격자이다. 하기에 대학

생활은 작가에게 있어서 너무도 잘 아는 친근한 생활이다. 그 생활이 그대로 화폭의 요소마다에 펼쳐져 있어 독자들에게 안겨 주는 여운 또한 큰것이다.

강의안을 작성하다가도 문득 서한평처럼 새로 보충하는 내용도 없이, 아무 의의도 없이 검열을 위해 깨끗하게 옮겨 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학생들의 시험기간에 낮 간지러운 부탁을 받았다. 순간 시험점수는 교원들이 필요한걸 낚아낼 때 리용하는 남시의 미끼가 아니라는 유춘의 말이 뇌리를 친다.

내가 담임했던 누구는 지금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혹시 표기환처럼 문제를 일으킬 일은 없겠는지 생각이 많다.

바로 이것이 소설의 여운일것이다. 여운이란 그 작품의 사상정서가 오래동안 독자와 함께 살아 숨쉬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학교원의 질을 높일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대학교원들과 학생들은 물론 모든 일군들도 학부형들도 모두 이 소설을 보면 교훈적인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주체교육의 전당에서 당일군도 행정일군도 과학자도 기술자도 문필가도 나온다.

그 누구나 소설에서 자기 몫을 찾아 보자.

물론 소설에서는 더 논의할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을 논의할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평자는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성과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에서 중편소설 《교정의 룰리》를 본 긍정적인 소감을 끝 맺으려 한다.

상식

콤팩트디스크의 발전성과

콤팩트디스크(CD)는 음성신호를 수자로 기록하는 원판으로서 축음기소리판을 대신하여 개발된 지 10년 남짓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음악뿐아니라 여러가지 영상을 기록하고 재현하는 가장 위력한 수단으로 되었으며 특히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그 생산과 보급은 하나의 산업부문과 거의 맞먹는 규모로 장성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년간 세계콤팩트디스크생산량은 한해에 20억매이상에 이르렀다.

콤팩트디스크발전에서 이룩된 최근성과는 그 기능이 더 다양해 지고 용량이 더 커진것이다.

첫째로, 콤팩트디스크에 기록된 자료를 지우고 다른 자료를 기억시킬수 있게 되었다.

콤팩트디스크는 지금까지 전자계산기에서 입력시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재현만 할수 있었다면 이제는 기억된 자료를 지우고 다른 자료를 기억할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콤팩트디스크의 기억용량이 훨씬 늘어나 음성뿐아니라 문자와 영상을 동시에 기억처리하는 다매체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움직이는 영상신호를 수자로 표시하려면 디스크용량이 음성신호를 처리할 때에 비하여 1,000배이상 커야 한다. 현재 영상압축기술을 받아 들여 디스크 한매로 74분정도 재현할수 있는 영상 콤팩트디스크들이 보급되고 있다.

삶의 노래

김형길

△ 때; 지금

△ 곳; 어느 탄광종합기업소에 자리 잡은 유색
금속연구소 연구실

△ 나오는 사람들

영희; 연구사(38세)

경숙; 영희의 동창생

수연; 영희의 연구조수. 경숙의 4촌동생(28세)

주진; 탄광로동자. 영희의 방조성원(63세)

소장; 연구소 소장

의사; 종양연구소 의사

△ 무대; 영희네 연구실. 무대 한편으로는 연구실 내부가 보이고 한쪽은 연구실앞 트락이다. 멀리 탄광의 전경이 바라보인다. 연구실안에는 간단한 분석기구들과 시험설비들이 있고 চে경과 옷걸이 등 살림비품들도 보인다. 어딘가 살림방과도 같은 감을 주는 연구실이다. 한쪽벽에 걸려 있는 기타가 이채롭게 보인다. 앞트락의 화단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다.

△ 음악과 함께 설화가 울린다.

설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은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한품에 안겨 시대의 영웅으로 보람찬 삶의 언덕에 높이 올라 선 한 여성과학자의 지난 생활과 그의 일신상에 있었던 잊지 못할 한토막의 이야기에서 우리 그 대답을 찾아 보자!》

△ 새들의 울음소리 울리는 속에 막이 열리면 연구실안에서 수연이 색 날은 수첩을 읽기에 여념이 없다. 그앞의 책상우에는 낡은 시험일지들이 쌓여 있다.

수연; (보던 수첩을 덮으며)... 그러니 우리 연구사동지에게두 애인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아직도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까?... (다시 수첩을 펼쳐 본다.)

△ 작업복차림의 주진 문을 열고 들어 선다.

수연 놀라며 급히 보던 수첩을 감춘다.

주진; 왜 그렇게 놀라오?

수연; 아이, 아바이군요. 난 우리 연구사동지가 오시는줄 알구...

주진; 왜? 연구사에게 무슨 죄되는 일이라두 했었나?

수연; 아바이두... 죄는 무슨...

주진; (책상우의 일지들을 보며) 옛날 시험일지들이구만?

수연; 네. 이제 보름후에 전국탄광부민 기술혁신 발표회가 열린다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 연구사동지가 연구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서 지난 날 시험자료들을 좀...

주진; 그러니 이젠 전국의 탄광들에 영희연구사가 연구한 종합채탄기전기점점들이 도입되겠구만!

수연; 그럼요. 석탄생산이 전국적으로 1.5배는 올라 갈거라구들 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회에서 연구사동지의 연구발표는 곧 박사학위공개심의로 될거라는 말도 있어요!

주진; 음! ... (감회깊이) 그 말썽 많던 종합채탄기전기점점을 해결하겠다고 영희연구사가 여기 우리 탄광에 와서 꽃 같은 처녀시절을 다 바쳐가면서 10여년세월 고생도 많았지! 현대 이젠 이렇게 성공을 하구 박사두 된다니 정말 기쁜 일일세! ... 연구소에서두 이젠 여기 일을 빨리 마무리하구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단지?

수연; 예. 어제 소장동지한테서 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연구사동지두 오늘 점점 1,000회 가동시험만 끝내면 철수하겠다고 했어요.

주진; 섭섭하게 됐는걸... (사진 한장을 꺼내며) 수연이, 이 사진을 좀 보게나.

수연; (보며) 이게 누구예요?

주진; 그만하면 괜찮지? 영희연구사 마음에 들까?

수연; 네? 그럼 우리 연구사동지의?... 호호호...

주진; 왜? 그 사람두 대학졸업생이구 한다하는 기술일군이야. 나이가 좀 많은게 흠이지만 그건 오히려 영희연구사에게 맞춤형거구. 안그래?

수연; 호호호. 아바이두...

주진; 웃을 일이 아니요.

수연; 아바이, 우리 연구사동지에겐요 이미 마음속에 정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애인이!... 알겠어요?

주진; 뭐?... 모르는 소리...

수연; 아바이인 그렇게 오래동안 우리 연구사동지 일을 도와 주셨다면요 그런것도 모르고 계시겠군요?

주진; 허, 그럼 내 또 헛수고를 했나? 너의 연구사의 술 석잔 받아 마시기가 조련치 않구나. 허허...

수연; 호호호...

△ 이때 체소한 몸집의 영희 무거운 배낭을 지고 트락에 들어 서다가 연구실창문을 연다.

영희; (들여다보며)웃음소리가 높은걸 보니 오늘 시험결과가 좋을것 같군요.

수연; 아이, 연구사동지!

주진; 왔구만!

△수연과 주진 급히 트랙으로 나온다.

주진; (배낭을 받아 내리며) 뭘 이렇게 지고 다니오?

영희; 동림광산선광장부산물이에요. 앞으로 전기접점을 현지에서 생산보장하는 경우 원자재로 쓸수 없을가 해서...

수연; 어마나, 그러니 선광장까지 올라 갔겠군요?!

주진; 원, 근 100리길을 이 무거운걸 가지고 오다니!... 어서 들어 가서 좀 쉬시우.

△그들 안으로 들어 온다.

영희; (물을 따라 마시며) 그런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수연; 주진아바이가 글썽 이 사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겠어요. 연구사동지의 약혼술을 마시고 싶으시디나요? 호호호...

영희; 그래?!... (책상위에 놓여 있는 사진에 얼핏 눈길을 주었다가) 또 이런 수고를 하셨군요.

주진; 이젠 막상 떠난다고 하니 자네 일이 마음에 걸려서...

영희; 제 말하지 않았어요? 더는 저때문에 이리데 마음 쓰시지 말아 달라구...

수연; 보세요. 아바이, 제 말이 맞지요? 우리 연구사동지에겐 이미 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시를 읊듯이)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삶의 스승! 영원한 애인!...

영희; 수연이!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수연; 어마나... (그제야 자신의 실언을 깨달은듯 정색을 하며) 연구사동지, 용서하세요. 이번 발표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난 시험일지들을 보다가 연구사동지의 이 일기장을... (색날은 수첩을 내민다.)

영희; ... (서글픈 낯색으로 말없이 일기장을 받는다.)

수연; (영희의 기색을 살피며) 제가 잘못했나요? 이 일기장에 적혀 있는 김철호라는분은?...

주진; (흠칫 놀라며) 뭐? 철호?! ... 영희연구사! 그러니 아직두 그 애를?!...

영희; (주진의 시선을 피하며) 수연이! 네가 본게 맞아. 그분은... 그분은... (말끝을 잇지 못한다.)

수연; 저... 그런데 지금 그분은 어데 있어요?

영희; ...

주진; 음... (피로온듯 창밖을 보고 있다가) 내 시험막장엘 가봐야겠수다. 이젠 1,000회 가동시편이 나올 시간이... (나간다.)

영희; 수연이, 그새 다른 일은 없었어?

수연; 평양에서 연구사동지를 급히 찾는다고 빨리 철수하라는 소장동지의 전화가 또 왔었어요.

영희; 알겠어.

수연; 저두 시험막장에 가보겠어요. (나가다가) 참 깜빡 잊었됐군요. 3일전에 평양중앙연구소에서 이곳 탄광당위원회로 전화가 왔됐대

요.

영희; 뭐?!... (긴장해 지며) 왜?...

수연; 다른 말은 없구. 연구사동지가 현재 여기에 있는가 하는것만 확인하더래요.

영희; ... 그래?...

수연; 그럼 전... (나간다.)

영희; (지친듯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불안스레) 무엇때문일가? 평양에서 급히?... 중앙연구소?... 그럼 끝내 중앙연구소에서의 검사결과가?...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 (머리를 흔들며) 아니, 아니야.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 (갑자기 얼굴을 찌프리며 앞가슴에 손을 댄다.) 그런데 이 뜨끔거리는 아픔은 왜 멎지 않을까? 제발 무사했으면... (조용히 눈을 감는다.)

-사이-

△트랙의 나무에서 울리는 새소리.

이윽고 려행가방을 든 경숙이 트랙으로 들어선다. 세련된 옷차림의 중년부인이다.

경숙; (연구실문을 열며) 여기에 금속연구소에서 나와 있는?...

영희; (반기며) 아니 이게 누구야? 경숙이!

경숙; 영희!...

△두사람 손을 맞잡고 돌아 가며 기쁘게 상봉한다.

영희;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에 나타났니?

경숙; (려행용가방을 열며) 자, 이 단지안에겐 닭곰이구 이건 토봉꿀이야.

영희; 이건 뭘... 야, 너무 이리면 내 이제 이 신세를 어떻게 다 갚겠니?

경숙; 별소리 다 하는구나. 참 우리 수연이두 잘 있겠지?

영희; 그럼. 지금 학사학위론문을 준비해. 이번 채탄기전기점점연구에서 한몫 단단히 했으니까.

경숙; 다 네가 도와 준 덕이겠지. (영희를 의자에 앉히며) 어디 좀 자세히 보자.

영희; (의자에 앉은채 경숙을 정겨운 눈길로 보며) 넌 이젠 중년부인티가 다 잡혔구나!

경숙; 애, 너 우리 나이가 지금 얼마지 아니? 래일모래면 40이야.

영희; 그래!... 졸업식을 마치구 통남산에 올라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직한 과학자가 되자구 맹세 다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5년세월이 흘렀어!...

경숙; 그 동안 너야 정말 큰 일을 하지 않았니? 우리 과학기술통보사에서 돌아 가는 말을 들어 보니 너의 이번 연구성과가 크게 평가될것 같더구나! 난 요즘 금속연구소 한영희연구사의 동창생이란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 호호...

영희; 경숙이, 제발 너까지 그러지마. 난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새삼스레 인사하구 축하하구

하는게 딱 질색이야. 마치 갑자기 새로운 한 영희라도 발견한것처럼 말이야.

경숙; 하긴 사람들이 훨씬 전에 벌써 너를 알아 봤어야지. 네가 다 해진 숨동화를 친구 구멍 뚫린 배낭을 지고 추위에 떨면서 다닐 때, 그 시절에 벌써 너를 알아 보구 받들어 줘야지... 안그래?

영희; 난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야. 나를 마치 이젠 한생의 목적을 다 달성한듯이, 이젠 지고 있던 큰짐을 말끔히 털어 놓은 사람처럼 보고 대하는게 기분 나쁘다는거야... 난 이제부터 시작이야. 더 큰 목적과 지향을 안고 자신을 불태우고 싶어.

경숙; 이 욕심쟁이 같은거! ... (손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놓으며) 자, 네가 부탁했던 경질합금과 관련한 최근자료들이야. (준다.)

영희; (받으며) 잊지 않았됐구나. 경숙이! 고맙다!

경숙; 애, 자꾸 그러지마. 새삼스럽구나. 네가 지금까지 10여년세월 그 잦은 평양출장길에 야밤에두 우리 집문을 두드리며 들어 설 때 내 언제한번 너한테서 그런 인사 받자 하던?

영희; ... (어느덧 자료에 심취된다.)

경숙; ... (생각깊은 눈길로 영희를 지켜 본다.)
-사이-

영희; (이윽고 자료묶음을 던지듯 책상우에 놓으며) 흥, 마치 저희들만이 첨단기술을 소유하고 있는듯이 으시됐구나.

경숙; 왜? 별로 참고할게 없니?

영희; (깊은 사색에 잠기며) 그러니 이 경질합금 연구역시 우리 식으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소리야. ... 경숙이, 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연구과제를 이걸로 세울려고 해. 어때?

경숙; 뭐?! 아니,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그 연구과제를 또 받아 안겠다는거야?

영희; 내가 채 못하면 수연이가 인계 받아 해줄거야!

경숙; 우리 수연이가? 그랜 그런 큰 일을 못해. 영희, 사실 내 이번 이렇게 급히 널 찾아온 건 그 애 문제를 놓고 좀 토론할 일이 생겨서야.

영희; 그래? 무슨 일이게?...

경숙; 그 애 나이가 이젠 얼마냐? 스물여덟이란 다.

영희; 벌써 그렇게 됐니?

경숙; 넌 정말 너무하구나. 데리고 있는 조수의 나이도 모르구...

영희; 그래 내가 무관심했어.

경숙; (영희의 기색을 살피며) 네앞에서 이런 얘길 꺼내서 안됐지만 그 애에게 마침 좋은 대상자가 나타났어.

영희; 그래?! 거참 잘됐구나! 어데 있는 사람이게?

경숙; 저 유럽의 어느 한 나라 대사관 기술참사

로 있어. 지금껏 수연이 같은 금속전문가를 찾았나?

영희; 그래?... 그러니 수연인 앞으로 전문연구사업은 못하겠구나...

경숙; 어찌겠니? 너자란 그렇지 뭐. ... 우리 철이 아버지가 너의 소장동지에게 전화로 부탁했더니 반송낙을 하더라는구나.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연구사만 동의한다면 수연일 놓아 주겠다고 했다는구나.

영희; (서운한 기색으로) 그렇다면야 뭐...

경숙; 반대 없지?

영희; 내가 뭐 반대하구말구 할게 있니? 시집 갈 나이가 다 된 처년데... 그런데 난 그 길이 수연의 한생에 과연 기쁨을 주겠는지 하는게 걱정이구나.

경숙; 원, 별 걱정을 다하는구나.

영희; 아니야. 수연의 그 재능이 아까워서 그래... 과연 그애에게 좋은 일일가?

경숙; 허지만 영희, 수연이 문제를 놓고 우린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어. 그 대상자와 하루이틀내에 꼭 만나서 초보적인 합의를 봐야 할 급한 일이 제기됐어.

영희; 그럼 오늘 당장 데리고 가자는거겠구나?

경숙; 어때? 가능할가?...

영희; ... 이제 조금 있으면 전기점점 1,000회가 동시험결과가 나오는데 그것만 이상이 없으면 우린 여기서 완전히 철수할 결심이야.

경숙; 그래?!... 그럼 난 믿겠다.

△수연 급히 들어 온다.

수연; 연구사동지, 연구소쪽으로 가는 자동차를 부탁했었나요?

영희; 그래. (배낭을 가리키며) 저걸 보내서 분석 두 해봐야겠구 또 점점시편들을 먼저 올려 보내자구...

수연; 지금 차편이 생겼다나봐요. 운수직장장동지가 연구사동지를 찾아요.

영희; 알겠어. 수연이, 언니가 왔어.

수연; (그제야 경숙을 보고) 아이, 언니!...

경숙; 수고하는구나!

△영희 배낭을 들고 나간다.

수연; 언니, 어떻게 여길 다?...

경숙; 애, 잘난 너때문에 나만 고생한다. 너 먼저 번엔 그게 뭐냐? 그날 사람을 데려다놓고 밤 늦게까지 널 기다리다가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나 하니? 아저씨가 지금 단단히 버르신다.

수연; 갑자기 차편이 생겨서 미처 알려지도 못하구... 정말 미안하게 됐어요.

경숙; 됐다. 오늘은 널 데리고 가야겠다. 그 사람이 이틀후에 대상국으로 떠난다.

수연; 언니, 그런데 난 어찌면 좋아요?

경숙; 뭐냐?

수연; 전 벌써 다음번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준비를 연구사동지와 함께 시작했는걸요. 말하자

면 공동연구를...

경숙; 뭐?! ... 야 지금 영희가 또 새로 시작하겠다는 경질합금이라는데 어떤건지 너 알거나 하니?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이 제일 발전했다는 한두 나라에서만 독점하고 있는 특허기술 제품이야. 넌 거기에 끼워서는 안돼. 두말 말고 이번은 내가 시키는대로 하거라.

수연; 언니!...

경숙; 됐다. 이제 영희도 이번 접점연구나 결속하군 더는 너를 붙잡구 있을 처지가 못될거다.

수연; 예?...

경숙; 내 오늘 여기 와서 듣자니 뭐 너의 연구사를 평양에서 급히 부른다면서?...

수연; 예, 어제도 소장동지한테서 전화가...

경숙; 하긴 그만큼 고생했으니 이제 영희도 좀 락을 볼 때가 됐지. 이제 어느 중앙연구기관으로 소환도 되구 그러느라면 차차 알맞춤한 흔처두 나타날거구. 이제 인생말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될거다.

수연; 그럴가요?

경숙; 이제야 당당하지. ...그러나 영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것을 희생해 가면서 과학탐구를 했어. 수연인 그런 아슬아슬한 인생길을 걸어선 안돼.

△이때 접점시편을 든 주진 급히 들어 온다.

주진; 수연이, 연구사동무가 어데 있소?

수연; 방금 자동차편을 알아 보러 나갔는데요?

주진; 자동차는 지금 당장 떠나겠다는데... 어데 갔을가? 야단났군. (나가려다.)

수연; 무슨 일이에요?

주진; 이걸 좀 보라구. (접점시편들을 내놓으며) 글썄 더러 이런것들이 섞였구만.

수연; (보며) 어마나!... 이걸 왜 이렇게 됐을가요?

주진; 글썄 말이요.... 내 어쩐지 시험막장에 지내 악조건을 만든다 생각되더라니까. 하여간 연구사에게 보여봐야지.

경숙; (무슨 생각을 한듯 급히)저... 아바이, 저 좀 보자요.... 전 영희동무의 동창생이예요. 저도 한때 이런 유색금속연구전문가로도 일했구요.

주진; 예. 그런가요?

경숙; 제 생각에는 영희동무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최대의 악조건을 조성하구 이 시험을 진행한것 같은데 이만하면 접점재료에는 본질적인 약점이 없는걸로 보는데요?...

주진; 글썄 말이웁다. 우리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숙; 아바이! 이렇게 하면 어떨가요? 이 불량접점들은 영희동무에게 보이지 말구 깨끗한것들만 골라서 연구소에 올려 보내는게?...

수연; 언니, 그렇게야 어떻게?...

경숙; 넌 좀 가만 있거라. (주진에게) 우리 영희

연구사를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지금껏 고생해 온 그에게 이제 행운이 차례지는것 같은데 이 몇개 되지 않는 접점들때문에 또 그의 발목을 잡아 데순 없지 않나요?

주진; 예! ... 하긴 이쯤한거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레 기대를 운전하면 일 없겠지요. 그렇게 합시다!

수연; 아바이! 정말 일 없을가요?

△밖에서 재촉하듯 울리는 화물자동차의 경적소리

주진; ... (결심한듯) 일 없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지. 자, 어서 포장해서 차에 싣자구.

△수연 마지막에 포장용지함을 가져 온다.

△포장한 접점지함을 맞들고 주진과 경숙 급히 나간다.

△수연이 불안한 심정으로 골라 내놓은 불량접점들을 치울 때 영희 급히 들어 온다.

영희; 수연이, 접점시편들이 나왔는지?

수연; (당황해 하며) 네...

영희; 어디 좀 보자.

수연; 별로 이상이 없기에 방금 포장해서 차에...

영희; 그래, 모든 접점들의 면이 균일하게 닳았던?

수연; 그런것... 같어요.

영희; (주머니에서 접점 몇개를 꺼내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된거냐? 아바이가 운전공에게 몇개 떼구고 간걸 가져 왔다.

수연; 저... 사실은 그렇게 몇개 섞여 있는걸 벌일 없을것 같아서 깨끗한것들만 방금 차에...

영희; 뭐라구? 너 정신이 있니? 빨리 차를 세우구 접점을 내려라. 어서...

수연; 연구사동지! 소장동지가 오늘은 연구사동지를 꼭...

영희; 우리가 철수하는건 급하지 않아. 이제 전국에 도입되게 되는 조건에서 최악의 조건에서도 조금이라두 미흡한데가 있어서는 안된다구 내 얼마나 말했니?

수연; 연구사동지!

△밖에서 화물차 떠나는 소리

영희; (급히 창문을 열며)여보세요! 차를 세우세요!

△영희 급히 밖으로 달려나가려 할 때 경숙이 들어 선다.

경숙; (막아서며)영희! 차는 이미 떠났어.

영희; 안돼. 저게 연구소에 가면 우리 일은 완전히 결속된것으로 우에 보고될거야. 수연이, 어서 정문에 전화를 걸어. 어서... (수연이 움직이지 못하자 달려 가 급히 송수화기를 든다.) 정문... 정문을 주세요.

경숙; (다가서며) 영희, 너 어떻게 하자구 그러니?

영희; 저 접점들을 보낼수 없어!

경숙; 영희! 좀 침착히 생각해 봐. 넌 지금 별치

많은 문제를 가지구 지금껏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며칠 안 있어 연구발표가 있다지? 평양에서 급히 찾는다고 벌써 몇번 연락이 왔다는데 그래 이 기회를 또 놓치겠다는거냐?

영희; 그건 나하구 아무 상관도 없어. 난 점점을 책임져야 해. 점점을... (다시 수화기를 든다.)

경숙; (수화기를 잡으며 안타까이)영희, 제발 고집부리지 마. 자신을 위해서 그리구 이 동창생과 우리 수연일 생각해서...

영희; 뭐?! 오, 그래서였구나!... (경숙을 피로운 눈길로 이윽도록 지켜 보다가)저리 비켜라! (송수화기를 든다.) 정문이에요? 제 연구소 영희입니다. 화물차 236호를 좀 세워 주세요. ... 뭐라구요? 통과해나갔다고요?... 알겠어요. ... (맥없이 송수화기를 놓다가 앞가슴을 부여쳐며 쓰러지듯이 의자에 주저앉는다.)

수연; 연구사동지?!... (급히 달려가 부축하며) 왜 그러세요?

영희; 일없어. 별일 아니야... 수연이, 난 수연일 자신처럼 믿었댔다. 그런데... 분하구나. 네가 어떻게 이럴수 있니?

수연; 연구사동지! 제가... 제가 잘못했어요!

△좁전에 주진 들어 와 있다.

주진; 영희연구사, 수연일 너무 나무람 마시우. 실은 내가...

영희; ...수연이, 연구소에 전보를 쳐야겠어. ... 《점점시편을 취소하고 1,000회가동시험을 다시 진행한다. 당분간 소환을 연기해 달라.》...

수연; 연구사동지?!

주진; 아니, 그럼 또 한달을?...

영희; (생각 깊은 눈길로 주진을 보며) 전 오늘 어쩐지 철호동무생각이 나는군요. 그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했을가 하는...

주진; 음... (말없이 외면한다.)

영희; 이제 우리 연구성과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고되면 장군님께선 석탄생산에서 애를 먹이던 중요한 고리가 하나 풀렸다고 무척 기뻐 하실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게 또 말썽을 일군다는 보고가 올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수 없어요! 절대로!... 우린 장군님께 완벽한 연구성과만을 보고드려야 하구 그걸 위해선 생명까지 기꺼이 바칠 각오를 가지구 탐구하구 또 탐구해야 해요! 전 철호동무가 저에게 안겨 주고 간 그 진정을 한순간도 저버릴수 없어요!

주진; 음! ... 내 영희연구사의 그 심정을 미처 다 몰랐댔어! 날 용서하시우!

영희; 고마워요! 수고스러운대로 막장에 다시 최적시험조건을 조성해 주셔야겠어요.

주진; 알겠수다.

영희; 수연인 빨리 전보를 치구...

수연; 예!...

△수연과 주진 나간다.

△영희 창가에 다가선채 말이 없는 경숙을 이윽도록 지켜 본다.

-사이-

영희; 경숙이, 안됐구나.

경숙; 난 그럼 그냥 돌아가야겠구나?...

영희; ... 경숙이! 솔직히 말하면 난 수연일 놓아주고 싶지 않구나. 수연인 우리 당에서 품들여 대학공부까지 시킨 새 세대과학자야. 우리에겐 그 애를 과학탐구의 길에서 물러서게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경숙; 허지만 영희! 우리 수연인 이젠 행복한 삶의 보금자리를 가져야 할 나이야. 한 가정의 안해로, 어머니로서 말이야! ... 넌 물론 이런 심정과 생활을 전혀 이해못할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또 그럴 권리도 없구... (나가려다.)

영희; 경숙이!...

△나가던 경숙 문가에 멎어 선다. 이윽도록 말없이 마주보는 두사람... 어느덧 영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이윽도록 영희를 마주보던 경숙이 입고 있던 부인용세타를 벗어 들고 다가온다.

경숙; (세타를 영희의 어깨에 걸쳐주며)자, ... 너에게도 이제 이 부인용세타가 어울려. 이번 평양으로 갈 땐 이걸 입고 가려무나.

영희; ...

경숙; 그러구 이번 우리 집으로 올 땐 좋은 대상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내 이제 수연일 좀 만나야겠어.

△경숙이 나간다. 트랙을 나서던 경숙 발길이 떨어 지지 않는듯 창문가로 다가서더니 방안을 들여다 본다.

영희; (이윽도록 굳어진듯 서있다가 세타의 목깃을 여미며 거울앞으로 다가선다.) 부인?!... 경숙아! 나두 녀성이야. 나두 한 가정의 안해로, 너의 철이 같은 귀여운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심정을 가진 녀성이란 말이야!... (얼굴을 싸쥐고 어깨를 들먹인다.)

△경숙이 못 볼것을 본듯 달려 나간다.

△이윽고 영희 벽에 걸린 기타를 벗겨 든다.

영희; 철호동무!...

△영희 걱정을 안고 기타를 타며 조용히 노래를 부른다.

생이란 흐르는 불과도 같은것

내 인생 한줄기 흐린 물 되랴

내 인생 천줄기 맑은 물 되리

한굽이 흘러도 티없이 살자

천굽이 흘러도 깨끗이 살자

△음악이 높아 진다. 높아 지는 음악과 함께 밖에서 들려 오는 까치들의 울음소리.

영희; (창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까치가 우는걸 보니 기쁜 소식이라두 울려나?... (자연의 향

취에 한껏 심취되어)야! 완전한 봄날이구나!... 사람이 살아서 마음껏 삶을 즐긴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거야! 마음껏 과학탐구를 한다는건 또 얼마나 보람찬 일이구나!...

△이때 길게 울리는 전화종소리.

영희; (받는다.) 예. 제 연구소 한영희예요. 아, 탄광당비서동지세요? ... 네, 오늘 아침차로 도착했습니다.... 예?... 평양에서 중앙연구소 과장선생이 저때문에 내려 오셨다고요?! 우리 소장동지ですよ? 예... 예... 알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송수화기를 놓는다.) 과장선생이 오셨다? ... 아, 그러니 끝내... (안타까이 방안을 서성대며) 어쩌면 좋담? 어쩌면?... 아직 할 일이 많고 많은데 이 일을 어쩌담?... (서성대다가 우뚝 멈춰 서며) 가만, 내가 이러고만 있을새 없지...

△영희 급히 서류장을 열더니 무슨 자료묶음을 꺼내 놓는다. 수첩의것을 옮겨 써 넣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서둘러 자료들을 보충한다.

△이윽고 수연이 들어 선다.

영희; (여전히 서류에 눈길을 준채)전보 쳤어?

수연; 예... 연구사동지, 아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영희; (수연일 정겨운 눈길로 보며) 여기 좀 앉아. 언닐 만났겠니?

수연; 예...

영희; 수연이, 이제 곧 준비해 가지구 언니와 함께 떠나.

수연; 네? 떠나다니요?

영희; 수연이, 너 이젠 시집을 가야지?

수연; 어마나. 호호호... 연구사동진 갑자기...

영희; 애, 웃지 마. 난 이러다가 네가 정말 나처럼 혼기를 놓치게 될가봐 걱정이야.

수연; 아이. 연구사동지야 애인이 계시지 않나요? 꼭 결혼을 하구 가정을 이뤄야만 할가요? 뭐, 나도 이제...

영희; 아니야. 난 시집두 가구 귀여운 아이들도 낳아 키워야 해. 하지만 어디로 가도 과학탐구의 길에서만은 떠나지 말아 줘. 부탁이야!

수연; (영희를 감동어린 눈길로 보며) 걱정 마세요. 가긴 어디로 간다구 그러세요? 연구사동지! 전 우리 연구소가 좋아요!

영희; 뭐? ... 그러니 수연인 연구소를 떠나지 않겠다는거냐?

수연; 떠나다니요? 연구소를 떠나 저에게 무슨 삶의 보람이 있겠어요?

영희; 그제... 그제 진심이나?

수연; 연구사동지두... 난 연구사동지와 절대루 갈라 지지 않겠어요!

영희; 수연아! (와락 그리안으며) 고맙다! 고마워!...

수연; 언닐 몹시 서운해 하면서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 언니도 이제 꼭 저의 심정을 이해해 줄거예요.

영희; 그래. 이해하구말구... (자료묶음을 수연이 앞에 놓으며) 이젠 경질합금연구를 위한 보충자료야. 만약 내가 없는 경우라도 이 자료들을 잘 참고해서 합금연구에 적용해 봐야 할것 같애.

수연; 알겠어요! (영희의 기색을 살피며) 그러니 연구사동진 이번 평양으로 올라가시면 정말 다른데로 소환?...

영희; 원, 애두... 무슨 당치 않은 소리냐? 혹시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기에 하는 소리야.

수연; 네...

영희; (급히 벽에 걸린 안전모와 작업복을 걸치며) 주진아바인 지금 막장에 계시겠지?

수연; 예.

영희; 그럼 내 막장엘 좀 가봐야겠어. 어디서 찾거든 인차 온다구 해줘.

△영희 급히 나가려 할 때 음식구력을 든 경숙이 들어 온다.

영희; 경숙이가?... 아직 떠나지 않았니?

경숙; 암만해두 발걸음이 떨어 지지 않는구나. 영희, 오늘은 내 너와 함께 여기서 하루밤 묵어야 할가 봐. 일없지?...

영희; !... 경숙이! 고맙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것 같구나. 지금 떠나줘.

△영희 경숙의 눈길을 피하며 달려 나간다.

경숙; (수연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냐?

수연; 아니, 아무 일두... 그런데 좀 이상해요.

경숙; 암만해두 내 아까 영희의 아픈데를 지내 건드린것 같구나.

수연; 보라요. 내 뭐했어요.

경숙; 됐다. 그래서 내 이렇게 다시 오지 않았니? 그앤 내 심정을 이해한다.

△이때 소장 들어오고 뒤편 의사 들어 온다.

수연; 소장동지! 안녕하십니까?

소장; 수고하오! 영희연구사동문 어데 있소?

수연; 방금 시험막장엘...

소장; 막장에?!... 인사하오. (의사를 가리키며) 중앙연구소에서 오신 선생이요.

수연; 예? 중앙연구소에서?!...

소장; (의사에게) 한영희연구사동무의 조수입니다. 2년째 함께 일하지요. 수연동무, 얼른 가서 영희동물 데려 와야겠소.

수연; 예... (나가려다.)

의사; 가만, 조수동무에게 좀 물어 봅시다. 곁에서 보기에 요즘 한영희연구사동무의 건강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연; 지내 무리해서 그런지 무척 수척해 졌습니다.

의사; 음... 무리해서만이 아닐겁니다. 혹시 가슴 부위의 아픔에 대해서는 더러 호소하지 않던가요?

수연; 예. 요즘엔 자주 오른쪽앞가슴을 손으로 누르면서 아픔을 참는걸...

의사; 그래요?! ... (소장을 보며)예견했던바대루 병세는 매우 악화된것 같군요.

소장; (락심하여) 허참, 야단이군요.

경숙; (불안한 심정을 겨우 억제하며) 의사선생님, 전 영희연구사와 동창생이구 형제간처럼 가까이 지내는 사입니다. 무슨 병인지?...

의사; 그래요? 그렇다면 동무들에게도 책임이 있군요. 한영희연구사동무에게는 이미 두달전에 우리 중앙연구소에서 유선암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경숙; 뭐라고요?!... 그게... 그게 정말입니까?

수연; 어마나... 유선암이라니요?!

경숙; 그러니 평양에서 급히 찾는다든지 그것때문에?...

의사; 그렇습니다. 기능한껏 속히 치료를 받아야겠기에 본인에게도 사실대로 얘길 해주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독촉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입니까? 벌써 두달이나 경과했습니다.

소장; 허참, 무슨 동무가 그런지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

의사; 의료기관의 요구에 제때에 응하지 않은 본인의 불찰로 해서 이젠 완전히 위험계선에 이른것 같군요.

소장; 수연동무, 어서...

수연; 예...

△수연 급히 나가려 할 때 영희 들어 오고 뒤따라 주진 들어 온다.

수연; 연구사동지!... (와락 달려 가 영희의 품에 안기며)너무 해요. 어찌면... 어찌면 그럴수 있어요? 네? 그런 몸으로 지금껏...(운다.)

영희; 수연이... 뭘 그래, 울지 마. (의사에게) 파장선생님! 이렇게 수고스러운 걸음을 하시게 해서...

의사; 수고합니다! (손을 잡으며)헌데 보건일군으로서 단단히 추궁해야겠습니다. 그때 일주일 후에 다시 들리라는 병원의 지시는 왜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구 벌써 며칠전부터 연구소에서 소환지시를 떨쳤다는데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겁니까? 예?...

영희; 저... 좀 급한 일들이...

의사; 일?... 일이라... 허참 동문 적지 않은 지식인인데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아니, 운명이란다고 합시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군요.

영희; ...

의사; 암만 기다려야 제발로 찾아 올 동무가 아닌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시계를 본다.)

소장; 영희동무, 어서 떠날 준비를 하시오.

영희; (의사에게)선생님! 저... 저에게 한달만 더 시간을 주실수 없을까요?

의사; 뭐라고요?!... 동문 지금 무슨 소릴 하는거요? 지금 동무의 병상태가 어느 계선에 이르렀는지 알거나 합니까?!

영희; 방금 탄광당비서동지한테서 다 들었습니다.

의사; 뭐요?! 그런데도? ... 그러니 연구사동문 이젠 녀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마쳐도 좋다는 거겠습니까?!...

영희; ...

의사; 어디 대답해 보시오! 녀성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잃겠는가 아니면 이제라도 빨리 우리의 요구에 응하겠는가?...

영희; ...

△밖에서 울리는 승용차의 경적소리.

의사; (시계를 보며)자, 시간이 없습니다. 떠납시다. (나가려다.)

영희; ... (여전히 굳어 진듯 움직이지 못한다.)

의사; (나가다가) 아직도 결심이 안됐는가요?

수연; 연구사동지! 어서...

경숙; 영희,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마. 우선 치료를 받구 봐야지?...

소장; (엄하게)영희동무, 어서...

영희; 소장동지! 이제 보름후엔 탄광부문 기술혁신발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점점연구가 발표돼야 전국의 탄광들에 도입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미흡한데가 있다는걸 알구야 어떻게... 의사선생님! (절절하게) 그럼 저에게 단 열흘이라도...

의사; (안타까이) 연구사동무! 동무예겐 지금 단 하루의 여유도 없습니다. 단 하루의...

영희; (결심한듯 단호히)좋아요! 그렇다면 전 지금 당장은 치료에 응할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달후에나...

의사; 뭐라고요?... 그때는 동무에게 절제수술을 적용할수밖에 없이 된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동문 영원히 녀성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영희; 선생님! 저예겐 과학탐구를 계속할수 있는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의사; 그래요?! ... 허참. 동무 같은 녀성은 보다 처음이군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가방에서 한장의 서류를 꺼내며) 여기에 수표를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적기치료를 거부했다는 환자측의 담보서입니다.

영희; ... (말없이 서류를 받아 본다.)

의사; 거기에는 담편이나 시컨부모되는 사람들의 수표가 있어야 합니다.

영희; 네?!...

의사; (소장을 보며)듣자니 연구사동문 아직 미혼

이라지요?

소장; 허참...

영희; ...

-사이-

△이윽도록 말없이 서있던 영희 결심을 한듯 주진이앞으로 다가간다.

영희; 저... 철호동무 아버지! 여기에 수표를 좀 해주세요.

주진; 뭐?! 내가?... 내가 어떻게?...

영희; 철호동무 아버지! (주머니에서 시민증을 꺼내며) 절 용서해 주세요. 토론도 없이 전 철호동무와 이렇게... (보인다.)

주진; (증명서를 보고 놀라며)아니?! 그럼 자넨?... 소장어른! 이걸 좀 보시우! (준다.)

소장; (보며)아니, 영희동무! 그러니 동문... 동문 결혼등록을 했구만?!

의사; (보며)이 김철호란 누군데요?

주진; 인민군대 대대정치지도원을 하던 내 아들에 있지오다! 장군님령을 받들구 석탄생산을 도우려 구분대와 함께 탄광에 왔던 그 애는 이 영희연구사가 막장에서 제일 힘겨운 시험을 하던중 뜻하지 않는 사고로 사경에 처했을 때 연구사를 구원하구 생명을 바쳤지요! 그후부터 이 영희연구사는 우리 아들을 잊지 못하구 이렇게...

영희; (깊은 감회에 잠기며) 전 아직도 생명의 마지막순간에 철호동무가 저에게 하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음악과 함께 무대 어두워 진다.

영희의 소리; 철호동무! 정신을 차리세요! 정신을...

철호의 소리; 영희! 울지 마오. 내 비록 짧은 한생을 살고 가지만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올릴 귀중한 과학자를 구원했으니 여한이 없소!

영희의 소리; 철호동무, 눈을 뜨세요. 눈을... 동문 죽어선 안돼요!

철호의 소리; 난 죽지 않소. 우리 장군님을 위한 전사의 희생은 영원한 삶이요!... 영원한 삶이요!

△높아 지는 음악과 함께 철호의 목소리 세차게 메아리치는 속에 무대 밝아 진다.

영희; (눈물을 머금고)그인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이란 어떤것인가를 실천으로 가르쳐준 저의 삶의 스승이였구 생명의 은인이였어요! 전 한생 그이를 심장속에 간직하구 그이와 함께 살며 탐구의 길을 걷고 또 걸으리라 결심했어요!

주진; 영희야!

영희; 아버지!

△영희 주진의 품에 안긴다.

△음악과 함께 방창이 울린다.

생이란 한그루 나무와 같은것

내 인생 눈비를 이겨 내면

내 인생 꽃 피고 열매 맺으리

눈바람 세차도 뿌리는 깊이

비바람 세차도 가지는 끝

참다운 생은 탐구로 남고

뜻 있는 생은 조국에 남으리

△방창속에 주진 문건에 수표한다.

△영희 문건을 의사에게 준다.

의사; (받으며) 연구사동무!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군요.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영희동무의 안전한 생명담보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겠으니 마음 놓고 과학탐구에 전념해 주십시오!

영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경숙; 영희! 넌... 넌 어찌면!...

영희; 경숙이, 수연이 결심대로 하게 해줘! 지금 이 시각도 위대한 장군님께선 우리 과학자들을 크게 믿으시구 강성대국건설을 위하여 수천리 최전연 초소의 험한 논두렁길들을 걷고 계셔! 우리 그이결에서 늘 그이와 함께 걷는 심정으로 살며 일해 가자꾸나! 대학졸업식때 룡남산마루에서 다지던 그 맹세대루 말이야!

경숙; 영희! 알겠어. 난 너와 함께라면 우리 수연이두 꼭 장군님께 기쁨을 올리는 훌륭한 과학자로 삶을 빛내일수 있으리라구 믿어!

영희; 경숙이! 고마워!... 소장동지! 저희들은 이제부터 전기점점 1,000회 가동시험을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구 저희들의 다음번 연구과제는 경질합금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소장; 알겠소! 알겠소!

영희; (의사에게)선생님! 정말 안됐습니다. 변변치 못한 저때문에 자꾸 수고를 끼쳐서... 제 이제 꼭 선생님의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다녀 가십시오.

△애 써 웃는 얼굴로 말하던 영희 울음을 삼키며 나간다.

수연; 연구사동지!... (따라 나간다.)

경숙; (책상위에 놓여 있는 세타를 부여 안으며)영희!...

△경숙의 귀전을 때리며 올리는 영희의 목소리 《나도 녀성이야! 나도 한 가정의 안해로, 귀여운 너의 철이와 같은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심정을 가진 녀성이란 말이야!...》

△음악이 높아 진다.

△경숙 흐느끼며 달려 나간다.

의사; 허, 정말 불 같은 녀성이군요!

주진; 예! 지금껏 정말 불길같이 자신을 태워왔지요! 그러다나니 이제 녀성으로서의 영희는

영영 사라졌군요!

소장; 하지만 이제 한영희동무는 과학자로서 더
빛나고 보람찬 한생을 보내게 될겁니다!

주진; 그럼요. 그는 이제 우리 탄광은 물론 온 나
라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사랑스러운 안해
로, 소중한 머느리로 영원히 간직될거외다!

소장; 네!

의사; !...

△ 음악과 함께 설화가 울린다.

《그렇다! 그후 우리의 주인공 녀성과학자는 위
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한품에 안겨 온 나라의 사
랑을 받는 시대의 영웅으로, 박사로 자라났으며
오늘도 나라의 전자공업을 최첨단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필요한 특수합금연구개발을 위하여 과
학탐구의 보람찬 한길을 마음껏 활보하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의 노래-수령
결사옹위의 노래를 높이 부르고 있다!》

-막이 내린다-

벌목공의 목소리

박희구

기계톱을 메고
어허 벌목공의 활무대
새 벌구에 들어 서니
기다린듯 반겨 설레이는
정다운 나무들아

하늘에 닿을듯 펼쳐 든
네 푸른 가지 사이사이
줄줄이 흘러 내리는 해살
억만 잎새를 울려
내 마음의 금선이 울리고...

이마의 땀을 시원히
날려 보내는 산바람
가슴 부풀도록 들이키는 산
향기
너희들이 주는것 아니나

이 나무 저 나무
너무도 정겨워
너무도 대견스러워
쫓아 보며 둘러 도면
나와 한숨결로 설레이는 밀
림아

이 산상에서 다 보이누나
21세기 하늘가에
솟아 오르는 공장들과 살림
집들이
네 밀림속에서 다 들리누나

통나무를 부르는 조국의 목소
리가

푸르청청 설레이는
밀림의 산악을 안고
강성대국앞에 내가 서 있다
기계톱날엔 불바람 일고
통나무풍년의 노래소리
훨훨 새무리 날리며 울려 퍼
진다

들끓는 산판
네 밀림의 거세찬 설레임소
리를
한몸에 다 견어 안고
장대목을 베어 넘기는
기계톱소리 기계톱소리
강철의 메아리어

가슴 몽클해라 이 말 못하는
나무도
조국에 자기를 바치는 그 한순
간을 맞자고
오랜 세월 모진 눈비에도
굽힐줄 몰라 꺾일줄 몰라
받아 안은 해빛을
해해년년 제 몸에 고이 새겨
감아 울리며
이렇듯 곳곳이 아름답드리 거목
으로 자랐거니

드디어 걱정의 시각은 와
벌목공은 웨치노라
《넘어 간다-》
그러면 푸른 가지 벌려
얼짜 땅을 그려안고 텅굴며
쿵! 쿵! 산판을 진동하는 나
무야

아, 장대한 몸 통채로
조국에 내맡기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너는
뿔뿔이 세상에 보이는구나
돌기돌기 또렷한 성장의 년륜
을!

이럴 때면 오, 벌목공 나는
울울창창한 천만그루 네 밀림
을 안고
태양을 향해 일어 서는 산이
되어
가슴 헤쳐 고백하노니
조국이어 그대앞에
내 이 나무처럼 살리라
바치는 나이로만 살아 온
심산의 이 나무처럼, 나무처럼!
찌렁- 찌렁-
하늘땅 멀리 메아리쳐 가라
내 가슴 터치는 기계톱소리여!
벌목공의 심장의 목소리여!

옥계천물소리

홍철진

전쟁의 포성은 평온하던 옥계리벌도 흔들여 놓았다. 사람도 땅도 급작스레 놀래운 주체39(1950)년 6월이었다.

옥계리인민위원회 앞마당에서는 전선으로 떠나갈 옥계리남정들이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다.

《잘 있으라》, 《잘 싸우라》는 등 뜨거운 말들이 오고 가는 속에 작별인사는 고조를 이루었다. 리서기장과 팔팔한 호송군관이 대렬을 정돈시켰다.

하나와 같이 바지저고리차림새들이다. 차렷이란 해본적 없는 알쭉한 농사군들이다.

하지만 이제 군복만 척 입혀 놓으면 끝끝한 조선인민군병사들이었다.

상위견장을 단 호송군관이 위엄 있게 앞에 나섰다.

조각가의 손에 다듬어 진듯 한 날이 선 코가 유묘하게 눈에 띄었다.

《동무들은 이제 군에 가서 군복을 타입고 곧바로 전선으로 떠나게 됩니다. 침략자와의 판가리 싸움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 때는 왔습니다. 이 시각부터 동무들은 군인들입니다. 그러자면 명령체계에 움직이는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국놈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것입니다. 아주머니와 아이들앞에서 울러 메던 습관은 이 시각부터 싹 버려야 합니다.》

호송군관이 손까지 획 저으며 마지막말에 력점을 찍자 장내에 둘러 선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와-》 하고 웃어 댔다.

이번에는 호송군관이 쟁쟁한 목소리로 《차렷》하고 소리치자 탄원대렬은 제법 턱까지 쳐들고 바지피춤에 두손을 딱 붙이며 자기들의 절도 있는 위풍을 시위하였다.

자기나름의 서툰 차렷이었지만 옥계리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희한한 광경이어서 《히야-》 하는 탄성이 일시에 튀어 나왔다.

호송군관이 서기장에게 한마디 할것을 권유했다. 선줄에 잡힌 서기장은 우직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헛기침을 몇번 하더니만 대렬앞에 나섰다.

《에- 동무들은 우리 마을의 첫 인민군대로서 옥계리의 자랑이며 경사입니다. 에- 동무들은 이제 고향을 떠나 전선으로 가게 됩니다. 전선으로

가게 되면 에- 한마디로 우리 옥계리 망신시켜선 안되겠다는거요.》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내인들속에서 누군가 《무슨 말주변이 저렇게두 없담.》 하는 반죽 좋은 소리에 웃음화살들이 언저퍼 서기장에게 날아 가 박혔다.

서기장의 얼굴이 수수지짐처럼 벌개 졌다.

때마침 호송군관이 《대렬 나란히-》 하는 구령으로 《궁지》에 빠진 그를 구원해 주었다.

이어 대렬점검이 시작되었다.

호송군관이 명단을 번지며 이름을 부르자 탄원자들은 승벽내기로 씩씩하게 대답했다.

안해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더 우쭐해 지는 남자들이었다.

기운차던 대답소리는 송기덕이라는 이름뒤에 와서 툭 끊어 졌다.

《송기덕... 송기덕동무 안 왔습니까?》

호송군관이 거퍼 물어 봐서야 얌전하게 생긴 젊은 녀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주춤하며 나섰다.

《저... 저...》

《동문 누굽니까?》하고 호송군관이 의아해 하자 머리에 수건을 쓴 뚱보녀인이 푸쩍 좋게 대꾸했다.

《그 녀잔 기덕아저씨 색시예요. 머리 올린지 반년밖에 안됐다니까요.》

말 못하면 참지 못하는 성미들이라 녀인들은 또 맞장구를 쳤다.

《미국놈만 아니면 지금 한창 깨가 쏟아 질텐데...》

《그 거렁배 같은 놈들은 새각시 태기 가질 짬도 안 준다니까...》

《핫하하.》

서기장이 밍지 않은 눈을 힐끔거렸다.

《다사하기란... 새각시가 태기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안담.》

그 말에 녀인들은 더 배를 그러쥐었다.

《어마...》 젊은 새각시는 부끄러워 어쩔줄 몰라 했다.

명천에서 시집 와 마을에서 《명천색시》라고 불리우는 분녀였다.

호송군관이 다우쳐 물었다.

《기덕동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녀는 더듬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저... 그이가... 지금 취해서... 집에...》

분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기장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취하다니? 기덕이야 술 한잔 입에 못 대는 사람이 아니요?》

《거 무슨 소린지 좀 정확히 말하오. 통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구만.》

서기장은 줄지물 퍼내듯 연거퍼 물어 보았다.

분녀는 고개를 수그린채 저고리고름끝만 쥐여 뜯었다.

…전선으로 떠나는 기덕이를 위해 분녀는 있는 성의를 다해 상을 마련하였다.

기덕이 좋아 하는 순두부며 찰떡 그리고 김이 문문나는 통닭까지 소반우에 올렸다.

망질과 절구질로 꼬박 밤을 새운 분녀였다.

하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리워 웃고름으로 그 몇번 눈굽을 찍었는지 모른다.

허나 가야만 했던 전장용사였고 웃으며 떠나보내야 했던 정든 님이었다.

분녀는 소반옆에 목이 긴 소주병도 반쳐 놓았다. 송기덕은 영문을 몰라 분녀를 쳐다보았다.

《여, 나 술 못하는거 알잖아?》

《그래두 조금이라도 해요. 대추집할머니가 그러는데 전장 떠나는 남정들에겐 꼭 술을 대접해야 한대어요.》

《그것두 그런가.》 기덕은 신기한듯 이리저리 술병을 어루만졌다.

맹물과 별로 차이가 있는것 같지 않은 이 병속에 남자의 권리 비슷한것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 신기해 보였다.

분녀는 보시기에 반병가량되게 술을 채웠다.

송기덕은 눈을 꼭 감고 술을 기울였다.

그러나 몇모금 못 넘기고 껍뻑하며 술이 담긴 보시기를 내리우고 말았다.

눈물까지 찔끔 흘린 기덕이가 우스웠던지 분녀는 얼굴을 돌리고 살며시 입을 싸쥐었다.

기덕은 분녀에게 줄장부로 보인것만 같아 애써 태연하려 했지만 어그러진 량미간은 좀처럼 퍼지질 않았다.

역시 술은 쓴물이였다.

그래도 그는 또다시 술공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진짜 대장부임을 보이고 싶었다. 남자들에게 똑같이 차례진 권리가 자기에게도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그러다 일 없겠어요?》

분녀는 걱정어린 눈으로 기덕이를 바라보았다.

《사내대장부가 요즘한 술도 못 먹을가?》

기덕은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다 내쉬더니 꼴딱꼴딱 보시기의 술을 단숨에 요정냈다.

얼굴이 화끈 달아 오르고 맥박이 빨라 진다.

눈까풀은 무겁게 내려 누르고 분녀곁에는 또

다른 분녀가 앉아 있다.

집안은 망돌처럼 빙빙 돌아 갔다.

기분이 둥 떠지는게 참 이상했다.

왜 그런지 오늘은 분녀의 노래도 딱 한마디 듣고 싶었다.

《에그, 누굴 망신시키자구…》 분녀는 불에 덴듯이 화닥닥 놀라했다.

《우리 두… 둘뿐인데 망신은 또… 무슨 망신… 떠나기 전에 하… 한마디 듣구와 그래…》

송기덕의 간절한 의사는 더듬거리는 속에 겨우 전달되였다.

깔끔하게 고개를 수그리고 앉아 발을 감싼 치마폭을 꼭꼭 누르던 분녀는 혹시 이 부탁마저 안들어 주면 전선으로 떠나는 송기덕의 마음이 무거워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쳤다.

쑥스럽기는 해도 분녀는 일어 섰다.

인민주권 받들고 나가는 녀성들아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
공장의 녀성도 농촌의 녀성도
가슴마다 불 타는 애국심 품고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두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

흥에 겨워 손바닥으로 밥상을 두드리던 송기덕은 노래가 끝나자 혼자이기는 하나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잘하누만, 그… 그럼 나두 한마디 부… 불러봐?》 송기덕은 비칠하며 일어 섰다.

분녀는 또다시 웃었다.

아마 땅처럼 무던하고 어진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는게 우스운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백두산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빼꾸기 빼꾸빼꾸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 나 발같이 가세

《난 왜 그런지 이 노래가 제일 좋두만.》

송기덕은 절로 눈물이 글썽해 졌다.

땅의 주인으로 살아 온 꿈 같은 5년간, 생각만 해도 눈물이 글썽한 그 5년간을 품에 안고 송기덕은 그만 잠들어 버렸다.

떠날 시간이 되여 분녀가 기덕이를 흔들여 깨웠으나 종내 깨여 나지 못했다.…

《군사재판이라는게 뭔지 알아? 총살이야, 총살-》 서기장은 누구에게라없이 소리쳤다.

넓은 불편이 푸들푸들 떨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분녀의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맺혔다.
자기때문에 화를 당할 남편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다.

분녀는 애원에 찬 목소리로 사정했다.
《저… 그이는 안 마시겠다는걸 제가… 후후.》
풀썩풀썩 담배모금을 들이 빨던 서기장은 부아
가 치밀어 올라 안절부절 못했다.

《먹을줄도 모르는 술을 퍼먹이는 놈이나 그걸
쫄쫄 받아 먹는놈이나 다 같고 같지. 그놈 지금
집에 있소?... 이 시라소니 같은 놈을 그저...》 서
기장은 일이라도 칠듯 기덕의 집쪽으로 냅다 달
려갔다.

멀어 지는 서기장의 뒤모습을 사람들은 근심어
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때로부터 3년이 흘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마을의 집들마다 주인들이 푹푹거리며 전쟁의
먼지를 털어 내는 소리가 어디서나 울렸다.

팔소매를 걷어 올린 아낙네들이 띄처럼 빛은
흙을 철썩철썩 산자벽에 쥐여 붙이며 남편 맛을
준비에 성수가 났다. 그러다가도 누군가 어느 집
몇째가 돌아 온다고 소리 지르면 하던 일을 썰
개치고 아이들과 함께 와르르 대문밖으로 뛰쳐
나가는 전승을 맞이한 이 나라의 가슴 벅찬 여름
이었다.

매-매-
옥계천 버들가지에서 귀 따갑게 울어 대는 자
지러진 매미울음소리였다.

그러거나말거나 옥계천은 자연이 정해 준 흐름
을 따라 어제와도 그러했듯이 여전히 주절대며 흐
른다.

어깨에 배낭을 멘 군복 입은 한 사나이가 옥계
천에 이르렀다.

고향으로 돌아 오는 송기덕이었다.
송기덕은 배낭을 벗어 던지고 옥계천 맑은 물
에 두손을 잠그었다.

전쟁은 겪었지만 조금도 달라 지지 않은 고향
의 체취였다.

무정한 시내물도 고향사람의 체온은 알아 보는
듯 송기덕의 손목에 어리광치며 매달리다가는 자
기의 흐름을 따라 또다시 흘러 간다.

송기덕은 옥계천 맑은 물에 비낀 자기 모습을
새삼스레 바라보았다.

영웅메달이 물속에서 얼른거린다.
소나 끝던 농사꾼이 가슴에 영웅메달을 단것이
어쩐지 어색하게만 생각되었다.

더우기는 이 옥계천이 아니었다면 영웅은커녕
도피분자로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송기덕
은 고마운 고향의 물을 한웅큼 두손에 받쳐 들었
다.

3년전 추억이 어제런듯 눈앞에 생생했다.
...술에 취한 송기덕을 업고 달려 가는 서기장
의 목덜미로는 땀이 비 오듯 줄줄 흘렀다.

송기덕의 처진 팔이 서기장의 어깨에서 흔들거
렸다. 서기장은 헉헉-하며 가쁜 숨을 들이켰다.
가다가는 고쳐 업고, 고쳐 업고는 또 달리고...
《뒤 안 보고 죽은 놈처럼 무겁기는젠장.》

서기장은 늘어 뜨린 송기덕의 팔에 땀을 문지
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뒤로는 분녀가 숨차게 따라 섰다.
따라 가면서도 분녀는 불안했다. 저 허우대 큰
사람이 이제 어찌자는걸까? 깨여 나지 못한 우
리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길 가던 나그네들이 걸음을 멈추고 분녀네를
바라보았다.

한 나그네는 분녀를 붙들고 물어 보기까지 하
였다.

《어디 크게 다쳤소?》
분녀는 얼굴이 뜨거워 났다. 그는 아무 응대없
이 서기장의 뒤를 덤덤히 쫓아 갔다.

옥계천에 이르자 분녀는 더욱 긴장해 졌다.
이제 이 돌다리만 넘어 서면 멀지 않은 곳에
군보안서가 자리 잡고 있다. 혹시?...
벌써 서기장은 침병침병 물을 차며 옥계천에
들어 섰다.

물 한가운데서 서기장은 갑자기 멈춰 서더니
업고 있는 송기덕을 팔자루 메치듯 물속에 처넣
는 것이었다.

분녀는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었다.
어푸-어푸 송기덕은 기겁을 하며 발버둥쳤다.
일어 섰다가는 비칠하며 물속에 어푸러졌다.

《이거 왜 이래? 누구야?》
송기덕은 본능적으로 마구 소리 질렀다.
한참만에야 정신을 차린 송기덕은 자기앞에 서
기장이 서 있음을 알아 보았다.

도무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서기장아저씨,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서기장은 물참봉이 된 송기덕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소리쳤다.

《이놈아,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네가 무슨 죄
를 지었는지 알기나 알아?》

《아니 죄라니?... 아, 군대...》
송기덕은 그제서야 지금이 전쟁이라는걸 깨달
았다. 그는 물이 푹푹 흐르는 머리카락을 움켜
쥐며 물속에 풀썩 주저 앉고 말았다.

《당장 일어 서지 못해-》
서기장의 버락 같은 고향소리에 송기덕은 엉거
주춤 일어 섰다.

서슬 퍼래 진 서기장의 기상에 송기덕은 기가
눌려 머리를 들지 못했다.

《이놈아, 술 반병에 너부러져 고향 망신 시켜. 야-송기덕이, 너 옥계리가 그렇게 만문해 보여.》

서기장은 송기덕의 두어깨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다. 그럴 때마다 송기덕의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들이 튀면서 서기장의 얼굴에 뿌려 졌다.

《예익, 아나네 치마끈보다도 못한놈 같으니, 썩 사라지지 못해, 당장 가란 말이야.》

《아니? 어디루...》

《몰라서 물어?》 서기장은 액 소리 질렀다.

《예... 예. 내 당장 떠나겠어요.》

송기덕은 침방거리며 큰 길을 향해 냅다 달려갔다. 《이보세요-》 하는 분녀의 목소리가 다급히 송기덕을 뒤따랐다.

그러나 분녀의 목소리도 송기덕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한시바삐 서기장의 시야에서 벗어 나려는듯 송기덕은 죽기내기로 옥계천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작별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멀어 지는 송기덕을 분녀는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서기장의 입나팔소리가 울렸다.

《이놈아- 큰 길로 해서야 언제 따라 잡아? 개암골로 질러 가란 말야.-》

서기장의 목소리를 가려 들었는지 송기덕은 방향을 꺾어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송기덕은 목단추를 풀어 헤치고 얼굴에 마구 물을 끼얹었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넉적 엎드려 물을 들이키기 시작했다.

다 마셔도 성차지 않을 고향의 물이었다.

송기덕은 군복앞자락이 젖어 드는줄도 몰랐다.

영웅메달이 물에 잠기는줄도 몰랐다.

《이크》 하며 송기덕이 별뿔 일어 섰을 때는 군복자락이 젖을대로 젖은 뒤였다.

영웅메달에 맑은 물방울이 또글또글 맺혔다.

옥계천물이 먼저 먼저 본 고향사람의 영웅메달이었다.

송기덕은 영웅메달을 달고 마을에 들어 서는것이 어쩐지 어색하게만 생각되어 영웅메달을 떼어 약속에 건사하였다.

그저 3년전 그때처럼 침방거리며 옥계천을 건너고 싶었다.

어느새 배낭을 둘러 멘 송기덕은 와락와락 물을 차며 옥계천에 들어 섰다.

마을어귀에서 아이들이 먼저 송기덕을 알아 보고 지긋게 따라 다녔다.

동네 늙은이들은 옥계리에 룡이 났다고 기쁨에 넘쳐 반겨 맞아 주었다.

송기덕의 집앞에 이르러 동네 어른들은 철딱서니없이 물어 다니는 아이들을 닭무리 쫓듯 발을 굴러 엄포를 놓고는 저녁에 다시 오겠노라며 자리를 피했다.

조금도 지체해서는 아니될 감격적인 상봉이 앞

에 있음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송기덕은 선뜻 들어 설념을 못했다. 새로 지은 것으로 보아 본래 집은 폭격에 없어 진것이 분명했다.

하기야 전쟁인데, 더우기 홀로 이 집을 지켰을 분녀의 수고가 헤아려 졌다.

송기덕이 대문 열고 들어 서자 개 한마리가 킁 킁 짖어 댔다. 이 집의 옛 주인임을 알리 없는 개였다. 제법 제집 맛이 나는게 송기덕은 하냥 좋았다. 송기덕에게는 개 짖는 소리마저 고향의 정서처럼 느껴 졌다.

개 짖는 소리에 부엌문을 열고 나오던 분녀는 《어마-》 하고 그 자리에 굳어 저 버렸다. 송기덕은 분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그새 잘 있었어.》 하고는 다음말을 고르지 못해 갑자르기만 하였다.

분녀도 기덕에게 손을 맡긴채 《수고하셨습니다.》 하고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망설이기만 하였다.

달아 난줄 알았던 조무래기들이 바자툼과 대문 째므로 기를 쓰고 들어다 본다.

송기덕은 전쟁이 아니라 마치 발일 갔다 돌아온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기만 하였다.

《참 이 정신 좀 봐.》 분녀는 부리나케 방안으로 뛰어 들어 갔다.

좀 있더니 어린 아이를 들푹 안고 나오는것이였다. 《그앤 누구데...》 송기덕은 벙글썩 웃으며 아이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들은 송기덕이 낫 선지라 분녀의 치마자락을 꼭 붙들고 겁에 질린 눈으로 뵈히 쳐다보았다.

《거기 아이예요. 그러구 내...》 분녀는 다음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붉히였다.

송기덕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그게 정말이야?》

《그것두 거짓말할가?》

송기덕은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이 애가 내 아들이라니? 하, 내가 이젠 아버지가 되다니?...

송기덕은 아들을 공중에 버쩍 추켜 들었다가 와락 그러 안았다.

《애가 몇살이야? 이름은 또 뭐구?》

송기덕은 정신없이 물어 보았다.

《3살이에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이름이 없다니?...》

《아버지없이 이름을 짓나 뭐?》

분녀는 고개를 숙이며 흘러 내리지도 않는 머리카락을 공연히 쓸어 넘겼다.

《그렇지, 아버지 없이야 이름 못 짓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온게 아냐.》

송기덕은 영웅이라기보다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치고 온 아버지라는것이 더 가깝게 생각되었다.

《시장하시겠네. 내 얼른 밥을 지을게요.》 분녀는 부리나케 부엌으로 들어 갔다.

송기덕은 굳이 말리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다 새삼스럽고 좋기만 하였다.

아들애를 안고 방안에 들어 선 송기덕은 마라초삼지를 꺼내들고 두툼하게 한대 붙여 물었다.

마라초연기는 늑실늑실 방안을 떠돌며 그간 비였던 남정네의 표적을 잠간사이에 남겨 놓았다.

둘러 보아야 나무집짝 하나에 그우에 올려 놓은 이불 한채가 전부이다.

그러나 그우에는 해바라기 뜨개이불보가 씌워져 있었다. 분명 분녀의 솜씨였다.

새 생활은 이렇게 숨 쉬고 있었다. 송기덕은 가슴이 몽클하여 이불보를 어루만졌다.

이때 아들이 그우에 올려 달라고 졸라 댔다.

아마 분녀가 아들을 늘 여기에 올려 앉혔을 것이다.

송기덕은 아들을 뉘름 들어 이불우에 앉혔다.

아들애는 말우에라도 올라 탄듯이 깔깔 웃어댔다. 아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 송기덕은 눈물이 다 펴 돌았다.

영 메마른줄 알았던 자기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었다는것이 한편 놀랍게만 생각되었다.

(아낙네들처럼 이게 뭐람, 젠장)

전쟁이라는데 참 이상했다. 잃어 버리는게 전쟁이라고들 하지만 자기에겐 무엇인가 더 많아진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농사밖에 모르던 자기 같은게 영웅이 됐지, 또 분녀가 아들까지 낳아 줬지. 송기덕은 이 전쟁에서 자기에겐 되려 《재산》이 불어 났다고 생각되었다.

분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 섰다.

《바빠 하다나니 설 익었는지도 모르겠네.》

분녀가 밥사발뚜껑을 벗기자 눈덩이 같은 밥이 더운 김을 피워 올렸다.

이때 방문이 벌럭 열리며 서기장이 헐레벌떡 들어 섰다.

《송기덕이 왔다면서-》

《서기장아저씨.》

그들은 어느새 한몸이 됐다.

《이놈아, 오록이 그렇게 시퍼래 가지고 왜 편지 한장 안 썼어?》

《뭐 써져 나게 쓸게 있어야지요.》

《쓸게 없으면 없다구래두 써야 할게 아냐. 집사람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알아?》

《그것두 그런가...》

《이게 영웅이 맞긴 맞아? 그런데 영웅메달 어디 갔어?》

서기장의 눈이 갑자기 커졌다.

《달구 오다 생각해 보니... 그래서 배낭에...》

《이렇게 어저 빠졌다가야. 내가 뭐 죽지 않고 살아 온 송기덕일 보자구 군에서부터 뛰어 온줄

알아? 영웅메달을 만져 보자구 왔지. 잔말 말고 어서 달래두.》

서기장의 옥-성미에 송기덕은 배낭에서 영웅메달을 꺼내달았다.

서기장은 또 한번 혀를 찼다.

《히야, 암만 봐두 우리 마을 송기덕이 아니야. 분명 판 송기덕이야. 아이엄마, 안 그렇소?》

분녀는 어쭙게 웃었다.

송기덕은 어색한지 뒤통수에 손을 가져 갔다.

《농사군이 농사군이겠지 판 사람이라는건 또 뭐요.》

분녀는 얼른 밥 한그릇을 더 가지고 들어 왔다. 서기장은 대변에 사양했다.

《영웅이 왔는데 서기장이 가만 있으면야 안되지. 오늘은 맘껏 취해 보자구. 오늘은 업고 땔 놔두 없을테니까. 흐하하.》

서기장은 부러 소리내며 웃었다.

분녀가 서기장을 붙들었다.

《서기장아저씨, 집에 술이 있어요. 어서 나왔으세요.》

서기장이 기덕이와 상을 마주하자 분녀는 께짝 안에서 보자기에 썬 꾸레미를 꺼내놓았다.

조심스레 보자기의 매듭을 풀자 술병과 보시기가 드러났다.

송기덕은 찬찬히 술병을 들여다 보았다. 분명 3년전에 채 마시지 못한 반병술이었다.

마개도 3년전 강녕이송치가 틀림 없었다.

《이게 어떻게 아직도 있단.》 송기덕은 신기한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분녀는 제껴 아들의 손에 술병을 쥐여 주었다.

《자, 아버지에게 어서 술을 붓자.》

분녀는 아들의 손을 겹싸고 그날처럼 보시기에 나머지술을 부었다.

못다 준 사랑을 오늘은 아들과 함께 마저 붓는 분녀였다.

쪼르륵- 하고 술 붓는 소리가 송기덕의 가슴을 파고 들었다.

이날을 바라고 이 나라의 남정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것이 아니랴.

서기장이 오히려 더 흡족해 했다.

《영웅이 되어 척 술을 받는다- 괜찮단 말이야.》

서기장은 자기 눈곱이 별스레 축축해 움을 알았다.

《기덕이, 어서 들라우. 3년동안 자넌 기다린 술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송기덕은 가슴이 찢히듯 해 왔다.

이 술 반병이 그렇게 귀했던 말인가.

송기덕은 떨리는 손으로 술이 담긴 보시기를 들었다. 찰랑거리는 요 술속에 조국해방전쟁 3년

간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술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 어찌 술만이라. 그것은 자기를 기다린 분녀였고 아들이었으며 고향 옥계리였다.

송기덕은 자기도 모르게 영웅메달에 손이 갔다.

옥계리가 받아야 할 영웅메달을 자기가 달고 있는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분녀가 기덕이 앞에 음식그릇을 당겨 주며 말했다.

《어서 들어요. 그리구 에이름이나 빨리 지어 줘요. 3년동안 이름도 없이 산 앤데...》

송기덕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보시기를 기울였다. 한방울도 흘리지 말아야 할 술이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때처럼 또 맥박이 빨라 진다.

이때 분녀가 이 기쁜 날 노래 한마디 부르겠다며 일어 섰다. 송기덕은 또다시 놀랐다.

술은 분명 3년전 그 술이었지만 분녀는 3년전의 분녀가 아니었다.

그대가 집에 없던 지난 봄에도
춘기와종 먼저 하려 바빴더랬죠
원췌의 포탄자리 메운 곳에도
탐스럽게 조이삭이 패여 났어요

...

서기장은 기덕의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어깨까지 으쓱이며 밥상을 두드렸다.

송기덕은 생각이 많아 졌다. 자기가 지켰다고만 생각되던 이 사랑을 분녀도 함께 고수한것이였다.

전쟁은 남정들만 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연 미치였다.

송기덕은 분녀의 노래에 목소리를 합쳤다.

나라의 자랑인 우리의 영웅을
그대로야 점찍해 어찌 만나나

눈까풀이 내려 감기는걸 겨우 참고 있던 송기

덕은 군복을 입은채로 벌렁 눕고 말았다.

술에 취했고 정에 취했고 승리에 취했다.

송기덕의 곁에는 전쟁 3년간이 담겨 저 있는 빈 술병이 함께 누워 있었다.

서기장은 품아 떨어 진 기덕이를 보며 껄껄 웃기만 하였다.

조금만 행복해도 눈물에 젖고 저이상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박한 인간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미국놈들을 이긴것이다.

《색시의 자그마한 사랑에도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웅이 된지 모르겠단 말이야.》

서기장은 웃었지만 목소리는 젖었다.

사랑을 누리는데서는 졸장부인 송기덕이 그 사랑을 지키는데서는 대장부로 돌아 온것이다.

아들애가 잠 든 아버지앞에 다가갔더니 가슴에 단 영웅메달에 손을 뻗쳤다.

번쩍번쩍한게 제일 눈에 띄운 모양이었다.

분녀는 송기덕의 머리맡에 베개를 고여 주며 그의 이마에 난 상처자리를 쓸어 만졌다.

흠물에 튼 손이 상처자리를 어루만질 때마다 송기덕의 이마에 맑은 물방울이 툭툭 맺혔다.

분녀는 웃으며 눈굽을 훔쳤다.

《이렇게 잠이 들면 어찌나. 아이에게 이름도 달아 주지 않고...》

송기덕은 요란스레 코를 킁갔다.

드르렁 푸-

《지금 한창 이름을 짓고 있는중일게야.》하며 서기장은 소리내어 웃었다.

분녀도 따라 웃었다.

하나 그들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송기덕이 코를 끌며 숨을 들이쉬고 내 쉴 때마다 가슴에 단 영웅메달이 함께 호홉하며 오르내렸다.

옥계천이 흐른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줄기로 흐른다. 많은 사연을 속삭이며 오늘도 끝없이 흐르고 흐른다.

가사

우리의 땀

김승범

창조에 바쳐 진 우리의 땀은
내 나라 부강을 안아 온다네
아낌없이 바치자 귀중한 땀을
조국앞에 땀땀한 공지가 되게

오늘에 바치는 우리의 땀은
래일의 부흥강국 초석이 되리

아낌없이 바치자 귀중한 땀을
후대앞에 땀땀한 자랑이 되게

불멸할 시대의 기념비에는
값 높은 우리 땀 어려 있어라
우리가 흘린 땀 이 땅에 꽃 피
사랑하는 내 조국은 번영하리라

생활적인 시에 대한 소감

-잡지 《조선문학》 주체90(2001)년 상반기에 발표된 시들을 두고-

리동성

새 세기의 문턱을 넘어 반년이 흘렀다. 우리 시인들의 발걸음도 달라 졌다.

혁신적인 안목, 진취적인 일본새, 높은 실력! 새 세기의 첫 아침에 당이 제시한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시인들은 분과 초를 쪼개가며 고심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선군시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붉은기시대를 정확히 그리고 민감하게 반영하면서도 독자들이 즐겨 읽을수 있는 감미로우면서도 아름답고 흥그러우면서도 인상 깊은 작품을 창작할것인가. 초점을 여기에 걸었다. 그리고 심신을 불 태웠다. 악의 없는 승벽도 다투면서... 드디어 열매가 맺혀 지기 시작했다. 알차면서도 향기가 짙은 다시말하여 시대가 안겨 오고 생활도 있는 그런 열매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정책적인 대가 바로 서고 작가의 사상적의도가 좋은 경우에도 형상이 진실하지 못한 작품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아무리 시대정신이 옳게 반영되고 작가의 사상적의도가 좋은 경우에도 형상이 진실하지 못하고 감칠맛이 없으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작가 리원우는 글에는 세가지 맛이 있다고 하였다. 읽을 맛, 들을 맛, 쓸 맛.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에는 어떤 맛이 있는가. 딱히 짝어 말할수 없다. 시인마다 다 제 나름의 개성이 있고 그 개성이 뿜어 내는 맛과 향기가 서로 다른때문인지 아니면 평자자신의 감각과 느낌이 원숙하지 못한때문인지... 하지만 잡지《조선문학》주체90년 1호부터 6호까지에 실린 시들을 읽어 나가는 과정에 우리는 그 답을 일정하게 찾을수 있었다.

처음으로 느껴 지는 맛은 진정의 맛이였다. 시인 홍문수는 새 세기의 첫호에 실린 시 《만민의 당부》에서 이렇게 웨쳤다.

새 세기에도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는 계속되고
행성우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결론을 기다려
여전히 그이의 집무탁에 쌓여 있군 하리니

긴긴 빙을 새우시며

이 세상 모든 난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아 주
시다

우리 장군님 잠시 쪽잠에 드실 때도 있으리

그런 때면 새 세기여 너는

그이의 귀중한 그 순간을 지켜

한초가 한시간으로 길어 저 흐르게 하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녕하셔야 사회주의의 승리와 그 무궁한 번영이 있고 온 세계의 자주화도 실현될수 있다. 새 세기여! 서둘러 노을을 펼치지 말라. 이 시각 네게 하는 만민의 간절한 당부, 그 당부를 가슴깊이 새기고 너 천년의 장구한 흐름을 시작하라! 이것은 입 빠른 웨침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시인의 진심이였다. 초소를 찾으시여서라면 진 날 마른 날 가림이 없으신분이여서 장군님 그 길을 찬비 내리는 날 떠나실수도 있으리. 그러면 새 세기여 너는 서둘러 비구름을 가서 내고 푸르디 푸른 하늘을 펼치며 자욱자욱 그이를 따라 서군 하라...

얼마나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감정의 토로인가.

기뻐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진정의 맛이 느껴졌다. 진실한 시인만이 진실한 웨침을 할수 있는 법이다. 사실 정치적이며 정론적인 성격의 시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는 시형상을 펼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자칫하면 강연제강과 같아 질수 있다. 다만 행만 자르고 부름토를 붙인... 문학은 강연제강과 다르다. 그 어떤 리성이나 논리로가 아니라 감성으로 먼저 느껴 져야 한다. 오늘의 위대한 선군시대를 노래하는 작품일수록 생경한 웨침으로 시의 형태나 조립해 내는 식으로 작품을 써서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다. 한글자, 한행을 써도 거기에 자신이 심장으로 느끼는 절절한 체험을 하나하나 쪼아 박을 때 시인의 얼굴도 나타나며 시자체의 고유한 맛도 살아 나게 된다.

시인 홍문수는 시의 자자구구에서 진정어린 마음에서 탐구된 진정어린 토로를 펼침으로써 독자들이 진정한 사색의 세계에 잠겨 그 맛을 읽게 하였다.

일부 시인들은 반문한다. 《난 나의 시에 진정을 토로했는데 왜 진정이 느껴 지지 않는다고 하

는가?》 그렇다면 시인이여 자신의 자질을 팽창히 검토해 보라. 독자들의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위에 있는가. 아니면 같은가...

진정의 맛은 많은 작품들에서 느껴 졌다. 시인 정은옥은 시 《우리에게 붉은기가 있다》(1호)에서 시대앞에 자기의 심장을 드러내고 이렇게 진정을 웨쳤다.

제 자식처럼 너무도 잘 아는 이 말을
이 아침에 우리가 왜 하는지
새 세기여 너는 들으라
그리고 뜨겁게 간직하라
어떤 사람들이 아 말을 하는가를

지금도 보여 온다
무너진 7월의 하늘가에
한점 붉게 타던 붉은기-
우리 장군님 억세게 추켜드시던
아 수령님의 붉은기가

그 붉은기를 지키려고
우리는 배 뚫고 추위에 얼면서도
이 길을 택했다
그 붉은기를 더높이 휘날리려고
우리는 피를 뿌리고 목숨 내대면서도
이 길을 걸었다

버린자들이야 어찌 알라
자신을 바쳐서 지켜 냈기에
우리는 이 기발의 귀중함을 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안다

시줄을 읽어 가느라면 어느새 지나간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얼마나 간고한 날이었던가. 붉은기를 지키던 피의 한결을 한결음... 실지로 우리는 배를 뚫고 추위에 얼었다. 피를 뿌리고 목숨을 내뿜었다. 다름아닌 우리의 생명인 붉은기를 더높이 휘날리려고...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시인이 진정한 자세에서 진정으로 웨쳤기때문에 독자들도 그 목소리를 진정으로 받아 들였다.

이밖에도 우리는 이여의 작품들인 《6시》(1호, 리성혁), 《비녀》(3호, 리진목), 《아이들에게 주는 시》(2호, 리성애), 《우리 시대 사람들》(3호, 손진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4호, 김석주), 《나는 이 땅이 좋다》(5호, 김충기), 《나의 아버지》(6호, 김은숙) 들에서도 시줄마다에 흘러 넘치는 진정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고 매혹도 느꼈다.

다음으로 느껴 지는것은 감칠 맛이였다. 자기

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의 세계에 끌려 들어 가 실컷 웃었다. 한참 웃다가 주위를 살펴 보니 하늘은 류달리 푸르청청해 보이고 땅은 더 넓고 밝아 보였다. 사람들도 새삼스레 더 아름다와 보였다. 순간적인 감흥이 부드러운 안개처럼 온몸을 휩싸더니 그것이 사라지자 오늘의 선군시대, 붉은기시대의 다양한 생활모습이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화마냥 비쳐 왔다. 그 모진 고난속에서도 유쾌한 익살을 부려 가며 만난을 헤쳐 온 사람들. 돌이켜 보건대 이러한 배포유한 익살, 즐거운 응답은 승리자들에게서만 찾아 볼수 있는것이 아니였던가.

시인 김정곤은 련시 《전야의 사랑가》(1호)중 《비구름만 봐도》에서 참으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는 재미 있는 시형상을 펼쳤다.

풀판에서 양떼 몰고
실개천 여울가를 내리다가
달님이 눈이 동글 입을 딱 벌리네
《어쩌나, 소낙비에 물살이 세진걸...》

주먹돌 썩 썩 굴리는 여울앞에
가도 오도 못하고 두발 동동 구르는데
하늘에서 똑 떨어 졌는지
제대군인 그 동무
척척 겨드랑에 양 한쌍 안고
무작정 씨엉씨엉 물을 건느네

어마나 땅크를 몰았다더니 힘도 장사다
온몸 휘저으며 돌진하는 땅크기세
허리 감은 물갈기도 어리광치다 달아 빼고
튀기는 물방울도 웃음속에 부서지네

어느새 열두쌍 물 건너 가고
달님이 눈이 동글 홀로 남았네
저기서 음-메- 엄마 찾는 소리
떡판 같은 잔등 앞에 낮추며
《업고 갈가》

《에그마, 한낮에 잔등에 업히다니...》
《싫으면 양처럼 끼고 가지》
덥석 들어 올려 땅크인듯 물살 헤치는데
허공에 뜬 손 모자끝에 놓으며
《무겁지요》
《양들이 무겁더니 거긴 갑작하구만...》

들쭉 한송인듯 사뿐 내려 놓고
발동건 땅크처럼
버들숲너머 멀어 지는 저 동무
《에그 고맙단 인사도 못했네》

...양떼 몰다 하늘에 비구름만 보아도
 실개천 돌이 굴던 여울목생각
 간지럼 타면서도 가닿는 마음끝엔
 《언제 또 소낙비에 물이 불어 날가...》

읽히 왔다. 그리고 재미났다. 흥그럽고 해학 넘
 친 생활화풍에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전진
 하고 솟겨우면서도 엉큼한 처녀의 속마음과 배포
 유하면서도 흥겹고 결괌 넘친 제대군인총각의 모
 습이 눈앞에 안겨 들었다. 비웃해! 멋 있어! 마지
 막결구는 또 얼마나... 다음 순간 수많은 생활화
 풍들이 언뜻언뜻 상기되었다. 간고하면서도 즐겁
 고 힘겨우면서도 기뻐던 날과 날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달할수록 붉은기를 더높이 추켜 들고 장
 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든든한 배짱밑에
 웃음으로 만난을 불 살라 온 우리들, 우리 인민
 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 순수한 생활세대를 노
 래한 자연주의작품 같다고, 아니다. 여기에는 문
 학에서만 찾아 볼수 있는 생활의 철학이 있고 시
 대의 랑만이 있다. 순수 생활세대를 노래한것 같
 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시대의 숨결이 비껴 있
 다. 총각은 아직도 군대생활냄새가 물씬물씬 풍
 기는 땅크병졸신의 제대군인이며 그의 행동에서
 기본으로 되는것은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다. 작
 품에 흘러 넘치는 해학을 동반한 유쾌한 랑만은
 곧 오늘의 시대정신, 우리 인민이 간직한 승리자
 의 긍지와 랑만과 련결되고 있다. 특히 생활적인
 시라는것을 넘두에 둘 때 충분히 리해할수 있는
 생활화풍이 아니겠는가. 시인은 계선을 넘어 서
 지 않았고 분명히 계선안에서 즐거운 노래를 불
 랐다.

한가지 실례만 더 들자. 시인 박경심은 녀성으
 로서의 섬세한 체형세계에 기초하여 시초 《아기
 앞에서》중 《욕심꾸러기와 엄마》에서 이렇게 노
 래했다.

처녀시절의 행복
 웃음도 울음도 공상도
 하루아침에 그는 앓아 갔습니다

기나긴 한생애 없어서는 살수 없는
 타고 타고 또 타고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도
 그는 슬며시 가져다가 자기의것으로 만들었
 습니다

처녀라는 달콤한 부름마저
 사정없이 영원히 앓아 간

그는 아기랍니다
 인간세상에 첫발을 들이던
 참으로 놀라운 인간-어린애입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왜 아기앞에서 꿈쩍 못할가요
 엄마의 젖줄기는
 아기의 생명수가 아니던가요

사랑도 행복도 짱그리 앓아다가
 제것으로 만든 이 불손한 욕심꾸러기한테
 왜 꼬물만큼도 불만이 없을까요
 잃은것을 하나도 분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기의 모든것을 아기의것으로 만들
 지 못해
 짱그리 아기의것이 되지 못해 안달아 할가요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친근하고 신성한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삶을 아기가 주었기때문
 이 아닐가요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멋겨운 해학속에서 아
 기에 대한 어머니의 다심하고 부드러운 애정과
 어머니와 아기의 관계로 얹혀 지는 새로운 생활
 의 철학이 기묘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펼쳐 지고
 있다. 어머니의 불만은 불만이 아니다. 그것은
 《불만》으로 표현된 이름 못할 더없는 사랑이다.
 처녀라는 달콤한 부름마저 사정없이 영원히 앓아
 간 아기. 그 아기는 어머니의 전부이며 삶이다.
 하기에 어머니는 아기앞에서 또 하나의 큰 아기
 가 되어 자기의 속마음을 아기앞에 활짝 열어 놓
 고 《자기의 모든것을 아기의것으로 만들지 못해/
 짱그리 아기의것이 되지 못해 안달아》 한다. 결
 국 아기는 불손한 《욕심꾸러기》이면서도 어머니
 라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준 더없는 《보배》
 이다. 시에 펼쳐 진 의미와 서정은 이처럼 깊이
 가 있고 감미롭다.

하지만 론점은 그 다음에 있다. 이 작품을 순
 수한 모성세계를 노래한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시대 녀성들의 참다운 인생관을 노
 래한 좋은 작품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
 다. 물론 평자는 두번째 견해에 서고 싶다. 시야
 를 높여 세계를 굽어 보면 지금 썩어 빠진 자본
 주의세계에서는 개인주의가 무서운 흑사병처럼
 만연되어 자식들까지 남으로 취급하고 있다. 개
 인적인 사치와 향락만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어찌
 보면 본능적인 사랑으로 대하여야 할 자식들까지
 부담으로 여기면서 꺼리낌없이 버리고 있다. 래

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관심은 고사하고.

그러나 우리 사회의 료리관은 어떻게 서고 있는가. 자신보다 먼저 미래를, 현재보다 앞날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정을 쏟아 붓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적행동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표현되는 미래에 대한 사랑이며 나아가서 조국의 앞날을 가꿔 가는 공지와 결부되는 고상한 감정세계이다. 시전반에 정치적인 표현이나 시구가 없지만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다심한 애정속에는 분명히 우리 사회의 참다운 료리관이 용용히 흐르고 있다. 또 가장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고 절실한 생활적바탕우에서 아담하고 자연스럽게 서정을 펴나가고 있는 까닭에 재미가 우러나고 독자들에게 안겨 주는 인상도 깊다. 한마디로 읽을 맛이 있다. 시인이여, 즐겁고도 아름다운 사색의 여지를 마련해 준데 대해 또한 제나름의 감사를 표한다.

생활적인 향취가 넘쳐 나는 시작품들로는 이밖에 시 《비전향장기수와 그의 안해에 대한 편지》(2호, 김휘조), 시초 《나의 국토》(3호, 정동찬), 시 《탄전의 미래는 시작부터 좋다》(5호, 리명옥), 편지 《아쉬워도 보람 있는 삶》(5호, 오영재)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시작품들은 새 세기 문단에 새로운 색채를 부여해 주며 새 세기 진군길을 다그치는 우리 시인들의 걸음걸음도 크게 고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생활적인 시에도 넘지 말아야 할 계선이 있다.

시초 《못 잊을 우산장의 나날에》중 시 《시를 받아 안아요》(3호, 주명옥)에서는 진지하게 탐구된 생활적세부와 결부시켜 시창작에 립하는 시인의 량심과 자세문제에 대하여 특색 있게 노래했다. 시인의 진정과 몸부림도 그대로 느껴 졌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했다.

...

내가 과연 시를 알고 썼던가
뼈가 부러지는듯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기쁨이 더욱 큰
아 못 잊을 우산장의 이 밤
나는 느껴요 산모의 참기 어려운 진통을

시인의 절절한 진정이 리해되면서도 어딘가 불쾌감이 느껴 졌다. 진통? 진통?! 시창작을 진통에 비유하다니. 그것도 《뼈가 부러지는듯》, 《저리고 아프고》, 《산모》 등의 구체적인 표상까지 주면서... 쉽게 삭여 지지 않는 비유적표현들이 그냥 눈가에서 맴돌았다. 과연 이것이 시창작이라는 고상하고 그지없이 아름다운 일과 혼연히 비유될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적세부란 말인가.

확실히 공식적인 지면을 타기에는 무엇인가 불만스럽고 저속한 감이 없지 않았다. 물론 하나의 집약적인 생활적세부를 통해 노래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목료연하면서도 흥미 있고 인상 깊게 보여 주려는 시인의 의도는 좋았다. 그런데 왜 이상야릇한 불안감이 머리를 쳐드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문학은 아름다와야 한다는 초보적인 원리를 시인자신이 모를리 없다.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 이것은 실수였다. 시가 속하여 있는 시초 전반을 살펴 보니 다른 작품들에서는 아름다운 노래가 쟁쟁히 울리고 있었다.

시 《딸애의 눈빛 같아》, 시 《우산장, 너를 잊지 않으나》...이로부터 한가지 결론도 나왔다. 세속적인것이 진실한것이 아니라 아름다운것이 진실한것이라는.

하지만 한순간의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노래가락에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럴듯한 비유에 현혹된 나머지 시인은 일순간 딴지 말아야 할 계선을 한발로 딛고 서서 위태롭게 노래를 불렀고 그 음조는 맑고 부드러운 가락을 흐트러 지게 하였다. 다행히 아직 완전히 넘어 서지는 않았지만,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문학은 아름다와야 한다. 생활적형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속된 세부들을 망탕 끌어 들이면 사람들에게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할 문학이 자기의 본도를 잃게 된다. 시인이여, 명심하자.

평자도 생활을 사랑하고 싶다. 하늘에는 종다리가 지종거리기를 바라고 들에는 처녀들의 웃음소리 넘치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하여 시대를 초월한 그 어떤 흥취는 바라고 싶지 않다.

오늘의 우리 시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 붉은기시대가 있어 우리의 삶도 미래도 웃음도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서 언급한 시 《비구름만 봐도》, 《육심꾸러기와 엄마》도 완전히 만족치 못하다. 시 《비구름만 봐도》에는 오늘의 시대정신이 더 선명하게 비겼으면 좋았을것이고 시 《육심꾸러기와 엄마》에서는 시대의 숨결이 선명하게 체현되었더라면 더 좋을것이다.

새 세기의 문어구에서 신들메를 조이고 새로운 출발선을 떠난 우리 시인들의 사기 또한 용기백배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두에서 날리시는 선군시대의 붉은 기폭아래 펼쳐 진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밝고 환희로운가. 이 밝고 아름다운 생활속에 온몸을 푹 잠그고 시인이여! 시대의 아름다운 인간들과 생활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노래하자. 그러면 그대의 노래는 아름다와 지리라. 그러면 독자들은 그대를 《우리의 시인》이라고 즐겨 부르리라.

금강산시조

김형준

만물상

천년세월 비바람에
씻겨 갈것 모두 가고
만년세월 햇빛속에
퇴색될것 다 됐으니

틈이 있다 옮겨 와서
자리 잡을 생각 말고
제 모양 아름답다

함께 있을 생각 말라

고운것도 내것이요
미운것도 내것이니
하늘아래 내것외에
넘겨 본적 나는 없어

한가지를 보태어도

만물상이 아니 되고
한가지를 덜어 내도
만물상이 안되지만

원호고개 병사바위
너를 지킨 냇이 있어
금강산의 만물상은
인간상의 극치일세

비로봉에 올라

오를적에 비로봉은
하늘끝에 아물해도
상상봉을 딛고 서니
쳐다볼 하늘 없네

구름을 뚫고 솟은
비로봉 여기에선

동해는 손끝이요
태백은 발밑이라

하늘아래 산이요
산아래 인생이란
옛시의 그 뜻이
오늘에도 맞다더냐

여기 올라 웨치노니
사람 제일 세상에선
사람아래 하늘이요
하늘아래 산이로다

진주담

물이라면 흐를테지
발밑에서 댜드느냐
댜돌으니 바위아래
진주되어 고였는걸

진주라면 빛만 뿜지
정은 왜서 모두 뿜노

이렇게 다 뿜으면
안해에겐 무엇 주랴

정을 찾아 떠안으니
손짬으로 새였구나
세월이 무정터니
물아 너도 무정이나

아쉬워서 돌따서니
걸음은 왜 무겁느냐
아하, 물은 벌써 가슴속에
유정으로 고였는걸!

명경대

세월이 다듬어서
금강의 한복판에 걸어 놓
았느냐
비구름이 닦고 닦아
한점 티없이 그리도 맑으나

절경에 눈을 팔면
걸음은 절승 잃어 후회가 밟

히고
앞을 보면 뒤를 못 봐
아쉬웁은 옥에 티같이 남기더
니

명경대앞에 서니
아니 할 생각 내 왜 하였던가
후회 밟고 앞을 보니

절승절경 금강산이 한눈에 비
쳤거늘

명산의 절승절경
빠짐없이 비취 주는 금강의 명
경대야
내 삶이 후회 없을
그 마음도 비취 주는 인생의
거울아!

삼일포의 달

한 옛적 입금이
가던 걸음 멈추고
3일밤을 쉬었다는
천하절경 삼일포

시흥에 못 이겨서
호수가에 나오니

반공중의 밝은 달이
호심속에 내렸구려

어이하여 밝은 달이
넓은 천지 제것인데
체면 잃고 호심에서
자개돌과 노니는가

아, 세월도 하루밤
여기에서 묵고 싶어
밝은 달을 탓으로
호심깊이 던졌구나

립석의 소나무

봉이마다 꽃이요
계곡마다 향기여도
동해바다 맞받아
아니 본척 푸른 빛

골마다 새소리요
계곡마다 폭포여도

바위 딛고 우뚝 솟아
못 들은척 푸른 빛

절승은 단장 펼쳐
절경에 손짓해도
다른 모습 아니하고
질어 가는 푸른 빛

늦게나마 내 알았네
너의 뒤에 금강 있어
립석의 소나무는
병사군복 푸른 빛

내금강의 초롱꽃

- 《금강초롱》은 우리 나라의 특산이다-

천가지의 꽃이 피어
만가지의 재주 놀아
이리 보면 진달래요
저리 보면 철쭉이라

온갖 화초 다 모여서
생각대로 보이여도

다른 모습 찾지 못할
내금강의 초롱꽃

너의 절개 닮고 싶어
안고 가려 하였더니
숙인 고개 설레설레
땅만 보며 말을 하오

금강의 높은 절개
나의 근본 되었으며
금강산을 떠난다면
금강초롱 아닌걸요

명산에 부치여

단풍이 찾아 드는 좋은 가을날
시흥에 불 붙여 금강을 찾았더
니

세 계절 못 보는 아쉬운 마
음이
자국자국 밟히는 금강산 탐
승길

골마다 안개는 쏟아 저 내리고
폭포는 시행마다 감탄표를 찍
어주니
발바닥을 간지르는 푸른 잔디
는

나 기다려 가지 않은 봄계절인
듯

고마운 봄잔디에 시정 펼치니
시샘난 여름폭포 안개를 걷
어가고
명산을 불 태우는 초가을단
풍은
이 몸 심지 삼아 시정을 불 태
우네

이 몸 재가 돼도 시정만 불 타
라지

바위에 시정 갈아 산정에 없으
니
명산엔 명절이라 서둘러 솟은
달이
은은한 빛을 뿌려 눈세계를 펼
친듯

전설에만 있다더냐 여기가 요
지경
하루에 네 계절 맞고 보내니
한해 살면 삼백년 앞질러 살아
금강은 명도 낳는 명산중
명산!

- 금강산탐승의 날에 -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분출

-가사 《위대한 내 나라》를 놓고-

황혜경

새 세기의 첫 9월이어서인가 내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김일성** 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온 세상에 자랑높이 노래한 가요 《위대한 내 나라》(김효봉작사, 황진영작곡)가 더욱 힘차게 울려 퍼진다.

활화산처럼 터져 오르는 긍지와 자부심을 담고 박력 있게 울리는 이 노래를 듣느라면 령토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어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다.

위대한 내 나라!

주체의 태양이 빛나고 일심단결의 위력, 총대의 위력이 있어 우리 인민은 내 나라를 이처럼 자랑스럽고 긍지높이 부르고 있는것이다.

가사 《위대한 내 나라》는 내 나라의 위대함에 대한 격찬의 사상감정을 사상주제적과제로 설정하고 정론적인 기백이 넘치고 열정의 폭과 깊이가 있는 시형상으로 훌륭히 펼쳐 보이고 있다.

가사는 시종일관 격동적이며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된 정서로 특징 지어 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의 본질을 정서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빙빙 에도는것도 가사의 형상성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된다.》

가사는 내 나라가 왜 위대한가를 빙빙 에도는 것이 없이 그대로 직접 노래하고 있다. 가사는 그 어떤 꾸밈과 주저도 없이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다함 없는 송축과 폐찬의 감정을 한껏 터치고 있다.

1. 내 나라는 땅이 넓어 큰 나라더나
주체의 태양 빛나 위대한 나라

...

2. 내 나라는 인구 많아 큰 나라더나
일심단결 위력으로 빛나는 나라

...

가사는 1절과 2절의 첫행을 령토와 인구수에 비한 수사학적인 물음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숭고한 감정세계가 자연

스럽게 펼쳐 지도록 하고 있다. 이 행은 사람들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여 준다. 땅이 넓어 큰 나라가 되고 인구가 많아 위력한 나라로 되는 것인가?

돌이켜 보면 내 나라는 지난 날 봉건통치배들의 반인민적학정과 사대굴종정책으로 하여 《은둔국》으로 쇠퇴하여 주변대국들의 각축전마당으로 어지러워 졌고 끝내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짓밟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 당해야 했던 《약소국》이었다. 그러나 주체의 태양을 모신 그때부터 우리 나라는 포악무도한 일제를 쳐몰아 내고 승냥이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박살내버린 영웅조선, 천리마를 타고 세기를 주름 잡아 달려 폐허우에 락원을 일떠세운 기적의 나라로 온 세상에 존엄을 떨칠수 있었다.

오늘 령토가 크고 인구가 많은것을 뽐내며 《대국》으로 자처하던 나라가 《대국》의 존엄과 지위를 잃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대대로 누리는 수령복을 노래하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국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 가고 있다.

가사는 바로 령토도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우리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될수 있었는가를 시적구조가 단순하고 간결한 가사의 특성에 맞게 세련된 비교의 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 시적일반화의 폭을 넓혀 철학적으로 훌륭히 해명하고 있다.

첫행의 수사학적물음은 사색할 여지를 주면서도 비교의 수법에 맞게 다음행에서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격찬의 감정을 직접 토로할수 있게 하여 준다.

《주체의 태양 빛나 위대한 나라》, 《일심단결 위력으로 빛나는 나라》, 이것은 그대로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시인의 뜨거운 열정의 분출이며 우리 인민의 전 인민적감정에 대한 격조 높은 시적일반화로 된다.

가사는 첫행의 수사학적질문에 형상적인 해답을 직접 준 다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체의 태양이 빛나 이 땅은 삼천리라 크지 않아도 내 조국은 넓이로 짝수 없다는 격정과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어 **김일성** 민족의 자존심높이 주체조국의 위용을 떨치려는 확고한 의지로 사상감정을 더욱 승화시키고 있다.

가사는 시적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첫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터친 가사의 서정을 다음부분에서 다시 더욱 앙양시키면서도 이 모든 감정의 고조가 《백두장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내 나라》라는 가사의 사상정서적핵을 더욱 뚜렷이 하는데 이바지되게 함으로써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된 사상정서의 견인력을 비상이 높이고 있다.

3절에서는 령토와 인구수에 비추어 본 위대한 나라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 사회주의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높은 존엄과 위력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내 나라는 사회주의 불패의 강국
총대로 무적필승 펼치는 나라
주체의 붉은기로 누리를 덮을
내 조국은 영원한 태양의 나라
백두장군 높이 모셔 위대한 내 나라

제국주의자들의 전례 없는 고립압살책동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사회주의붉은기를 더욱 높이 휘날리고 있는 불패의 강국 위대한 내 나라. 과연 무슨 힘, 무슨 의지가 있어 사회주의 불패의 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력을 만방에 펼쳐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에 의하여 필승불패로 다져진 우리의 혁명무력이 있기때문이다. 총대가 있어 사회주의가 수호될수 있었고 선군령도가 있어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로 마련될수 있었다.

《내 나라는 사회주의 불패의 강국》, 《총대로 무적필승 펼치는 나라》는 시어이기전에 시인의 가슴속을 짝 채운 선군시대의 모습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걱정이고 세계가 공인하는 찬탄의 목소리이다.

가사에 나래치는 사회주의 불패의 강국 내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그대로 시인의 선군정치숭배심의 서정화이며 우리 인민이 실지 체험을 통하여 격조높이 터치는 위대한 궁지에 대한 정서적분출이다.

지난 날 총이 없는 탓에 나라가 망했고 총이 부족한 탓에 가슴 아픈 희생을 당해야 했던 력사의 심각한 교훈, 총대가 아무리 많았어도 거기에 참된 넋을 심어 주지 못했기에 강국이 물 먹은 흙벌레처럼 자멸된 시대의 엄숙한 교훈, 이것은 총대가 강해야 우리의 존엄 높은 생활도 위대한 리상도 지키고 빛내일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새겨 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이 진리를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총대를 앞세우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보

무당당히 나아가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 계시여 지닌 뜻도 뭉친 힘도 틀어 켜 총대도 것처럼 숭고하고 강한것이며 내 나라는 주체의 붉은기가 누리를 덮을 태양의 나라로 세상에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

정말 가사에는 우리가 이처럼 땀땀하고 궁지높이 말할수 있는 사상감정이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가사는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전 인민적감정을 격동적이며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된 사상정서로 훌륭히 펼쳐 보인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 주고 있다.

가사는 이러한 사상정서에 잘 어울리는 정치적 표현들을 효과 있게 씬으로 하여 형상적품위를 높이고 있다.

가사에서 정치적표현을 쓴다고 하여 서정성이 약화되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뜨거운 열정과 강렬한 지향을 안고 있는가, 풍만한 정서를 타고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가 하는것이다.

가사 《위대한 내 나라》에 쓰인 《주체의 태양》, 《백두장군》, 《일심단결》, 《김일성민족》, 《자존심》, 《통일의 강성대국》, 《사회주의 불패의 강국》, 《무적필승》, 《주체의 붉은기》 등의 정치적표현들은 하나하나가 다 가사의 사상정서에 잘 어울리고 위대한 내 나라에 대한 궁지와 뜨거운 열정이 짙게 숨배인 표현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쓰임으로 하여 정론적인 기백이 넘치고 열정의 폭과 깊이가 있는 무게 있는 시형상의 품위가 훌륭히 보장되고 있다.

가사는 적절하게 선택된 시어에 맞게 운률조성도 잘하여 형상적수준을 높이고 있다.

가사에서는 7. 5조의 음수율을 기본적으로 취하였는데 이것은 안착된감을 주면서도 박력 있고 기백이 넘치는 운률조성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절에서 두행이 짝을 이루고 제시와 풀이형식으로 시형상을 규칙적으로 전개하여 운률을, 살리면서도 그것을 절마다 두 단에 걸쳐 선율을 고조시켜 나가다가 마지막행을 매절에서 다같이 반복하여 줌으로써 운률의 형상적효과를 높이고 있다.

가사 《위대한 내 나라》는 하나하나의 표현, 한구절 한구절에도 내 조국에 대한 한 없는 자부속에 살고 있는 시인의 뜨거운 열정이 맥박치고 있는것으로 하여 부르면 부를수록 기백이 솟고 들으면 들을수록 위대한 내 나라에서 사는 크나큰 궁지로 더욱 가슴 부풀게 한다.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위대한 내 나라의 부흥강성을 위한 길에서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더욱 힘 있게 펼쳐갈것이다.

가을의 추억

사철생작
김영희역

푸르른 하늘높이 떴 지어 훨훨 날아 가는 기러기떼를 보아도 서글픔은 더해 저 유리창을 들부시고 싶었다. 인기가수의 노래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누그러지기는커녕 도리어 뒤편 손에 잡히는 대로 벽에 마구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두다리가 마비되어 온신 못하게 된 뒤로 성미가 이지러지고 만 나는 걸핏하면 생트집을 걸고 짜증을 내곤 하였다.

내가 한바탕 분풀이를 해댈 때면 어머니는 해쓷게 진 낯빛으로 방문을 조용히 나서시여 멀찌감치에서 동정만 살피시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실컷 투정질을 하고난 내가 제풀에 성이 사그러진 기미가 보이자 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 섰다. 간절한 기대가 담긴듯 한 젖은 두눈을 습벅이며 한동안 나를 지켜 보시다가 내 손을 꼭 쥐며 말씀하시었다.

《애야, 북해공원에 꽃이 만발하다던데 우리 함께 보러 가지 않으련. 내가 밀차를 밀어 주지.》

꽃을 매우 사랑하시던 어머니는 워낙 화분가꾸기를 매우 즐겨 하시였으나 내가 이렇게 돼서부터는 그럴 경향이 없었다.

《안 갈래요. 그걸 봐선 뭘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선 뭘 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저주로운 두다리를 힘껏 때리며 소리 질렀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의 두손을 꼭 잡고 터지려는 오열을 삼켜 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애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너랑... 나랑... 우린 억세게 살아 가야 한다.》

그 어떤 생의 메아리처럼 나의 귀전에 울리던 그 말씀은 오늘도 문득문득 들려 오곤 한다.

그때 나는 어머니의 병이 그토록 심한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돌아 가신후에 누이동생의 말을 듣고서야 알았는데 간이 아파 나 밤새 잠드시지 못한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조금도 내지 않았다.

그날은 창밖에서 락엽이 와스스 소리내며 바람에 굴러 가던 날이었다. 어머니는 의례 습관처럼 나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 보시더니 밝은 낯빛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북해공원에 국화꽃이 정말 멋 있게 폈대. 같이 가보자꾸나.》

어머니의 여위고 지친듯 한 초췌한 모습은 마치 아들인 나에게 애원이라도 하려는듯, 한생의 소원을 말하는듯 애처롭게 안겨 왔다.

힘들게 더듬는 그 말씀에 알지 못할 야릇한 충동이 가슴에 이는것을 느끼며 나는 싹뚱히 대답했다.

《언제요?》

《너만 좋다면 래일이라도 당장.》

《그럼 래일 데려다 주세요.》

어쩌다 내가 순순히 응하자 어머니는 기뻐 어쩔 줄 모르시었다.

《얼른 준비해야지.》

《준비요? 준비랄게 뭐 있나요. 여기서 멀지도 않은데.》

어머니의 얼굴은 금시 환해 졌다.

《국화꽃이 정말 볼만 하다더구나.》 그러시고는 한참이나 무슨 생각을 하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국화꽃을 보고나서 그 길로 그옆에 있는 식당에도 가자. 너 어릴적에 그 식당 완두단목을 제일 좋아 했지. 생각나나. 엄마랑 자주 북해강기슭

에 놀러 나가던게. 넌 뽕뿌라나무 꽃씨가 떨어지면 송충이라고 하면서 달려 가서 밟아 놓곤 했지…》

문득 어머니는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달린다》라든가 《밟는다》는 말에 어머니는 나보다 더 예민했던것이다. 어머니의 낯빛은 다시금 초췌해졌다. 잠시 머뭇거리던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없이 방문을 나서시켰다.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살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였다. 어머니는 두번다시 되돌아 오지 않으셨다.

동네사람들이 쓰러진 어머니를 안아 일으켜 삼륜차에 태웠을 때도 토혈은 멎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의 병이 이토록 위독한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동네사람들에게 업히워 내가 급히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였다. 마치도 피로왔던 어머니의 일생을 말해 주듯이…

이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리별이였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기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불쌍한 내 아들이, 넌 어떻게 살아 가겠니. 누이동생도 아직 어린데…》

북해공원에 또다시 가을이 왔다.

내가 탄 밀차를 누이동생이 밀어 주었다.

노란 꽃, 흰 꽃, 보라꽃…

가을의 청신한 대기속에서 만발한 국화꽃이 첫눈에 띄였다. 모진 겨울이 앞에 왔는데도 고결한 자태를 드러내고 내 생애 무슨 의미심장한 말을 속삭이듯 진한 향기를 뿌리고 있었다.

꽃들은 제 나름대로 보란듯이 현란하게 더러는 수줍은듯 다소곳이 피어 있었다.

이제는 나도 누이동생도 어머니가 못다 하신 마지막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시련앞에서도 인간은 역세게 살아야 한다는 당부였다.

(《베이징만보》에 발표된 이 소설은 전국현상응모에 당선된 작품임)

용해공의 안해들

박동선

날 샌다 서둘러
또 한차지 쇠물을 뽑고
용해장란간에 나서니
어허 저것 보게나

우리네 근면한 안사람들
쇠물 뽑는 님을 위해
따끈한 우유통
용해장에 이고 왔네

새벽부터 받아 안는
안해들의 후더운 정
가슴마다 넘치니
장수힘 부쩍 솟는 용해장에
쇠물은 용암처럼 끓어 오르네

찬비바람 다 맞으며

염소떼 날마다 몰아 가는
상냥한 우리네 안해들
플판길을 용해장에 이어 놓았네

아 쇠물 위해 모대기는건
우리만이 아니였구나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
앞서 헤치며
용해장에 빈 자리없이 남편을 세운
우리네 귀중한 사람들

자 사양 말고 어서 드세나
한날 우유로는 계산 못하지
강성대국 높이 세울
품성한 쇠물로
우리도 뗏뗏이 총화해야지

갑진년의 사신

강상호

1

갑진(1364)년.

고려에 가까운 이국의 별관에 한 행렬이 나타났다. 울긋불긋 기발이 나뭇기고 가마와 말을 탄 관리들이 가고 그를 옹위한 군사들의 길잡이소리가 크게 울렸다.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오는 문익점의 일행이었다. 찬성사(고려의 최고행정기관인 중서문하성의 관리) 리공수를 정사로, 밀직제학(왕에게 올리는 문건을 접수하고 왕명을 전달하는 밀직사의 관리) 허강을 부사로, 문익점을 서장관으로 하는 사신행차는 고려로 향하고 있었다.

절다발을 타고 일행중에서 가고 있던 문익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환성이 터졌다.

《아- 고국이 멀지 않았구나!-》

멀리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산발을 보며 감격을 금치 못했다. 눈가에 주름살이 펴이고 입이 빗싹 벌어 졌다. 마치 하늘을 떠가는 기분이었다.

(빨리, 더 빨리 갔으면!)

이때 뒤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 보니 수레 한채가 길옆도랑에 빠져 있는데 달라붙어 꺼내느라 소동이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라 쉽사리 나오지 않았다.

문익점의 미간이 찌프려 졌다. 그는 앞을 바라보았다. 정사인 리공수의 뒤에 붙어 가며 불안한 눈길을 돌리는 부사 허강을 보며 눈살을 찡그렸다.

그 수레는 허강이 제 집에 실어 가는 이국물건들과 비단이었다.

(사람이 체면도 없지. 사신의 행차에 개인재산을 실어 오면 못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하긴 이국으로 떠날 때도 그들은 서로 대조를 이루었었다.

그때는 통만에서 국경인 강을 건느는 때였다. 모두 강을 건지기 위해 짐을 실노라 돌아치는속에 문익점은 강옆에 있는 산등성이에 올랐다. 고국땅의 푸른 산발이 바라보인다. 이제 돌아 서서 한걸음만 내디디면 숨 쉬기도 가쁘다는 남의 나라 땅, 한순간이라도 자기 땅의 향기에 취하고 싶었다. 가슴이 찢릿해 졌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하인 해손이를 불렀다.

《나에게는 이것뿐이다.》 그는 주머니를 털어 내며 말했다. 《이것으로 술을 사오너라!》

《이건.》 하고 해손은 눈을 둥그렇게 떴다. 《청주가 크게 한동이 값인덱쇼. 주인님이 그렇게 술을 많이 하는것을 본 일이 없는줄로 아옵니다.》

《이놈, 무슨 잔말이 많으냐! 사오라면 사올것이 지.》

문익점의 주량은 많지 않았다. 해손이가 사온 술동이에서 두어사발 마시자 취해 버렸다. 동이에는 많은 청주가 남아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할갑쇼?》

해손이 문익점을 바라보며 물었다. 문익점은 하늘이 도는듯 하여 누워 버렸다.

《너나 다 마셔라!》

《내 혼자서 어찌 다 마시리이까!》

해손이 투덜거리는 소리에 문익점은 몸을 일으켰다. 해손이 손에서 술동이를 잡아 들더니 한참이나 내려다 보았다. 그러더니 땅에다 술을 붓기 시작했다.

《아, 아나.》 해손이 기겁한 소리를 했다. 《이 가까운 술을...》

문익점은 몸을 일으키는 해손의 팔소매를 잡아 앉혔다.

《술이란 벗이 있어야 먹는것이다. 이 땅을 떠나며 마시는 리별주야 이 땅에 권하는게 옳지 않으냐! 피이타 생각을 말어라!》

아래에서 역관(통역관) 하나가 달려 와 고하엿다.

《빨리 강을 건느실 차비를 하라 하오이다.》

강변에 내려 가니 나무배에 실은 짐이 벌스레 많았다. 문익점은 기웃거리다 역관에게 물었다.

《무슨 짐이 이리도 많은가?》

역관은 흘깃 주변을 돌아 보고 대답을 했다.

《부사대감의 물건인줄 아뢰옵니다.》

《이국에 가는 사신의 짐이 어찌 이리도 큰가?》

에둘러 말할줄 모르는 문익점의 목청이 높아지자 부사 허강이 다가왔다.

희고 가름한 얼굴에 수염이 맵시 있는 사람이 엿다. 자주색비단옷과 허리에 찬 금어(높은 벼슬 품계를 나타내는 장식품)가 해벌에 번쩍거렸다.

《뭘 그러나? 사람은 기회를 옳게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네. 나라일에 해되지 않게 자기 일을 하면 나쁜거야 없지 않는가! 이런 기회가 많은줄로 아는가?》

문익점은 얼굴이 불길에 타는듯 했다. 기회라고? ... 사신으로 이국에 가는 기회는 재산을 뭉는 기회란 말인가? 입이 썩다.

《자네 짐도 실게나!》

문익점은 뒤를 돌아 보았다. 해손이 시무룩이 웃으며 부담짝 하나를 실은 말을 끌고 왔다. 허

강은 입을 딱 벌렸다.

《이게 단가?》

《...》

《역시 할수 없는 사람일세.》

문익점은 먼산 보기로 대답을 안하는데 해손이 불손하게 중얼거렸다.

《두분이 너무나도 차이나오이다.》

배우에 오른 문익점은 멀어 져 가는 고국산천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허강이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문익점은 속이 메스메스해 졌다.

무엇이 즐거울까?... 즐거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고국을 떠나는데 과연 즐거운 일인가?...

문익점은 왜 그런지 떠나기 싫었다. 가면 다시 돌아 오지 못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소한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런 생각이 드는 법이다. 돌아 오는 길은 뻔할수 있을는지... 다시 달려 가 고국땅을 부여 안고 싶었다. 멀어져 가는 고국의 향취...

...

말이 투레질을 하는 바람에 문익점은 회상에서 깨여 났다. 이국산천을 돌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역시 이국땅은 고려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는 고국땅을 바라보며 시 한구절을 읊었다.

말을 몰아 이국의 들판 달리니
누런 먼지 불려 와 안장에 쌓이누나
어찌타 고국을 떠나 왔나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돌아 갈 길 재촉하누나

문익점은 말에 박차를 가했다.

2

앞에서 허강이 천천히 떨어 지며 문익점과 박차를 같이 하였다.

《자네는 고국에 빈손으로 돌아 가네그레. 그래도 돌아 가면 자식에게 한가지라도 선물할것이 있어야 할게 아닌가!》

문익점은 칼끝이 심장을 찌르는듯 하여 무춤 몇어 서기까지 했다. 그에게도 자식이 기다린다. 어머니 없는 자식이...

떠나오던 날 아들 증용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갔다 오더라도 너희들에게 안겨 줄것이 없을것 같구나. 재물을 가져다 주지 못할게다.》

《아버님.》하고 아들은 말했다. 《몸 성히 돌아 오십시오. 세상에 건강과 바꿀 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익점은 그때 가슴이 몽클해 졌다. 그도 빈손으로 자식에게 돌아 가고 싶지는 않았다. 부모는 자식에게 재부를 넘겨 주어야 한다. 한생을 살아 갈수 있는 재부를! 그 재부가 어찌 황금이나

비단뿐이라!...

문익점은 꼭 다물었던 입을 열며 허강을 돌아 보았다.

《나라고 왜 빈손으로 가겠소이까!》

《그럼 금덩이라도 가지고 가는가?》

문익점은 쓴웃음을 지었다. 자가 구부러 지면 움게 찔수 없는 법, 누가 그랬던가? 개입에서 상아가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금덩이만 보물이겠습니까. 나도 자기 보물을 안고 가오이다.》

허강의 의아쩍은 시선이 문익점을 쳐다본다.

문익점은 자기의 크지 않은 행장속에 들어 있는 몇개의 붓대를 생각했다. 붓대안에 자기가 고국에 안고 가는 선물이 있다. 귀한 보물로 가져가는 목화씨가!

문익점에게는 목화를 처음 보던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울긋불긋한 비단들이 걸려 있던 저자거리에서부터였다. 곳곳에 싸구려를 부르는 왜가리 청으로 귀가 멜 지경이었다. 이국의 풍경이어서 관심을 돌려 보지만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러다가 한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는것을 발견했다.

그가 해손이와 함께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 가보니 한 선비가 먹을 갈아 붓에 찍어 들고 글을 쓰려 하는 참이다. 앞에 붉은 비단을 펼쳐 놓았다. 편습을 하는 모양 종이에다 몇글자 초서체로 써본다.

《저 사람은 왜 저런다우?》

문익점이 결의 사람에게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에게 붓글을 써주고 돈을 받는 사람인데 이번에 잘 써주면 비단임자가 큰 은덩이를 주겠다고 했다는것이다.

문익점이 보기에 글씨가 졸렬하였다. 글씨라면 누구에게도 짝지지는 않는 문익점이다. 예서행초가 다 능했다. 선비의 글씨도 졸렬하거니와 글씨를 돈을 주고 판다는것이 더 비루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 붓을 집어 들었다. 선비가 어리둥절해서 바라보는 사이 먹물을 찍어 들고 비단우에 휘뿌리었다. 비단우에 먹물방울이 점점이 떨어 졌다. 선비는 랑패한 기색으로 입을 딱 벌렸다. 사람들속에서도 《아차, 저 비단을 버렸군!》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문익점은 그런 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비단우에 글을 써나갔다. 붓이 비단우를 물결쳐 갔다. 사람들속에서 야! 하는 환성이 터졌다. 여러가지 글씨체로 엇갈려 쓴것도 훌륭하거니와 비단우에 떨어 졌던 먹물이 말끔히 글자속에 들어 가 보이지 않았다.

《이거 왕희지의 환생이 아니시오?》

옆에서 한 선비가 문익점의 손을 잡으며 하는

말이었다. 문익점은 빙그레 웃었다.

《나는 왕희지의 글씨체를 잘 모르오. 보고 배운것이 있다면 우리 나라 삼국시기 명필 김생이라는 사람의 글씨체와 현재 고려사람들의 문체요.》

모두 감탄하여 혀를 찼다.

문익점이 그쯤 해놓고 걸어 가는데 누군가 달려 나와 앞에 꿇어 앉으며 절을 했다.

《비단임자가 드리는 글씨값이오이다.》

그는 큰 은덩이를 받쳐 들고 있었다. 비단임자의 하인인 모양이다. 멀지 않은 곳에 금빛장식의 가마가 서 있는것이 보였다. 문익점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재능과 마음은 재물로 사는것이 아니다. 도로 가져다 주인에게 드리여라!》

몰려 왔던 그 하인이 다시금 달려 왔다.

《비단임자가 선비님의 높이신 성과 이름을 알 고져 하나이다.》

문익점은 꽤 시끄럽게 군다고 생각하며 싱긋이 웃었다.

《이 나라에 사신으로 온 고려국의 문익점이라고 아뢰여라!》

그는 해손과 함께 화려한 천들이 걸려 있는 저자로 다가갔다. 호들갑을 떨며 뭐라고 주절대는 장사치의 사설을 귀등으로 들으며 그는 천들을 뒤적거렸다.

《저절 보시오이다.》

갑자기 해손이 문익점의 팔소매를 잡아 끌었다. 문익점이 시선을 돌려 보니 사신을 따라 온 일행이었는데 장사치와 천을 놓고 값을 흥정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국에 와서 물건값을 다룬다는것이 거슬렸다.

《이건 뭇들이냐?》

피대를 돈구며 삿대질하자 그들은 와들 놀라며 절을 했다. 한 녀석이 나서며 말했다.

《부사대감께서 비단천과 물건을 사오라고 해서...》

말꼬리를 흐리며 눈치를 살피는것이 꼴 사나웠다. 문익점은 저리 외면하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쓴입을 다셨다. 더러운것을 보지 않는 편이 낫다. 되새겨 질 때마다 역스러워 질테니까...

문익점은 돌아 서다가 무뎠다. 번뜩하는 생각이 있어 뒤를 돌아 보았다. 장사치가 가지고 있는 천중에서 구석에 쌓여 있는 천을 잡았다. 처음 보는 천이다.

《이게 무슨 천인가?》

《저...》

회고 깨끗해 보이는 천이다. 값 비싸게 보이지만 값은 베천보다는 얼마싸 보였다. 일반평민들이 입으면 참 좋을것 같다. 비단옷을 사입지 못할망정 이런 천으로야 어찌 못해 입겠는가!...

그는 해손을 돌아 보았다.

《이 천을 사자!》

그러자 구경을 하던 허강의 하인이 끼여 들었다.

《그 천은 그리 값 나가는것이 아닌지라 돌아 갈 때 가지고 가도 재산이 될것 같지는 않소이다.》

문익점은 그 말에 머리를 가로 저었다.

《천한 생각이다. 이것이 왜 재산이 아니되겠느냐!》

문익점은 장사치에게 이 천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물었다. 장사치는 기웃거리며 대답했다.

《목화라는데서 나온다고 하오이다. 그밖에 잘은 모르오이다.》

《그래 그 목화라는게 어디 있느냐?》

《여기 가까운 지방에 있는줄로 아뢰옵니다.》

문익점은 장사치가 가리키는 곳을 한참 바라보았다.

《한번 시간을 내여 그곳에 가보자!》

문익점은 정사에게 말미를 받아 목화가 있다는 운남이라는 지방으로 떠났다.

흰 눈송이처럼 피여 난 목화송이들을 문익점은 보았다. 발사이길로 걸어 갔다. 마치 구름바다속을 떠가는것 같다. 이것을 우리 땅에 가져다 심는다면?... 눈앞에 천을 들고 기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만 된다면?... 마음속에 그들먹하게 차오르는것이 만족감인지 행복감인지 알수 없었다.

《서장관님!-》

숨바다를 헤가르며 해손이 날아 온다.

《세상에 이런 풀도 있소이까? 숨이 열매로 달리는...》

《사신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보았으련만...》

문익점은 뜨끔하니 가슴을 찌르는듯 한 느낌에 그 자리에 굳어 졌다. 숨이 막혔다. 비단천만 사들고 좋아 할 허강의 희여덟썩한 얼굴이 눈앞에 얼른거렸다. 강가에서 기회를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기회란 누구에게나 있는 법, 그러나 그 기회에 무엇을 더 위하는가 하는게 중요한 법이다.

문익점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하여 지금 고국으로 가는 걸음이 몇몇한것이라고 문익점은 생각했다.

문익점은 한시바삐 고국으로 돌아 가고 싶었다. 돌아 가서 이 목화씨를 온 고려땅에 뿌리고 싶었다. 그러나 뜻밖의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것을,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 막을줄을 모르고 있었다.

3

《어허- 내 역적의 루명을 쓰다니.》

통탄하는 한숨소리가 문익점의 입에서 새어 나

왔다.

사신행차는 고려를 눈앞에 두고 뜻밖에도 고려의 반역자 최유라는 자를 만났다. 고려에서 국경너머로 도망친 최유는 잔당을 모아 반역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사신행차일행을 거기에 끌어 넣으려고 획책했다. 문익점일행은 단호하게 배격했다.

최유란 자는 끝내 잔당을 거느리고 고려에 쳐들어 갔으나 최영장군의 군사에 걸려 참패를 당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은 억지심사로 문익점일행이 자기들과 한무리라고 거짓증언을 함으로써 그들을 발견하면 붙잡아 엄중처형하라는 령이 내리게 만들었다.

문익점일행은 역적의 루명을 쓰고 잡혀 죽을 위험에 처했다. 하여 고국이 멀지 않은 절간에 주저앉고 만것이다.

문익점은 가슴이 답답하였으나 방도가 없었다.

삼경이 훨씬 지났다. 부처님을 부르는지 극락세계를 부르는지 귀 술게 넘볼을 외우던 중들도 다 지쳐 버려 꿈나라로 날아 간 절간은 조용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찌룩찌룩 울어 대기 시작했다.

문익점은 한숨을 쉬며 일행이 거처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 섰다.

별당안의 어두운 방에 초불 하나가 가물가물타고 있었다. 바람이 불면 금시 꺼질것만 같다.

(풍전등화라!...)

문익점은 그 초불을 보며 자기들의 운명을 생각했다.

《어서 오게.》

정사 리공수가 그에게 자기 옆자리를 가리켰다. 문익점은 조심스레 앉았다.

《다들 주무시지 못했소이까?》

《어떻게 잠이 오겠나. 역신으로 몰린 형편에.》

침묵이 흘렀다.

리공수는 금시 부처님이 된 모양으로 멍하니 굳어 진채 앉아 있고 부사 허강은 잔망스레 푸푸한숨을 내쉬고 있다. 문익점은 조심스레 리공수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그래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리공수는 함구무언으로 앉아 있었다. 옆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던 허강이 머리를 쳐들었다.

《별수 있나. 고려땅에 들어 가면 우리는 다 죽는터에 여기서 사는게 방도지.》

그 말에 문익점은 수염을 부르르 떨었다.

《아니 남의 나라 땅에서 산단 말이오이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생각을 내놓게.》

문익점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속에서 불덩어리가 목구멍으로 치솟다가 사그라져 버렸다.

허강은 문익점을 넘겨다 보며 말했다.

《자네야 이 나라 황제가 호의를 베푸는터에 걱정할게 무얼 있겠나.》

문익점은 그가 무엇을 넘두에 두고 하는 말인지 알수 있었다. 그것은 사신으로서 황제의 궁전에 갔을 때였다.

원래 큰 나라로 자처하는터여서 황제가 다른 나라 사신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레외로 된것은 고려사신들뿐이었다. 이번에도 황제가 맞아 주었다.

아마도 이 나라 황제는 고려국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황궁을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는 고려사신들을 만수산에 있는 광한전에 데리고 갔다. 층층으로 지은 루각과 군데군데 세운 정각이 현란하게 보였다. 울긋불긋 단청을 하고 오색기와를 얹은 광한전은 정말 황홀하였다. 기둥은 모두 금옥으로 만들어 졌다.

황제는 금옥기둥을 가리키며 사신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이렇게 훌륭하고 견고한 기둥을 본 일이 있는가?》

문익점은 빙그레 웃었다.

《훌륭한가 견고한가는 임금의 정사에 달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좋은 정사를 베풀면 거처하고 있는 집이 썩은 나무라고 해도 금옥보다 더 견고하리이다. 그렇지 못하면 금옥이 오히려 썩은 나무보다 못하오이다.》

그의 말을 듣던 황제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려국이 레외지국이고 문물이 훌륭하다고 하더니 신하들 또한 훌륭하도다!》

황제는 문익점을 돌아 보았다. 그 순간 문익점은 황제의 눈빛에서 반디불 같은것이 반짝하는것을 느꼈다. 그 빛은 그 무엇에 대한 기대였고 욕망이었다. 향기에 주린 사람의 갈망이었다. 문익점은 당황하여 외면하였다.

황제는 그 순간부터 말하지 않았다. 자랑도 하지 않았고 말도 건네지 않았다.

다음날부터 사신들에 대한 대접이 더욱더 융숭해 졌다. 우선 그릇이며 가구들자체가 금, 은, 옥, 상아로 만들어 진 최상의것으로 바뀌었고 시종을 드는 시종이나 시녀들의 자세도 달라 졌다.

문익점은 불안함을 느꼈다. 단맛이 지나치면 메스메스해 진다는데...

어느 날 문익점의 처소로 사신행차의 접대를 맡은 레부의 관리가 찾아 왔다.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우고 다니는 나이든 관리였다. 레외의 있게 받아 들이는 문익점에게 은근히 물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 큰 나라의 대신이 됨이 어떠하오?》

그의 말에는 진정이 어려 있었다.

《이것은 나자신의 의향만이 아니라는것을 알아 주길 바라오.》

문익점은 그의 말에서 이미 뒤대사를 읽었다. 그것은 이 나라 황제의 의향일것이다. 문익점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레부의 관리는 초조한 어조로 말했다.

《작은 나라의 관리보다야...》

문익점은 머리를 쳐들며 대답했다.

《제 나라가 커서만 사랑한다면 어찌 충신이라 하리이까. 커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사는 땅이기에 사랑하는것이 나라인줄 아오이다.》

《고국에 그렇게도 가고 싶으시오?》

문익점은 고국이 있는쪽 창으로 다가섰다. 하늘에서 기러기떼가 줄 지어 날고 있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이 몽글해 졌다.

기러기 한소리에 고향소식 그림구나
가는 제비 바라보면 잠을 잘수 없구나
꿈속의 넓은 고국으로 날고 있거니
돌아 갈가 말가를 점칠 사이도 없으라

저도 모르게 흘러 나온 시구절이었다.

《훌륭한 시요!》

레부의 관리는 일어 서며 한숨을 쉬었다. 머리를 수긋하고 밖으로 나갔다.

후에 은근히 들려 오는 말에 의하면 황제가 《금옥기둥보다 그들 같은 신하가 있음을 자랑할 수 있다면 더 바랄것이 없겠다. 고려국의 재부는 부럽지 않으나 그 신하들이 부럽도다.》 하고 탄원을 하였다고 한다.

허강은 지금 그때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것이다. 문익점은 입술을 깨물었다. 뜨끔한것이 입안에 고였다.

물론 이 나라 황제는 환영할것이다. 큰 벼슬을 줄수도 있다. 허나... 허나...

문익점은 크지 않은 자기의 짐꾸레미를 꼭 쥐었다. 그안에 목화씨를 넣은 붓대 여러개뿐... 허나 허강의 몇달구지 되는 재산보다도 더 큰 재산이라고 문익점은 생각했다. 그 가치는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자기의 나라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어떤 리익을 주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재부란 무엇일까? 비단인가, 황금인가, 아니면 훌륭한 집과 보석들인가? ... 천금만금을 두고 재부라고 할진대 천금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귀중한 마음은 무엇이라고 해야 옳은가?...

문득 리공수가 문익점의 팔소매를 건드렸다.

《자네는 여기에 남는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 녀인도 있는데?》

문익점은 창끝에 찔린 사람처럼 흠칫했다. 서슴없이 내뱉는 그 말에 얼굴이 확 달아 올랐다. 그 녀인이라... 그 녀인...

짜릿한 아픔이 심장에 미쳐 왔다.

...

그것은 목화씨를 얻기 위하여 운남이라는 지방에 도착했을 때였다.

그곳 농부들에게 목화씨를 구할수 없겠는가고 물으니 현의 관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이였다.

현의 관리는 수염을 길게 드리운 사람이었는데 단번에 문익점의 소청을 일축해 버렸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 목화씨가 다른 나라에 가는것이 엄금되어 있소이다. 그러니 안되오이다.》

문익점에게는 뜻박이였다. 엄금이라면 암담하였다. 망연자실하여 일어 섰다. 자기의 모든것을 다 주고서라도 목화씨를 고려에 가지고 갈수 있다면...

이때 안방에서 찾다는 기별이 와서 현의 관리는 잠간 자리를 뒀다.

문익점은 버틸 생각이였다. 목화씨를 얻기 위해서는 체면도 버틸 생각이였다. 끝없이 간청하리라.

돌 뚫는 화살은 없어도 돌 파는 락수는 있다고 하지 않는가!

현의 관리가 다시 나왔다. 왜 그런지 환한 기색이였다. 문익점의 팔소매를 붙잡으며 말했다.

《귀한 손님임을 몰라 보았소이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익점은 얼머름해 졌다. 갑자기 귀빈으로 모시는것도 놀랍거니와 안방으로 들어 가자니 아연할수밖에 없었다.

《실례되는 일이 아니온지?》

그 말에 현의 관리는 빙그레 웃었다.

《그런 일은 없을테니 들어 가십시오.》

안방은 화려하면서도 기품이 있어 보였다. 병풍이며 족자가 여러개 보였다.

방안에 두 녀인이 있었다. 모두 비단옷을 입고 울린 머리를 했는데 문익점에게 절로써례의를 표시하였다. 현의 관리는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저의 안해이고 저 사람은 홀몸이 되어 의지하여 사는 나의 누이올시다.》

문익점은 아직 영문을 깨달을수 없었다. 오리무중속에 빠져 들어 간 기분이였다. 안개속에서 무엇인가 보았을 때 형체를 가려 보려고 애 쓸때의 심리와 비슷했다.

누이란 녀인이 참 미인이였다. 가름한 얼굴에 량쪽 귀밑머리가 곱게 드리워 한결 환하게 보였다. 가쁜하게 드리운 앞머리밑에 자리 잡은 가느다란 두눈썹과 약간 높을듯 한 코마루, 그사이에 깊지도 알지도 않게 박힌 그의 커다란 두눈은 류달리 맑고 그윽해 보였다. 그의 두눈에는 어찌나 영채가 돌았던지 열렬하고도 쾌활한 그의 얼굴을 한층 밝게 해주었으며 방안까지 환해 지는 것 같았다.

그 녀인은 어리벙벙해 있는 문익점의 얼굴을 긴 살눈섭을 들어 일별하고는 상그레 웃으며 벽에 걸린 붉은 비단족자를 가리켰다.

《눈에 익지 않으오이까?》

손길을 따라 옮겨 가던 문익점의 시선이 굳어졌다. 한동안 족자를 쳐다보다가 녀인을 돌아 보았다.

《그럼 부인이?》

그 비단족자에는 자기가 쓴 붓글이 새겨져 있었다. 저자거리에서 쓴 붓글, 그때 비단임자가 주는 은덩이를 거절했었다.

《정말 기이한 상봉이오이다.》

《붓글씨도 으뜸이지만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그 인품에 탄복하였나이다. 이 집에 서화가 많사오나 천금으로 계산 못한것은 저 족자뿐이오이다.》

서화에 조예가 깊은 녀인이었다. 문익점은 급작스레 녀인과 가까와 졌다. 오래동안 사귀어야 마음이 통할수 있다는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순간에도 마음이 통할수 있고 한생을 사귀어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법이다.

정이 깊어 졌을 때 녀인이 물었다.

《어째서 목화씨가 필요하신가요? 생활에 무슨 보탬이 되겠나이까?》

《나의 생활에는 보탬이 아니되더라도 나라에야 보탬이 될게 아니겠소.》

《차라리 목화가 많은 이 나라에 남는것이 어떠하오이까?》

녀인의 얼굴에 기대가 어려 있었다.

문익점은 흠칫했다. 녀인은 이 땅에 자기가 영원히 머무르기를 소원하는것이다.

이 녀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아름다운 녀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가!... 녀인의 눈은 젖어 있었다. 눈물에 젖은 눈에는 마음속에서 스며 나온 간절한 그리움의 광채가 비껴 있었다. 문익점의 마음에서 사랑이외의것은 사라졌다. 건전한 사랑에 리기심과 속임수가 있을수 있는가! 고결한 녀에 그들이 있을수 있는가.

바다에 해가 솟는것을 본 일이 있는가. 떠오르는 태양의 빛에 천만보석으로 부서져 광채를 뿌리는 바다를 사랑에 비길수 있으리라! 그 바다에 빠져 자기를 잊고 싶었다. 문익점은 아찔해 졌다. 그 자리를 피해야 했다.

문득 밖에서 부복하고 서 있는 해손이와 마주쳤다. 저도 모르게 멎어 섰다. 이윽도록 내려다 보았다.

《해손아, 네 이 나라에 사는게 어찌한고?》

《싫소이다!》

《그건 왜?》

《이 나라에야 어머니가 없지 않소이까! 그러니 이 나라에서 살면 어머니를 버리는것이겠습지요?》

문익점은 얼음물을 들쓴듯 한 기분이었다. 다 음순간 얼굴이 뜨거워 지고 마음이 부끄러워 났다. 가슴이 찌르르해 졌다.

어머니라! 어머니를 버릴수 없다. 그래! 어머니가 사는 땅을 버릴수 없는것이다. 소박한 말이지만 거기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것인가!...

문익점은 고국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옵소서.》

...

문익점은 회상에서 깨여 났다. 마주 앉은 사람 들에게 해손이가 한 말을 다시금 들려 주고 싶었다.

그는 허공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가자! 꼭 가자!》

4

《나는 고려로 떠나겠소이다.》

문익점의 말에 허강은 물론 리공수도 깜짝 놀랐다.

《역신으로 몰려두 말인가?》

《벌을 받아도 제 나라에 가서 받겠소이다.》

문익점은 붓대를 움켜 쥐며 말했다. 자신은 역신으로 몰려 죽어도 이 목화씨는 고려땅에 뿌려져야 한다. 이것이 나 하나의 재산이 아니라 고려의 재부로 되여야 하기때문이다.

해 뜰무렵 문익점은 길을 떠났다. 고삐를 잡고 걷는 해손은 이따금씩 문익점의 얼굴을 쳐다보곤 했다.

《서장관님!》

《왜?》

《꼭 서장관님이 먼저 가야만 하는가요?》

《그런 법이야 없지. 허지만 가야 할 길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게 아니란다.》

《그런데 말이오이다.》 하고 해손은 흘끔 뒤를 돌아 보며 말했다. 《떠날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소이다. 리공수대감이 부사대감께 하는 말이 우리도 떠나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더군요.》

그러자 부사대감은 서장관님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결심하자고 하였소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이지요!》

《놀랍고나!》

문익점자신은 그렇게 할것 같지 못했다. 남은 맛을 보고 삼킨다지만 자신은 삼키고서야 맛을 느끼는것 같다.

혹시 여기서 차이가 나는것이 아닐가! 자기 리익에 따라 나라를 대하는 마음에, 바람세를 보고 뜻을 올리는 행동에 반역의 그림자가 비껴 있는것이 아닐가?...

고국땅이 건너 보이는 강기슭에 그들은 닿았다. 강 건너 창검을 든 군사들이 보였다. 해손은 불

안한 눈길로 문익점을 쳐다보았다.

《어떻게 할갑쇼?》

문익점에게는 떠나오며 고국땅과 송별주를 나누던 일이 떠올랐다. 오늘은 술이 아니라 목화씨를 뿌리리라. 이 땅이 더더욱 비옥해 지기를 바라며...

문익점은 고국땅으로 걸음을 내디디었다. 아나나다를가 창검을 든 군사들이 문익점을 끌고 갔다.

다음날이었다. 문익점이 군사들에게 이끌리어 어느 한 장막에 들어 서니 그안에는 수염이 거푸스스 일어 서고 눈썹이 머리칼처럼 긴 무관이 장검을 짊고 서 있었다. 문익점은 그가 최영장군임을 깨달았다. 정사 리공수와 같은 품계의 대감이니.

성미가 급한것으로 알려 진 최영은 그가 들어서기 바쁘게 눈썹을 찡긋했다.

《어이하여 반역자와 내통을 한단 말이나?》

추상 같은 호령이었다. 문익점은 목구멍이 숨뭇치에 틀어 막힌듯 했다.

《장군도 내가 반역했다고 생각하시오?》

《지금까지 그렇게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것을 보여 주지 않는가!》

담벽은 문처럼 떠밀어서 열리지 않는 법. 문익점은 아무런 변명도 최영에게는 통하지 않으리라는것을 깨달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그대는 부사 허강이 최유탄테 달아 났다는것을 아는가?》

《허강이?》

문익점은 방망이에 가슴을 얻어 맞은듯 한걸음 물러 섰다. 참을수 없는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틀어 켜 주먹이 부르르 떨었다. 할 말이 없었다. 그 사람은 응당 그 길로 갈 사람이였다고 생각되었다.

성미 급한 최영은 그 어떤 설명과 해석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새 뿔났는지 최영의 손에 장검이 들려 있었다.

《반역은 용서 받을수 없다!》

머리우에서 시퍼런 빛이 번뜩 느껴 지는 순간 문익점은 눈을 감았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그런데 생각했던 일은 일어 나지 않았다.

문익점은 다시 눈을 떴다. 최영은 이미 장검을 내리우고 있었다.

억울한 마음에 문익점은 울부짖었다.

《왜 들었던 겐을 내리우시오. 반역을 용서하시려오?》

최영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한동안 문익점을 지

켜 보았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없는가?》

문익점은 입술이 말라 드는것을 느꼈다. 혀를 감빨며 나직이 말했다.

《고향에 보낼것이 있소이다.》

최영은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너의 행동에는 리해 안되는 점이 많다. 정사 리공수의 행처는 밝혀 지지 않았으니 기다렸다가 처형할것이다!》

그는 군사들에게 끌고 가라는 령을 내렸다.

문익점은 옥에 갇혔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해손을 불렀다.

《내가 가지고 오던 짐을 건사했느냐?》

《가지고 있소이다.》

그를 넘겨다 보는 해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문익점은 살창새로 해손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어찌했느냐! 일이 이렇게 된것을... 너에게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지 분부하시오이다.》

《내 짐속에 붓대가 있다. 그속에 목화씨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고향에 내려 가져라! 가서 그것을 아들 증용에게 주어서 키우게 해라! 나는 억울하게 역신으로 몰린대도 목화가 살아 나 퍼진다면 더 바랄게 없겠다.》

《서장관님!》

눈물에 젖은 해손의 손이 철창을 으스러지게 틀어 잡았다.

《기다리시오이다. 일이 바로 잡힐것이니.》

문익점은 빙그레 웃어 보였다.

해손이 사라지자 그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 불살이 푸들푸들 떨리고 온몸에 경련이 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익점은 밖에서 군사들이 수군수군하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여 났다. 그들이 하는 말을 스쳐 듣다가 깜짝 놀랐다. 그들은 해손이 다시 강을 건너 이웃나라로 슬그머니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자기의 한팔처럼 믿던 해손이, 그에게 목화씨를 넘겨 주었는데 달아나다니?...

아니, 아니, 그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해손은 그렇게 달아날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혹시?...

《이 나라에서 살면 어머니를 버리는것이겠습지요?》

해손이 하던 말이다. 그런 사람이 달아나다니?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럴수 없다. 정녕 그럴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익점은 밖에 나가서 알아 볼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내가 그토록 안타까이 가져 온 목화씨,

목화씨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때문에 그는 역신으로 몰릴것을 뻔히 알면서도 넘어 왔다. 죽을 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넘어 왔다…

(아니, 아니다!)

갑자기 문익점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자기가 넘어 온것이 어찌 목화씨때문이라! 그것 없이도 그는 넘어 왔을것이다. 표류하는 쪽배를 탔다고 당는 기슭마다 제 고향이라! 누가 말했던가. 고국은 친어머니요, 타국은 이붓어머니라고… 사람들이 물건을 안고 와야 재부를 안고 오는것인가? 목화씨가 없이 왔다고 빈손으로 오는것이였을가?

하다면 무엇때문에 벼슬과 사랑의 유혹도 주저 없이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 왔단 말인가! 무엇때문에 역적으로 몰리워 죽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이 땅을 서슴없이 밟은것인가!…

머칠이 흘러 갔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문익점은 기다리는데 지쳐 버렸다. 죽음은 고통스러운것이 아니다. 고통스러운것은 죽음을 기다리는것이다.

어느 날 손을 쏴아 보며 옥안에서 지낸 날자를 계산하는데 옥문이 덜경 열리였다.

문익점은 흠칫하며 쳐다보았다. 한 군사가 들어 섰다.

《도순위사 최영장군께서 부르시오이다.》

문익점은 천천히 일어 섰다.

기다리던 날이 다가온것이다.

역신의 죄라! 해손이까지 달아났으니 어이할고… 허나 이미 내디딘 걸음이니 두려울것도 없다. 그는 최영의 장막에 이르렀다.

안에서 최영이 마주 나왔다.

문익점은 저오기 놀랐다. 최영의 눈가에 감격의 물기가 번들거렸던것이다.

《내가 오해했겠네. 용서하라구.》

최영은 문익점의 두손을 부여안고 사죄를 했다. 문익점은 아직까지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최영에게 이끌리어 안에 들어 가던 문익점은 깜짝 놀랐다. 안에 리공수가 서 있는것이다.

《아니 어떻게?》

《자네를 따라 넘어 왔네.》

리공수는 한동안 문익점을 지켜 보다가 말을 하였다.

《국경에서 자네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니 넘어 오고 싶은 마음이 없더군. 사실 동요가 많았네. 허강이는 달아났지 나도 넘어 가면 같은 신세가 되겠는데 선뜻 걸음이 옮겨 지겠나. 그런데 자네의 하인 해손이 넘어 오지 않았겠나. 내가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 녀석이 나도 역신으로 몰렸다는건 생각도 안하거든.》

《해손이가 거길 갔겠소이까?》

《그 녀석이 나를 붙잡고 울더군. 마음이 이상

해집데. 나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것은 아니나 남의 땅에서 살 생각은 더 끔찍하거든. 자네의 행동이 옳았어. 사람은 죽어도 제 땅에서 죽어야 해. 그래 넘어 왔네.》

《해손이는요?》

《다시 넘어 왔네. 넘어 오자마자 자네의 고향인 진주로 떠났네. 전해야 할것이 있다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최영이 문익점에게 다가왔다.

《찬성사대감의 말을 들으면 자네는 그 나라 황제가 벼슬을 주는것도 아름다운 녀인과 재부가 마련되어 있는것도 뿌리치고 왔다는데 도대체 고국엔 무엇이 있나? 가난한 살림밖에 없지. 있다면 기다리는 아들뿐이였어. 그런데도 돌아 왔네. 내 지금까지 리해를 못했네. 허지만 지금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군! 자네의 마음에 대하여… 그러나 자네는 기다리는 아들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았나?》

《왜 빈손이겠소이까!》

《목화씨에 대한 사연을 들었네. 그 사연을 알았다면야 어찌 자네를 역신으로 보았겠는가. 그 목화씨가 아들에게 가져 온 재부라는건가?》

《목화씨는 아들에게 가져 온것이 아니오이다. 그건 백성들의것이오이다.》

《그러니》 하고 최영은 말했다. 《자네는 자기 자식에게는 아무 재부도 가져 오지 못했구만!》

《아니, 아니오이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리공수가 끼여 들었다.

《내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이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고 생각했소이다. 그런데 많은 재물을 싣고 오던 허강이 달아나는것을 보면서 달리 생각했소이다.》

이 사람은 자식에게 가장 큰 재부를 가져 왔소이다. 그것은 목화씨가 아니옵니다.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하며 돌아 오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이 이 사람이 가져 온 재부오이다.》

《옳은 말이요!》

최영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어떤 권력에도 아부한적이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머리 숙인 일이 없었소. 허나 그대의 높은 마음에 감복하는바이니 나의 경의를 받아 주기 바라오!》

최영은 갑자기 문익점의 앞에 꿇어 앉으며 절을 했다. 문익점이 당황하여 만류하는데 최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매해 사신이 이국에 갔다 왔지만 지금같이 큰 재부를 안고 온 사신은 없었소.》

갑진년에 사신이 안고 온 재부는 후세에까지 전하여 질것이요!》

물길 백리 꿈길 백리

(총련) 강대성

1

《어째서 그 사람은 만날 카레만 먹노?》

일흔을 넘은 어머니의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어머니, 그게 다 촬영한 록화테프를 몇번이고 돌리는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보기엔 분명 같은 사람이 나와서 먹고 있는것 같은데...》

쓰시마의 시골에서 반세기이상을 산 어머니한테는 그 이상 설명할 말이 없다. 텔레비전방송국에서 록화한 테프를 하루에 몇번 돌리는것이라 해도 텔레비전방송국이 뭐고 록화기가 뭐고 하는 설명은 소귀에 경읽기라고나 할가?

1.5m 되나마나한 작은 키에 흰 서리가 내린 짧은 머리, 어찌면 어린이와도 같이 순진하고 귀여운 미소가 매양 어린 눈과 주름 많은 얼굴.

일찌기 남편을 여의고 4남매를 키우느라 이를 악물고 세파를 헤쳐 오신 어머니. 그러나 자식들을 다 결혼시켜 놓고 이제 손자들도 하나 둘 먼 곳에 보내놓으니 얼핏 보기엔 여유자작하게 여생을 보내시는 어머니...

문삼은 며칠전 동생 룡삼과 전화로 나눈 이야기가 머리속에서 빙빙 맴 돌았다.

《형님, 이젠 쓰시마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 오세요. 자동차정비공장을 차려 놓을만 한 터를 찾아냈는데 같이 살자요. 아이들의 장래문제를 생각하면 도회지에 살림기반이 있어야 하지 않아요.》

조선대학교를 나오고 6년동안 오사카에서 교편을 잡은 동생은 처남이 급사하자 그가 하던 일을 인계 받아 고향으로 내려 갔다.

처음에는 자기 생활의 전부처럼 된 학생들을 잊을수가 없어 매양 우는 소리를 하였는데 10년 동안 기업을 벌려 놓고는 이제 안정된 토대를 꾸려놓은셈이다.

《나도 생각은 해. 그런데 여기를 떠나는것이 고향을 떠나는것처럼 꽤 쓸쓸하구나. 나도 이런진대 만날 고향생각에 눈물을 머금으시는 어머니는 더하지 않겠니.》

여기를 떠난다는건 나서 자란 고향에서 더 멀리 떠나간다는것이 아니겠니?》

《그러다 영영 그 외딴 섬에서 떠날수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겁니까.》

사람의 인생엔 기회가 있는데 자꾸 놓치면 그런 기회도 다시는 찾아 오지 않을겁니다.》

경제제일주의로 치닫는 일본에서는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파소화의 광풍이 휩쓴다. 그 광풍을 한번 맞으면 기름진 옥토도 이 땅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고 불 밝은 집집마다에는 거미줄만 엉성히 뻗어 간다.

쓰시마는 그런 파소화의 전형적인 섬이다.

무심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작은 섬에는 5천 명을 넘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었다. 산에는 산마다 솟구이를 하는 우리 동포들이 직은 움막을 짓고 살았고 해변가에는 고기잡이, 조개잡이를 하는 동포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았다. 조국이 해방되었어도 지척에 둔 고향에도 못 돌아 가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계속한 동포들이 공화국에로의 귀국의 길이 트이자 수많이 돌아 가고 한편 살 길을 찾아 하나, 둘 일본본토로 떠나가 이제는 100여명 되는 동포들만이 쓸쓸히 살아 간다.

세월의 흐름은 막지 못한다지만 총련사업에서 이름을 날린 총련 쓰시마본부가 문을 닫은것은 주체75(1986)년, 총련 제14차전체대회 이후의 일이었다. 총련결성당시만 해도 누가 오늘의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4.19인민항쟁을 비롯하여 민주와 통일을 부르짖는 소리가 남조선에서 세차게 일 때마다 쓰시마의 동포들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수 없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동포들속에서 첫째에 오르는것은 쓰시마의 몫이지.》

쓰시마의 동포들은 통일의 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열변을 토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고국산천이 바라보이는 섬에는 남녘땅을 뒤흔드는 함성, 땅울림이 그대로 전해 져 오는것만 같았다. 그렇게 쓰시마동포들에게는 조국이 가깝게 여겨 졌던것이다.

그러나 부풀어 오르는 꿈은 고무풍선처럼 하나, 둘 깨여 지고 망향의 념을 불 태운채 1세대들은 숨지고 2세대들도 부모들의 간절한 꿈을 버려 본토로 떠나갔다.

이제 섬에는 문삼의 포레들은 하나도 없다. 파파 늙은 로인들만이 남은 이 섬에 내가 혼자 남아 무얼 할수 있을것인가. 동생의 권유도 권유지만 앞으로 아이들의 장래까지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 지는 문삼이었다.

동생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문삼은 생각했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 저 사는것은 쓰시마동포들의 가혹한 숙명이였다. 쓰시마를 기점으로 말 그대로 일본각지에 흩어 저 살아 1년에 한번 가족들이 만나는것도 쉽지 않았다.

문삼은 50고개를 넘어 선 자기 인생을 더듬어 본다.

우리 학교에 다닌 동생과 달리 문삼은 일본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단취직으로 가나가와현의가와사키에 갔다. 고도성장의 문어귀에 서던 당시, 까까머리 중학교졸업생들이 집단적으로 취직하여 도회지에 흘러 가는것은 어디서나 보는 흔한 모습이였다. 더우기 4형제의 맏아들로 부모님과 더불어 동생의 생활까지 말아야 할 그로서는 상급학교에 다니는것보다 당장 일하여 돈을 버는게 급선무였다.

실상 특수한 기술을 가진것도 없는 《견습공》에게 있어서 돈벌이는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았다.

한달에 얼마간씩 남은 돈을 푼푼이 모았다가도 쓰시마에 몇번 왔다 갔다 하면 빈털터리가 되는것이 일쑤였다.

그러나 문삼은 오늘의 자기가 있는것은 바로 그 시절이 있었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세월은 자동차수리의 기술을 익혀 밥벌이수단을 배웠다가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친 귀중한 세월이였다고 생각한다.

문삼은 그때 조청원들의 권유로 청년학교에 다니며 우리 말과 글을 배웠고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배웠다. 자기 처지와 비슷한 청년들도 수태만났다. 대회에 나가면 와글와글 뿜는 청년들의 모습에 아연해 졌다. 그렇게 많은 조선청년들이 눈앞에 있다는것이 믿어 지지 않았다.

작은 섬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었다.

같은 고민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논쟁을 벌리기도 하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동포들의 따스함, 부드러움, 고마움은 이역살이를 이겨 내게 하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중요한 마음의 기둥이라고 문삼은 생각했다.

아이들을 멀리 고꾸라의 동생집에 보내여 우리 학교에 다니게 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역에서 나서 자란 아이들의 가슴에 민족의 넋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가정교육만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며 반드시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동반해야 한다는것을 문삼은 청춘시절에 뼈저리게 느낀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어떤 비싼 대가도 웃음으로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의 제사를 치르느라 1년에 한번씩 섬에

건너 오는 동생 룡삼은 아이들 장래문제를 자꾸 꺼내면서 말하곤 하였다.

《형, 설마 아이들에게도 섬생활을 시키려는것이 아니겠지요?》

《아이들의 장래야 내가 이러쿵저러쿵할수 있겠니.》

《그래도 형이 섬을 떠날 의사를 말하지 않고 있으니 아이들도 아버지의 생각을 쫓는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 세상 끝까지 자유로이 오가는 이때에 아이들을 가정의 작은 테두리에만 얽매여 놓겠어요.

더우기 맏아들인 영기가 부모결을 영영 떠나 혼자 제멋대로 살 생각을 하는것 같지도 않고요.》

《걱정 말아. 섬에서 사는건 내 대로 끝장낼테니. 애들의 희망에 최고량을 채우는 일은 절대로 없을거야.》

사실 문삼이 알기에도 최근시기 쓰시마의 동포들속에서 새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운것이 현실이였다. 남조선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 데려 왔다는 이야기는 있고 일부 귀화한 동포들이 가정을 꾸렸다는 이야기는 가끔 듣기는 했지만...

자기 대에 정말 쓰시마생활이 끝이 날것인가. 말로는 섬생활을 청산했어도 뉘지 섭섭한 마음을 금할수 없는 문삼이였다. 자기의 고향처럼 뿌리 내린 쓰시마, 남의 나라 땅에 왔어도 조국이 제일 가까운 쓰시마에 산다는 공지로 자신을 위로해 왔다. 그러나 그런 작은 위안을 자기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수는 없는것이다.

지난 봄에 조선대학교에 입학하여 제법 셈이든 영기와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시기라고 문삼은 생각했다.

2

쓰시마의 봄은 야산마다에 불 붙듯이 빨갛게 피여 오르는 산진달래와 더불어 찾아 온다.

문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꽃이다. 그 산진달래는 조국의 꽃이다. 왜냐하면 그 꽃은 태고에 조국과 쓰시마가 하나로 이어 지고 있을 때부터 피고 핀 꽃이기때문이다.

사람의 발길도 닿지 않는 험한 산등성이에 붉게 피는 진달래는 역경을 뚫고 나가는 선구자의 모습과 같다고 문삼은 생각하였다.

멀리 조선반도에서 불어 오는 서북풍은 지나가는 겨울의 앙탈을 전해 주는것만 같아도 대지의 숨결은 누구도 막지 못할 봄의 태동을 전해 준다.

쓰시마의 북쪽 주요항구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차려 놓고 바쁘게 일하는 문삼의 유일무이한 취

미는 낚시질이다.

쓰시마에서 50년 가까이 어부생활을 하는 좌동군동포의 배에 실려 문삼은 바다에 나갔다. 일요일이라 좌동포는 쉬는 날이었으나 문삼의 청에 기꺼이 응해 주었다.

창창한 바다로 나가 낚시대를 드리우면 세상시름도 다 잊혀 지는것 같았다.

본토에서도 밤 새워 련락선을 타고 낚시군들이 모여 드는 쓰시마에는 이름난 낚시터들이 많다. 밤이면 밤마다 대낮처럼 황황한 불빛을 켜고 낙지잡이를 떠나는 배들이 바다를 메우고 낮이면 낚시군들에게 좋은 어장을 제공해 준다.

부산까지 물길로 50km!

지상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경계선도 그이 지지 않는 바다에는 남조선어선들도 종종 드나든다.

지척에서 서로 오갈 때면 손시늉을 해가며 잘 잡히는가고 인사를 나누는 남조선어민들, 서로 같은 민족의 피를 나눈 한겨레라는것을 눈치 채지 못해도 그들을 대할 때마다 어쩐지 가슴 후터워 지는 문삼이다.

끝없이 검푸른 바다, 수평선과 하나로 맞붙은 푸른 하늘.

문삼은 낚시대를 한가로이 드리우다가도 자신이 푸른 하늘과 바다속으로 녹아 드는것만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곤 하였다.

머리우로는 갈매기와 소리개가 높게 낮게 넘나들며 《자유》를 보란듯이 자랑하는것만 같았다.

(날새는 좋구나. 그 작은 나래를 힘 있게 퍼덕이며 어디나 갈수 있지. 여기 상공을 날아 가는 술한 철새들도 우리 나라로 찾아 간다는데 어이하여 사람만이 이 꼴일까?)

아니, 분렬의 아픔만을 겪는 우리 민족이 언제면 통일된 조국땅에 저 새들처럼 자유로이 오가게 될가.)

하루에도 몇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다가 새를 쫓으며 한숨을 짓던 어머니의 모습이 방불히 떠올랐다.

어릴 때 가정을 받드는 대들보로 거목처럼 보이던 어머니가 날로 작아 지는것이 문삼은 가슴 아팠다. 솥구이를 하느라 가마를 꾸리고 움막을 짓고 대장부도 힘들어 하는 로동에 가냘픈 몸을 잠그어 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폐병을 앓아 병석에 누운후로는 가사를 혼자 도맡아 가족들을 먹여살린 어머니를 생각하니 문삼은 아무리 효도를 다 해도 모자라게만 느껴 졌다.

《문삼아, 오늘은 왜 그렇게 잠잠하니? 물에 두고 온 애인생각에 골몰하는거냐?》

제가 하는 룡담에 चे스스로 웃어 보이는 좌동포의 얼굴은 바다바람에 새까맣게 그슬렸다.

제주도출신동포들은 다 바다에 능한줄 알았는데 좌동포는 배를 탄 첫 시기 배멀미가 심했다고 한다. 해녀인 안해의 부추김을 받으며 배를 모는게 아니라 배에 물리였다고 좌동포는 노상 우스개소리를 잘하였다.

《파도도 잠잠하고 바다바람도 시원해서 잠간 꿈을 꾸겁니다. 저 날새처럼 푸른 하늘을 날아 예는 꿈을 꾸어 마음만 저 하늘에 날아 간것 같습니다.》

《문삼이가 그런 시인인줄은 몰랐구나.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만은 저 하늘을 날아 예다니...》

《아저씨는 아무런 장애도 없는 이 바다를 자유로이 오가면서 하늘을 날아 가는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까?》

좌동포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문을 떴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꿈자리서 몇번이고 저 하늘을 단숨에 날아 가 고향땅을 찾아 갔지. 고모랑 삼촌이랑 나를 반겨 맞아 주는데 꿈이 깨니 제정신이 들더라 말ियो.

4.3사건때 그분들은 다 이 세상에 넘만 남기고 떠나가셨거던.》

제주도에서 나서 자란 좌동포는 허구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주체37(1948)년 4월 3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일어 난 제주도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은 원수들의 무차별적인 탄압과 학살로 많은 희생자들을 내었다. 도민의 3분의 1이 되는 8만여명이 무고하게 학살되었다는 설도 있다.

문삼은 멧적은 분위기를 돌리려고 화제를 바꾸었다.

《아저씨, 조국에 귀국한 선희는 잘 있습니까?》

한달전에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 온 좌동포는 때를 만났다는듯이 신이 나게 조국방문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문삼은 어릴 때의 선희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선희는 배우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선희라 불리우게 되었다.

선희의 어머니는 구차한 살림을 유지해 나가느라 몸 하나를 내대고 살아 왔었다. 검푸른 바다속 깊이 들어 가 소라며 전복을 따느라고 자기 목숨을 줄이였다.

만삭이 된 날에도 바다에 들어 가다가 진통이 시작되어 배우에서 선희를 낳았다. 다음날에도 선희에게 젖을 먹이고 나서 다시 바다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생활을 몇십년이고 거듭하던 끝에 선희 어머니는 잠수병에 걸려 정말 생사기로에서 오락가락하였다.

부모들의 그런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고 자란

선회는 조선대학교에 다니던 때 만오빠와 함께 귀국하였다. 고생스레 자기를 키워 준 부모들의 소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조국에 귀국하여 통일의 모퉁이를 맡아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도표에 간 아들은 만나고 왔습니까?》

《가는 길에 잠깐 만나고 왔지. 아버지도 이제 늙었으니 같이 살자 하는데 그 작은 집에 우리로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수 있겠나. 물가가 엄청나게 비싼 도표에서 자기들만 사는것도 고생스러운데 우리가 가면 경제적인 부담도 말이지.

우리야 정정하니 아예 걱정 말라고 했었지.》

문삼은 좌동포의 말을 들으니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우리야 한뼉 바다를 먹고 살아 왔는데 그런 도회지에 나가 어떻게 살겠소. 그저 아이들의 집이 될바에는...》

섬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질무렵이 되어서야 문삼은 포구로 돌아 왔다.

문삼의 심정은 착잡했다. 좌동포의 말대로 늙은이들에게는 오늘의 살림이 문제였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는 섬을 떠나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다 떠나갔는데 자기들이라고 그 레외로 될수 있겠는가.

고꾸라에서 함께 살자는 동생의 말이 메아리처럼 귀속에서 울려 퍼졌다.

문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안에 들어 섰다.

《여보, 모레 영기가 돌아 온대요. 방학을 리용해서 후꾸오까의 동창생들과 만났다가 래일 배를 타고 온대요.》

집에 들어 서기 바쁘게 안해가 하는 말이다.

작년 봄에 조선대학교에 입학한후로 돌아 올 때마다 몰라 보게 자라나는 아들이다. 여름에는 하기교양선전대에 나가고 중앙(도표)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에도 여러번 참가한 아들은 짧은 사이에 사회에 눈이 뜬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도 크겠지만 사회적으로 각성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실천활동이 크다는것을 새삼스레 느끼었다.

《부두까지 마중하러 나가 볼가?》

《3살난 아이도 아닌데 모처럼 아버지가 마중하러 가나요?》

마흔도 중반에 들어 선 문삼보다 3살아래인 성녀는 나이에 비해 꽤나 젊어 보였다. 눈귀가 시원하고 코날이 곧게 선 성녀는 미인이라기보다는 조선적인 맛이 나는 녀성이다.

문삼처럼 쓰시마에서 태어난 성녀였지만 섬의 중심지인 이즈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까닭인지 촌티가 전혀 없었다. 이즈하라는 섬에는 유일

한 비행장이 자리 잡고 있었고 거리도 꽤나 컸다.

《만날 때마다 크게 자라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것은 부모들의 특권이 아니겠소. 당신도 함께 나가보자구.》

《나야 뭘... 난 집에서 기다릴테니 당신만 나가 보세요.》

문삼은 안해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이제 3년후이면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겠구나고 생각했다. 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것인가? 문삼은 아들나이엔 벌써 로동에 뼈마디가 굼었었다. 자기의 청춘을 원한 어리며 돌이켜 보는것은 아니지만 아들의 장래에 자기의 기대를 중복시켜서 생각하는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었다.

문삼은 이제 3대가 살아 온 섬생활을 돌이켜 보느라니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 났다.

1세대동포들 치고 고생없이 산 동포들은 없을것이지만 쓰시마의 산골에서 인간대접 못 받고 망국노의 설움까지 겪으며 사신 아버지, 인생의 락도 누리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생각을 하면 가슴이 저려 났다.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 아버지 리성학은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의해 농사 지을 땅을 빼앗겨 살 길을 찾아 일본에 건너 왔다. 우선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땅-쓰시마에서 러비나 구하고 본토로 건너 가자던것이 이래도 저래도 못 살아 그대로 짐을 풀어 놓게 되었다.

조국이 해방된 날, 산에서 바다에서 동포들이 속속 모여 들더니 거리를 메우며 목이 터지라고 만세를 부르던 모습이 어제일처럼 선히 떠올랐다.

당시 문삼은 어린 몸이라 해방의 기쁨과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아버지의 옷자락에 매여 달리며 거리를 활보하는것이 꿈세계를 거니는 것만 같았다. 매양 어둠에 짓눌리던 동포들이 노래 부르고 춤 추며 활개치는 모습을 보니 무작정 기쁘고 즐거웠다.

이제는 조선사람들도 깊은 산속에서 빠져 나와 해빛 눈 부신 거리에 살수 있을것 같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떴다.

그러나 꿈결에도 그러 보던 조국의 해방이 이룩된 다음에도 동포들의 처지는 전혀 달라 지지 않았다. 미구에 고향에 돌아 갈것이라는 아버지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일가친척들이 집을 꾸리고 배를 낼 경제적여유도 없었고 외세에 의해 동족상쟁의 비극까지 겹쳐 섬에는 슬픔과 비탄만이 무겁게 드리웠다.

칠칠야밤 북녘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전쟁의 불길은 얼마나 동포들의 가슴을 울분과 아픔으로

갈기갈기 찢었으랴. 그 불길속에서 자기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아비규환의 지옥을 맛보고 무참히 죽어 가고 있는것이다.

문삼은 그때 동포들이 신문과 라디오방송을 보고 들으며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었다.

《강철의 령장 **김일성**장군에 의해 머지 않아 조국이 통일된다. 그러면 우리모두 고향으로 가자.》

동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미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장기화되고 희생은 나날이 확대되어 갔다.

그때 문삼은 뒤산에 오른 아버지가 땅을 치며 통곡하던 모습을 난생 처음으로 목격하였다.

또다시 산에 들어 가 숲구이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사람에게는 숲구이이상의 일이란 없었던것이다.

흙을 비벼 솥을 구울 가마를 만들고 불을 보살피기 위해 움막을 지었다. 통나무를 찍고 솥을 굽는 작업은 말그대로 중로동이였다. 어른들도 힘들어 하는 작업에 문삼은 어릴 때부터 맞붙어 왔다. 그것은 문삼에 한한 일이 아니였다. 조선사람들모두가 구차했고 살림살이를 퍼자면 아이들도 중요한 노동력이였다.

해빛도 스며 들지 않는 울창한 수림속에서 숲구이를 하며 구차하게 살던 지난 날을 생각하면 문삼은 웬만한 고생도 달갑게 여겨 지군 한다.

그러나 고생속에 락도 있었다. 깊은 산속에 웅기종기 사는 동포들로 하여 산은 통채로 조선사람의 마을과 같았다. 메아리쳐 울려 오는것은 조선말이였고 이따금 구슬픈 노래가락도 들려 오곤 했다.

특히 문삼은 산에서 맞은 설날을 잊을수가 없다. 어려운 살림속에서도 세배를 하러 집집을 찾아 가면 얼마간의 세배돈이 호주머니에 채워 져고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던 음식들이 입맛을 돋구었다. 한잔 술에 열이 오르는 어른들을 결눈질로 보면서 아이들은 연피우기며 팽이놀이에 시간가는줄 몰랐다.

어린 시절에 부모들에게서 받은 사랑은 평생 잊을수 없다. 폭신한 솜이불에 덮인듯 한 그 후더움, 허를 녹이는 사탕물의 그 달콤함, 사랑이란 말도 익히기전에 몸에 스며든 부모들의 사랑은 세월이 갈수록 더 짙은 향수를 뿌린다.

그러나 문삼은 어릴 때 아버지의 애무를 받거나 등에 업힌 기억이 없었다. 아버지는 상냥하다기보다 늘 엄한 모습이였고 말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아버지도 한때 빛나는 시절이 있었다.

그것은 해방직후 일본 각지에 국어강습소를 비롯한 민족학교들이 세워 졌을 때의 일이다.

《문삼아, 넌 래일부터 조선학교에서 배운다. 우리 말과 글, 조선의 력사와 지리를 배우게 된다.》

아버지에게 손목을 잡히여 끌려 간 곳에는 아무리 꿀 발린 말로도 찬양하기 어려운 허술한 단층집이 있었다. 동포들과 아이들에게 둘러 싸인 아버지의 얼굴에는 여태까지 보지 못한 미소가 함뿍 어려 있었다. 딴 사람을 보는것 같았다. 그리고 오가는 말에 귀를 기울이자니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고 《교장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것 같았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문삼에게는 지워 지지 않는 영상이 있었다.

교실에 높이 모셔 진 한상의 초상화.

아버지는 그분이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이시라고 하였다.

축지법을 쓰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일제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시고 해방된 조국땅에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설해 주신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라고 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돌이켜 보면 민족학교에서 처음으로 배운것은 《가야표》와 《**김일성**장군의 노래》였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과거를 청산하기는커녕 또다시 민족의 뉘를 앗으려 우리 민족학교에 더러운 탄압의 손을 뻗치였다.

그런 귀중한 학교가 언제 폐쇄됐는지 어린 문삼으로서는 알아 보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다만 벽이며 기둥에 붙은 《차압》의 붉은 종이가 바람에 하느적거리던것을 오늘도 한장의 사진처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3

후꾸오까로부터 쓰시마로 건너 가는 배길은 고꾸라-히다까쓰, 후꾸오까-이즈하라의 두 항로가 있다.

북쪽의 주요항구 히다까쓰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문삼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고꾸라에 가는 배에 올랐고 그후에도 몇번 이 배를 리용해 왔었다.

그 배를 타고 오늘은 아들 영기가 돌아 온다.

하선시간은 아침 7시라 문삼은 일어 나자마자 밥도 먹지 않고 부두로 향했다. 영기와 오래간만에 회포를 나누면서 더운 김이 물물 피어 오르는 아침밥을 먹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 지군 했다.

하늘엔 구름이 낮게 드리우고 부슬부슬 봄비가 부두를 적시였다.

《국경의 섬 쓰시마》, 키높이 세워 진 간판은 이 지역의 특징을 본토사람들에게 선전하려는것인지 특별히 경계가 엄중하다는것을 알리려는것인지 문삼은 지금도 잘 알수 없었다.

조선과의 사이에 바다를 건너 쓰시마는 말 그대로 섬 전체가 국경이었다.

목포-제주 140km, 부산-시모노세키 225km, 그에 비하면 부산-쓰시마 50km 는 훨씬 가까운 거리이다.

지난 날 조국도 빼앗고 말과 이름마저 빼앗은 일본반동들은 해방직후 일방적으로 우리 동포들로부터 《일본국적》을 빼앗고 모르쇠를 하였다. 지난 날 강제로 끌려다 노예로동을 강요하더니 이번에는 살 길을 찾아 건너 오는 사람들을 밀항자라고 체포구금하였다. 그런 역사적경위로 하여 얼마전까지만 해도 섬에는 남조선의 밀항자들이 적지 않았다.

문삼의 집에서 없어 지면 코 달을 자리에 있던 총련 쓰시마본부에 일본경관들이 들이닥친것은 그가 갓 스무살을 넘기던 어느 해 여름이었다. 때마침 소란에 놀란 동포들이 하나 둘 본부사무소에 모여 들었다. 알아 본즉 밀항자들의 집속에 《조선신보》가 들어 있었다고 하여 경관들이 사무소에 달려 온것이다.

일본경찰은 우리 조직을 밀항자들을 위한 무슨 앞선조직처럼 꾸며 내는 역지를 쓴것이였다. 밀항자이자 죄인이라 도식에 문삼은 가슴이 섬찝했다.

일본에서 사는 이상 일본법을 정중히 대하는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 흐르고 흐른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죄인》이란 락인은 너무도 매정하고 차갑고 비인간적인것이라고 문삼은 생각했다.

그것은 자기의 몸 가까이에서 일어 난 사변으로 하여 더욱 절실히 느껴 졌다.

얼마전 휴가를 리용하여 섬에 건너 온 룡삼이 경찰에 체포되였다.

《외국인등록증불휴대》란 죄목이였다.

(섬에서 태어나 자란 룡삼을 체포하여 가다니...)

파출소에 동생이 구속되어 있다는 전화를 받고 문삼은 어안이 벙벙해 졌다.

자기는 이 섬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머니와 형이 지금도 섬에 산다고 룡삼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막무가내였다. 부임하여 얼마 되지 않은 경관은 첫시작부터 밀항자를 잡는것처럼 기세 등등하여 수선을 떨었다.

문삼이 찾아 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보증을 서고서야 룡삼은 풀려 났다. 남의 나라에 사는 자기들은 포승 없는 《죄인》이라며 허구튼 웃음을 짓던 룡삼의 모습이 오늘도 눈에 선하다...

정각 7시, 배에서 사람들이 내려 오기 시작했다. 섬사람 비슷한 사람들, 휴일을 리용한 낚시꾼들, 영문 모를 사람들이 삼삼오오 내린다.

《영기야-》

뜻밖의 부름에 영기가 문삼을 찾아 가볍게 손을 저어 흔든다.

《아버지, 돌아 왔습니다. 모처럼 나오실것도 없었는데요.》

《나오라 해서 나오는게 아니라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것이니 걱정 말아라. 그래 그간 아무런 탈도 없이 잘 지냈느냐.》

아들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빙그레 웃음을 띠운다.

아침상은 여느때없이 즐거운것이였다.

문삼의 어머니는 한결 기분이 좋은것 같았다.

《우리 학자님은 우리 집의 가보로구나. 네 아버지는 우리가 구차해서 학교에도 못 보냈지만 우리 손주는 대학까지 다니고 학자님이 되니 대단하지. 대단해.》

지금은 옛날과 달라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 해도 막무가내다. 마치도 과거에 합격한 량반이나 대하듯이 손자를 높이 대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문삼은 우습기만 하였다.

저녁녘에는 예고도 없이 좌동포가 찾아 왔다.

영기가 돌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꾸레미 가득 해산물을 들고 찾아 온것이다.

《영기를 보니 우리 선회가 조선대학교로 가던 때의 일이 삼삼히 떠오르는구만. 그게 20년전의 일이니 나도 늙었다.》

《아닙니다. 아직도 고기잡이를 다니는 아저씨가 왜 늙었겠습니까? 계속 청춘의 기백으로 사셔야지요.》

좌동포는 70을 눈앞에 두었으나 꽤 젊어 보였다.

《조국에 돌아 간 선회가 이젠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내가 늙지 않을수 없지.》

좌동포는 얼마전에 조국을 방문한 이야기를 또 다시 재미나게 펼쳐 놓았다.

그날 영기는 자동차를 타고 섬구경을 가겠다고 불쑥 말을 꺼내었다.

《일본 각지에서 모여 오는 동무들이 쓰시마출신이라 하면 놀라기도 하고 부러워 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고국이 바라보이는 유일한 섬이라구요. 그러나 전 생각했어요.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내가 자란 섬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아는가고요. 특히 쓰시마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 보자고 합니다.》

문삼과 함께 좌동포도 몹시 기특해 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다 없어 진 섬에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몹시 반가웠던것이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영기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주인공노릇을 해야지.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무심히 대하지 말고 잘 보고 오게나.》

다음날 새벽 영기는 떠나갔다. 남북으로 82km, 동서로 18km 의 작은 섬이라 2박 3일로 돌아 온다고 하였다.

쓰시마는 산 또한 험준한 섬이다. 섬의 87%가 산림으로 뒤덮여 있고 평균 200~300m의 산들이 해안가까지 육박하여 절벽을 이루고 있다. 농작물의 생산도 적고 산업이라 할만 한것도 없는 쓰시마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교역을 통해 살림을 꾸려왔다. 조선을 통해 조선과 중국의 문물이 쓰시마로부터 본토로 흘러 갔고 그 리득으로 섬이 유지되어 온것이다. 그만큼 예로부터 쓰시마와 조선의 관계는 매우 깊다는것은 듣고 있었으나 하루하루 생활에 쪼들리다나니 문삼도 그리 깊이 아는것은 없었다. 영기가 일찍 돌아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했다.

영기는 우선 부산의 산발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전망대에 섰을것이라고 문삼은 생각했다.

영기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점심을 싸가지고 올라 간 그 전망대이다. 마치도 산발이 물결처럼 파도치는 산상에 그 전망대가 있었다. 그러나 고국의 산발은 부끄럼을 타는 숯색시처럼 언제나 얌전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무슨 심술을 부리길라도 하듯 아니면 찾아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재여 보듯 구름과 안개속에 자취를 곧잘 감추곤 했다.

그러나 자연은 어디까지나 자연이지 자연 그 자체가 누구에게나 애국의 마음을 심어 주는것은 아니었다. 같은 조국의 산발을 봐도 어머니와 나와 아들의 마음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것이라고 문삼은 생각했다. 그 간격을 메우는것은 오로지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조국을 모르고 자란 영기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조국의 산발을 몸 가까이 느껴 주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4

쓰시마는 오랜 역사를 거쳐 시대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왔다. 태고에는 조선반도와 하나로 이어 지다가 분리된 이 섬은 일본본토에 비해 3분의 1의 거리에 있는 조선과의 련관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유지해 왔다.

조선과 중국의 문화, 문물이 쓰시마를 징검다리 하여 일본에 퍼져 갔고 바다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산업도 없는 섬사람들은 조선에 드나들며 교역에 종사해 왔었다.

12차례에 걸쳐 《조선통신사》가 일본땅에 첫발을 내디딘 곳도 바로 쓰시마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시 쓰시마는 사무라이군사들을 조선에 내보내는 전초기지가 되었고 5천 가까운 섬사람들이 돌격대로 나갔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

다. 왜구(일본해적)의 거점도 이 섬이었다. 또한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그때 섬사람들은 학교도 부산의 학교에 다니고 물건을 구할 때도 부산에 갔다고 한다. 그러니 섬의 늙은이들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몰라도 해방전의 부산을 아는 사람은 적지 않았다.

식민지종주국이 되면서 섬사람들도 레외없이 조선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게 되었다. 해방후에도 민족차별은 뿌리깊이 남았다. 산에서 일하는 동포들을 《야망교》, 바다에서 일하는 동포들을 《우밍교》라고 부른것은 단적인례의 하나였다. 그런 쓰시마의 빛과 그들은 생활의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는것이라고 문삼은 생각했다.

더우기 자동차정비공장을 차려 일본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영업을 하느라면 섬사람들의 조선사람에 대한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기마련이다. 같은 값이면 조선사람의 공장보다 일본사람의 공장을 찾는것이 뻔한것이다. 더우기 여러 모로 사정이 어려워 졌을 때 구원이 필요하다면 일본사람들이 누구를 먼저 구원해 주겠는가. 그러기에 자그마한 흠도 보여서는 안된다고 문삼은 늘쌍 마음을 다잡았다.

문삼에게는 일본인친구도 많았다. 함께 야구를 하거나 낚시질을 해도 둘레에는 일본사람밖에 없으니 당연한 리치였다.

그런 친구속에는 성실히 대하고 속을 털어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문삼을 놀래우는 사람도 있다.

《일본에서 오래 살바에야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는게 어느 모로 보나 리익이 많지 않겠나.》

친구로 친절을 베푼다는게 그런 발언으로 나타나는것이다. 그럴 때면 문삼은 자기 부모들이 어떻게 일본으로 건너 왔으며 어떤 차별을 받아 왔는가, 조국의 해방으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오늘까지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변함없이 간직된 소원이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문삼은 매일 매 시각 조선사람으로 가슴 펴고 뿔뿔이 살아야 함을 더욱 절감하였다.

그런 그이기에 어린것들을 키우면서도 이런 말만은 귀가 아프게 되풀이해 왔다.

《자기가 조선사람이란걸 한시도 잊지 말고 똑똑히 행동해야 한다. 이제 조선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의 일거일동이 일본사람의 눈에는 조선사람의 대표와 같이 비친다.》

문삼은 중학교까지 아이들을 섬의 학교에 보내면서도 본명으로 보내게 했고 조선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공부도 생활도 앞장 서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를 위해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좋은 시범을 보여 주려고 문삼은 아득바득 노력했다.

영기는 사흘후 저녁노을이 황금빛으로 파도를

물들일무렵 어느때없이 활기에 넘친 얼굴로 돌아왔다. 그것은 명승지를 찾는 유람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캐고 앞날을 비쳐 보는 마음의 여행이기때문에 귀중한것이라고 문삼은 생각했다.

《그래 제일 인상 깊었던게 뭘이더냐?》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즐겁게 대답한다.

《울창한 수림속을 지나다가도 불쑥 숲구이를 하는 우리 동포들이 나타나는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슴을 울린것은 이즈하라에 세워진 이전 총련본부사무소였습니다. 구차하게 살던 우리 동포들이 말그대로 입에 풀칠을 해가며 모은 돈으로 세워진 그 건물이 오늘은 빈집으로 되었으니 얼마나 허전한지 몰랐습니다.

1세대들이 남긴 업적을 우리 3세대들이 어떻게 이어 가야 할지...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잔뜩 파제만을 안고 온것 같습니다.》

등잔불밑이 어둡다고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 조선사람의 대명사와도 같은 숲구이집들도 이제는 비와 바람에 씻겨 형체를 가리지 못하게 풍화되어 가는데 보다 중요한것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마음속에 쓰러린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라고 문삼은 생각했다.

영기는 한참 이야기관을 벌려 놓은 다음 할머니를 보고 아쉽게도 고국땅은 엷은 안개에 끼여 안보였는데 기회가 있으면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찾아 가겠다고 말하였다.

할머니의 얼굴에 어린이와 같은 순진하고 밝은 미소가 함박꽃처럼 피어 났다.

《손주야, 조국이 언제면 통일되나? 넌 학교 가서 어려운 공부랑 많이 하니 세상 돌아 가는 형편도 알겠지. 통일되면 네 아버지가 노를 젓는 첫배 타고 가자는데...》

문삼은 가슴이 뜨거워 났다.

《조국이 언제면 통일되나?》

그 물음은 2세, 3세 젊은이들에게 던져진 어머니의 피의 웨침이라고 생각했다. 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조국과 민족앞에 그 누구도 가슴 펴고 나설수 없는것이다.

문삼도 영기도 꼭 그러자고 몇번이고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날 밤 문삼과 영기는 오래간만에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이야기하던데 섬을 떠날 생각이랑 하는것입니까?》

《너 생각은 어떻게? 작은아버지처럼 본토에 나가는것이 좋겠니?》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본토에서 일하게 되겠

지요. 무슨 일을 하든 조국과 조국을 위해 일하자면 우리 동포들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런데 맞아들인 내가 부모를 적적한 섬에 남기고 간다는것이 아직 마음에 걸립니다. 장차는 함께 사는것이 아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넌 내 걱정은 털끝만치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스스로 택한 이 길을 가는거다. 생활의 필요에 따라 본토로 갈수도 있지.

그러나 네 할머니로부터 쓰시마를 빼앗는건 조국을 빼앗는것과 같다. 할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섬을 떠나지 말아야지.》

《우리 형제들도 요 몇해동안에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것이 분명한데 아버지는 그래도 섬에 남으려는겁니까?》

아버지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과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것일까요?》

《영기야, 난 눈앞의 사실만을 현실로는 보지 않는다. 래일까지 시야에 넣고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린 통일과 생활이 하나임을 되새기게 되는거야. 미구에 부산까지의 정기항로가 이곳 부두에 개설된다는 소문도 있는데 그러면 남조선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 지역에 총련간판을 내걸고 일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나. 내가 큰 일은 못해도 이 섬에서 나서 자란 사람으로서 제 몫의 일만은 하자는거다.

너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추켜든 애국의 기발을 우리 세대가 중도에서 내릴수는 없지 않나.》

문삼의 뇌리에는 떠나가신 아버지랑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키고 조국을 받들어 온 1세대동포들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지금은 기껏해야 분회를 꾸리는 동포들밖에 남지 않은 곳이지만 1세대동포들의 애국의 넋을 2세, 3세대들이 고스란히 이어 가야함을 통절히 느끼였다.

문삼은 말을 하려다 몇번이나 가슴속에 삼킨 말을 오늘은 아들에게 토해 보자고 생각했다.

《영기, 우스운 소리라고 비웃지 말아. 다른 동포들에게는 내비친 일이 있긴 한데 너한테는 처음으로 하는 소리다.

언제라고 딱히 짚어서 말할순 없어. 10년후가 될는지, 20년후가 될는지. 아니, 반대로 더 일찍 일수도 있지.

나는 여기에 동포로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동포들의 휴양소를 꾸리면 얼마나 좋을가 하고 이 몇해동안 생각했다.

쓰시마출신 동포들만이 아니라 일본각지의 동포들이 누구나 마음대로 찾아 오면 얼마나 좋겠나.

고국땅이 바라보이는 이 섬에서 자나깨나 조국

을 가슴에 안고 살도록 말이다.》

문삼의 얼굴에 순간 어린이처럼 천진란만한 밝은 미소가 어렸다.

5

시간의 흐름은 세계공통이다. 도표에서 보내진 평양에서 보내진 시간은 같은 흐름으로 지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쓰시마의 시간은 유유히 흐른다. 바람을 타고 미끄러 지듯 하늘을 날아 예는 수리개처럼 수평선 멀리 흰 갈기를 일으키는 잔잔한 파도처럼 이 섬에서는 시간에 쫓기여 남을 헤쳐서라도 달려 가는 혼잡이 없고 거리를 달리는 무수한 차들의 기막힌 행렬도 없다.

사람들의 다량적인 류출에 의한 파소화의 광풍은 섬의 활기와 더불어 시간의 급한 흐름마저 앗아 간것 같았다. 물론 문삼이 어렸을 때와 비하면 쓰시마는 몰라 보게 달라 졌다. 지난 날에는 짐승이나 다닐 오솔길밖에 없어 먼 곳에 가자면 배가 주요교통수단이였다. 그러던것이 오늘은 산속깊이에 훌륭한 포장길이 닦아 저 사람들은 자동차나 배스를 타고 훌가분하게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도회지에 비하면 비교할 대상이 못되었다. 문삼은 쓰시마의 그런 독특한 시간을 사랑했다. 말단의 세포에까지 깊이 스며여 있는 쓰시마의 시간속에서만 몸도 마음도 안정될것 같았다.

평온한 시간이 영원히 흐를것처럼 여겨 지던 어느 날, 일은 벌어 졌다.

그날 아침 언제 가려나 하고 의미불명의 말을 되뇌이던 어머니가 종일토록 차취를 감춘것이다.

로인들의 활동범위란 극히 제한된것이다. 몇군데 수소문하고 나면 꼭 알아 내군 했는데 이번은 사정이 달랐다.

문삼은 때마침 집에 와 있던 영기를 여기저기 내보내고 자신은 전화로 어머니를 찾았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찾지 못하자 문삼은 초조해 졌다.

섬을 속속들이 안다고 해도 몸도 자유롭지 못한 로인이 무슨 번을 당하면 어찌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오래동안 심장병을 앓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일도 몇번 있는 어머니였다.

문삼은 아침결에 어머니가 되뇌이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

《언제 가려나?》

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무엇을 말하려는지 푹푹히 캐묻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내가 어머니와 무슨 약속을 했는가?

영기더러 고국산천이 바라보이는 산봉우리에 오르자던 그 약속을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문삼의 뇌리에는 바다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얼른 스쳐 지나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인생의 태반을 산속에서만 보낸 어머니는 전혀 헤엄칠줄 몰랐기때문이다.

숨을 헐떡이며 영기가 집에 들어 온것은 거의 저녁 5시가 될무렵이었다.

《와아저씨를 만났었는데 부두에서 점심때 할머니를 봤답니다. 누굴 마중하자는겁니까고 말을 건넸는데 그저 웃음만 띄우더랍니다.》

부두란 고꾸라로 가는 련락선이 떠나는 곳이다.

언제나 점심때면 고꾸라로 가는 배가 떠나간다. 어머니는 그 배를 타고 어디로 떠나려고 했는가? 문삼은 영기와 함께 급기야 부두로 향하였다.

어스름이 내려 앉은 부두에는 정적이 깃들었다. 기다림칸은 문이 잠가 저 사람도 일췌거리지 않았다.

문삼은 한달전 여기를 떠나간 김동포의 모습이 생각났다. 쓰시마에서 반세기이상을 산 김동포는 80고령의 몸으로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는지 모른다고 림종의 시각에는 아이들결에 있고 싶다고 말아들이 사는 오사카로 떠나갔다.

숫구이도 함께 했고 어머니의 귀중한 말동무이기도 했던 로부부가 떠나 어머니는 더욱 외로와 보였다.

《통일이 되면 함께 조국에 가자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채 우리만 떠나가게 되는구만요. 언제 조국이 통일될는지? 우린 오사카에서 희소식을 기다리겠소.》

그때 어머니는 주름 덮인 얼굴에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였다.

(함께 가야지. 우린 함께 가야지....)

혼자말을 외우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반짝이었다. 남편을 여의고 친지들도 하나 둘 숨을 거두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기들도 다 떠나가니 어머니의 심정이야 어떠랴. 옛말을 나눌 동무들을 찾으려고 해도 동포들은 조국의 북과 남에, 일본 방방곡곡에 흩어 저 갔으니 이제는 영영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부두를 살살이 뒤흔다 겨우 어머니를 찾은것은 청명경이 지난 뒤였다.

어머니는 철타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된겁니까? 진지도 안 드신채 한나절 여기에 계셨던가요.》

《조국에 가는 배를 기다리는거다. 지구상에 못가는 나라 없고 달나라에도 간다는데 내라고 조국에 못 가겠니?》

계속 바다만 바라보다 넋없이 어머니가 뇌인다.

《어머니. 조국으로 가는 배는 아직...》

문삼은 더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그러다 네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흙이 되고
넋만 고향을 찾으라는거냐. 아니, 어제 밤에도 네
아버지가 고향에 함께 데려 간다고 성화를 부리
던데...》

문삼은 순간 가슴이 섬찝했다. 돌아 가신 아버
지가 성화를 부리시다니. 간밤에 꾸신 꿈의 이야
기를 하시는지, 망녕이 들어 꿈인지 생인지 분간
 못하는것인지 알길이 없었다.

영기는 소리없이 다가와 아버지와 할머니를 지
켜 보고 있었다.

《할머니, 어서 집으로 가십시오.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자고 온 겨레가 떨쳐 나
서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떨쳐 나서고 있는데 몇
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일의 날 큰 배를 타고 우리모두 찾아 갑시
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언제나 보이던 환한 미소가
되살아 났다.

《네 할아버지도 함께 태워 주겠지?》

《여부가 있겠어요? 우리모두 한배를 타고 찾아
가야지요.》

할머니의 말을 영기가 즐겁게 받아 대답하였
다.

할머니와 손자의 정이 서로 오가는 가슴 흐뭇
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문삼의 어머니는 다음순
간 등을 돌리며 나지막하게 말을 이었다.

《어째서 우린 만날 같은 꿈만 꾸노?》

하늘엔 차차로 검푸른 장막이 드리워 지는데

어머니의 눈가에는 별빛처럼 아롱지는 한줄기 눈
물이 반짝이었다.

텔레비존을 통해 하루에도 몇번 거듭되는 선전
을 보고 언짢아 하던 어머니.

보는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거듭되는 텔레
비존의 영상과 반세기 넘도록 내내 꾸던 통일의
꿈이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영화화면처럼 하나
로 중복되어 있는것이라고 문삼은 생각하였다.

이제 통일의 꿈이 그저 꿈으로만 그칠것이 아
니라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야 쌓이고 쌓인 어머
니의 한은 풀어 지는것이리라.

물길 백리, 꿈길 만리, 해방직후에는 밀무역으
로 쓰시마와 조국사이를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갔
다고 한다. 바람에 희롱 당하는 가랑잎처럼 파도
에 요동치던 그 작은 조각배마저 다니던 바다를
반세기가 넘는 오늘에도 찾아 가지 못하는 민족
의 비극앞에서 문삼은 억이 막혔다. 손을 뻗치면
당장 잡힐듯 눈앞에 아롱거리는 조국의 산야는
환영이란 말인가.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 오는 문삼의 생각은 착
잡했다.

이젠 빈말로 되지 말아야 한다. 어머니의 가슴
을 허비는 분별의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을 후대
들에게 넘겨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몇번이고 마음
속에서 되뇌어졌다.

통일의 그날까지 애국의 기발을 지켜 나갈 새
로운 결의가 문삼의 가슴속에서 끓어 올랐다.

상식

악몽과 질병

최신심리, 생리 및 의학연구자료에 의하면 악
몽 즉 무서운 꿈을 꾸는 원인에는 잠 자는 자세
가 불편하거나 극도로 피로하며 혹은 기분상태가
좋지 않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등 여러가지
가 있다고 한다. 이런 원인외에 악몽은 인체의
질병과도 연관되어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 어떤 병의 뚜렷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전에 가끔 무서운 꿈을 꿀뿐아니
라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곤 한다.

실례로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높은 곳
에서 떨어 지는 꿈을 자주 꾸며 위병이 있는 사
람은 배고픔을 느끼거나 썩은 음식을 먹는 꿈을
자주 꾸는데 깨어 나면 입안이 쓴감을 느낀다.
또한 고혈압병이 있는 사람은 불과 접촉하는 꿈
을 자주 꾸다.

어떻게 되어 악몽은 질병을 예고하는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인체는 병리변화가 생긴

부위로부터 이상한 자극을 받으며 그 자극은 뇌
수에 전달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불쾌감
을 느끼게 한다. 질병의 초기단계에는 자극이 비
교적 약하고 또 낮에는 뇌수가 외부로부터 들어
오는 수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몸안에
발생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까지 관심할 겨를
이 없다.

그러나 밤이 되어 잠이 들면 외부로부터 들어
오는 《정보》가 극히 적어 지면서 몸안의 이상한
자극이 상대적으로 세져 종당에는 뇌수의 해당
부위를 흥분시키고 시각중추에까지 확산된다. 그
리고는 뇌수의 이러저러한 《정보》들과 결합되어
각종 《영화장면》과 같은 꿈이 펼쳐 지게 된다.

이처럼 악몽은 사람들에게 병에 걸렸다는것을
알려 주는 《경보신호》로도 되기때문에 제때에
필요한 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